

자료 모음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자료모음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2013. 10. 30(수) - 11. 8(금)
부산 벡스코(Bexco)

ISBN 978-2-8254-1631-0



World Council
of Churches

자료 모음

자료 모음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자료 모음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Copyright © 2013 World Council of Churches. All rights reserved.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있습니다. 국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저작물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publications@wcc-coe.org

WCC Publications는 WCC의 홍보출판국입니다.

WCC는 1948년 조직되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믿음, 증언, 봉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 교회연합기구인 WCC는 110개국에서 5억 6,00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을 대표하는 349개의 개신교 교단들과 정교회, 성공회 등을 통합합니다. 또한 로마가톨릭교회와도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Judith Rempel Smucker

ISBN: 978-2-8254-1631-0

World Council of Churches
150 route de Ferney, P.O. Box 2100
1211 Geneva 2, Switzerland
www.oikoumene.org

차례

머리말

Part I 프로그램 자료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11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	78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증언	112
모두의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경제: 행동 촉구 요청	119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	128
21세기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신학적인 전망	142
신학교육에 대한 에큐메니칼 서약	155

Part II WCC 총회 준비를 위한 사전대회 자료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준비를 위한 범정교회 사전대회	171
원주민 협의회	180

Part III 각종 위원회 보고서

로마가톨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간 신구교공동사업기구	189
오순절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간 공동자문단 보고서	202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파별 세계연합체 간 공동자문위원회	
2007-2012 보고서	222
에코스 청년위원회 보고서	229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지속위원회 최종 보고서	234

머리말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Olav Fykse Tveit)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는 단지 친교와 축하, 기도와 예배의 행사만이 아니다. 또한 총회는 세계로부터의 요구, 에큐메니칼 기독교의 역할, 그리고 기독교의 에큐메니칼 참여에 대한 진지하고 경건한 성찰을 요청한다.

WCC 제10차 총회에 앞서, 이 『자료 모음』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에큐메니칼 활동의 전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책은 현재 WCC의 가장 중요한 문서, 프로그램, 위원회, 그리고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의 활동을 담고 있다.

이 『자료 모음』 자체가 풍성한 수확이지만 동시에 이 결실의 축제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이기도 하다.

특별히 첫 번째 문서들에 주목할 것을 당부하는 바, 이는 세계 교회를 향한 선물 의 몸짓이다. 의견수렴 문서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는 오늘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고하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지난 20여 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이 문서는 한 세대가 이룩한 첫 번째 합의 문서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자신의 선교를 세계 속으로 연장하여 하나의 교제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공유된 풍성한 신학적 비전을 제시한다. 두 번째 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최근 25년간 도출해낸 첫 번째의 새로운 선교 확증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기독교 선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새로운 비전과 그 선

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과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기독교적 선교의 역할을 제시한다.

사실상 이 책 속에서 총회의 숙고사항과 WCC의 미래적 프로그램을 알리고 추동하는 모든 범위의 활동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위원회들과 동역 교파들의 주요 활동과 아울러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증언>을 포함한다. 이 자료집은 이런 맥락에서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있었던 지난 총회의 지시사항을 포괄하는 문서, 즉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을 담고 있는데, 이 문서는 이번 총회에서 수용되고 추인되어야 한다. 이 자료집은 또한 WCC가 오순절 계열 교단, 교파별 세계연합체, 그리고 로마가톨릭교회와 진행한 대화에 대한 보고서들과 아울러 빈곤, 부, 생태 프로그램(PWE)의 최종 요청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디아코니아(diakonia), 경제, 그리고 신학교육에 대한 주요한 재고가 담겨 있다.

이상의 주제들과 문서들 중 다수가 총회와 아울러 전체 프레젠테이션 가운데 있게 될 21세기 에큐메니칼 좌담들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아울러 WCC의 최근과 현재 활동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평행 출판물도 있음을 아래에 주지하는 바이다.

- <정의를 행하는 믿음: 포르토 알레그레로부터 부산에 이르는 WCC의 여정>
- <땅 위에 평화 구축하기: 국제에큐메니칼평화대회 보고서>
- 『정의로운 평화 동행』, 2판.
-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서로를 수용하기: 로마가톨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간 신구교공동사업기구, 제9차 보고서, 2007-12>
- <아프리카 HIV와 AIDS 에큐메니칼 사업: 영향력 평가서, 2002-09>

Part I
프로그램 자료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신앙과 직제위원회, 2012년 말레이시아 페낭

우리가 공동체적 친교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투쟁하며 과거와 현재에서 우리가 처한 분열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출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서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작업을 위해 기독교의 여러 전통과 문화권에 속한 신학자들이 가장 광범위한 규모로 동참하였다. 이 문서는 우선 교회의 사명과 일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생명 안에 있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 다룬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 친교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다룬다.

서문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라는 의견수렴 문서는 기독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다음의 성서적 비전과 직결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2-13).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이로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공동의 삶과, 세상을 향한 증거와 섬김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성만찬적 공동체를 통한 가시적 일치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그러한 일치를 향하여 전진함으로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다”(2012년 부칙조항).

이렇듯 가시적 일치를 향한 상호 독려의 목표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교회로, 즉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말하는 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의 참된 표현으로서의 교회임을 인정하는 상호 인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분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각각의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나름으로 숙고하다 보니 교파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교회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러한 다양한 교회론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서로 조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짝트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론에 관한 합의야말로 기독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목표임이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이 문서는 신앙과 직제에 관한 두번째 의견수렴 문서로서, 첫번째 문서인 <세례, 성만찬, 직제>(1982)와 이에 대한 공식 반응들—여기서는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할 교회론의 주요 영역들을 지목하고 있다—로부터 나온 것이다.¹⁾ 아울러 이 문서는 연구 문서인 <하나의 세례: 상호 인정을 향하여>(2011)에서 제기된 교회론적 질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동안, 정교회, 개신교회, 성공회, 복음주의교회, 오순절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에서 파견한 대표들은 신앙과 직제에 관한 세계대회(1993), 3차에 걸친 신앙과 직제위원회 본회의(1996, 2004, 2009), 18차에 걸친 상임위원회 회합과 술한 사전 모임에 참석하여, 교회의 본질과 목적 및 사명에 관한 글로벌하고 다각적이며 에큐메니칼인 비전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 교회들은 공동 선언을 향한 여정 중 지나는 두 단계의 성과에 대해 반응하면서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인 자세를 갖고 임하였다. 이 교회들에게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일종의 공동 선언 내지 의견수렴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내어놓는다. 이 문서에서 나타나는 바, 지금까지 도달한 합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에서 보기드문 성과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연구와 공식 반응을 위하여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각 교회들에게 배포함에 있어 적어도 서로 구분되지만 상호 깊이 연관되는 두 개의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첫번째 목표는 갱신이다. 이 문서는 다각적인 성격을 지닌 에큐메니칼

1) *Baptism, Eucharist & Ministry, 1982-1990: Report on the Process and Responses*, Faith and Order Paper No. 149(Geneva: WCC, 1990), 147-151. 박근원 옮김, 『세례, 성만찬, 교역』(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3) 참조.

문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교회론적 전통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교회들의 신학적 표현과 교회적 경험이 한데 모아졌으므로 어떤 교회들은 이 문서를 읽으면서 교회의 삶을 더 충만히 살도록 자극받게 될 것이고, 다른 교회들은 이 문서 속에서 교회의 삶과 인식 중에서 이제껏 무시하거나 망각했던 측면을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교회들은 자기들의 입장이 더 강화되고 확증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을 경험해갈수록,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더욱 가까워지는 가운데, 성서가 말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두번째 목표는 교회에 관한 신학적 합의이다. <세례, 성만찬, 직제>에서 보여지듯,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거두었던 의견수렴의 성과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서에 대한 공식 반응의 과정이었다. 이 반응을 담고 있는 6권의 방대한 보고서가 출간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례와 성만찬과 직제라는 주요 주제들에 대해 각 교회들 간에 도달한 합의문들의 수준이 참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세례, 성만찬, 직제>에서 드러났듯이, 기독교의 일치를 향한 교회들 간의 의견수렴이 가져온 효과들은 잘 기록, 보존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에 대하여 각 교회들이 보내게 될 반응들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도달한 의견수렴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나타내줄 뿐 아니라 교회론에 대하여 교회들 간에 도달하게 된 합의의 수준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한 반응을 통해 도출된 세례에 대한 의견수렴이 세례에 관한 상호 인정을 향한 여정에 신선한 추동력을 부여해주었던 것처럼, 교회론의 분야에서도 교회들 간에 도달하게 될 유사한 합의가 교회들 간의 상호 인정에서 요긴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로써 교회들이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성만찬적 공동체를 통한 가시적 일치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독려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교회들의 반응”을 보낼 이들 중에는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속하거나 WCC 회원 교회들이 포함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새롭게 나서는 교회들도 이 초청에 응하여 이 문서를 연구하고 논평을 보내줄 것을 희망한다. 신앙과 직

제위원회는 또한 여러 에큐메니칼 기구들이 보내는 반응도 환영한다. 이에는 각국 내지 각 지역 차원의 여러 교회협의회들과 “교파별 세계연합체”(Christian World Communions)가 포함된다. 특히 후자를 통하여 여러 교회들이 진행하는 공식 대화들은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에 나타난 의견수렴에 도달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각 교회들이 이 문서를 검토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인도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질문들은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의 서론 말미에 들어 있다. 이 문서에 대한 연구와 반응을 촉발하기 위해 제기된 질문들은 신학적이고 실천적임과 동시에 목회적인 것들이다.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이 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늦어도 2015년 12월 31까지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 사무국 앞으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어언 20여 년이 걸렸다. 많은 이들의 수고와 기도와 신학적 은사의 토대 위에 이 문서가 세워질 수 있었으므로, 신앙과 직제위원회 위원들, <교회의 본질과 목적>(1998) 및 <교회의 본질과 선교>(2005)에 반응을 보내준 교회들과 신학자들, 신앙과 직제위원회 사무국에서 사역하는 회원들과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역대 의장단, 총무들로서 섬겼던 회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무

존 지보 신부(Canon John Gibaut)

신앙과 직제위원회 의장

콘스탄짜야-아모코스토스 수좌주교 바실리오스 박사

(Metropolitan Dr Vasilios of Constantia-Ammochostos)

서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수많은 신자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말로 매일 기도한다. 예수께서도 체포되기 직전 겹세마네 동산에서 비슷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마 26:39-42, 막 14:36, 눅 22:42 참조).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성부께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향한 뜻을 나타내셨으니, 곧 그의 모든 제자들이 하

나가 됨으로 이로써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었다(요 17:21).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함은 이러한 일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일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을 요청하게 마련이다. 교회들은 주님이 주시는 친교의 은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꾀망하는 여하한 장벽을 극복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는 많은 이들이 보기에 그중에서도 가장 지난한 문제를 거론하는바, 그것은 바로 교회 자체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사이자 목표로서 교회 일치가 지닌 중차대함이 이하의 단락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이 지닌 중요성을 밝히 드러낸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완전한 의견 일치를 표명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순히 추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도구적 수준은 넘어서는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들 상호 간의 인식에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지금까지 이룩한 진전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를 지적해준다. 이 문서는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다듬어낸 것으로서, 위원회의 목적은 전체 WCC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이로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공동의 삶과, 세상을 향한 증거와 섬김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성만찬적 공동체를 통한 가시적 일치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그러한 일치를 향하여 전진함으로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다”¹⁾ 이러한 가시적 일치는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에서 가장 감명 깊게 드러난다. 이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는 세상의 변혁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케 된다. 이 문서는 최근 수년 동안 교회론의 주제에 관하여 여러 교회들이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보내준 의견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동의 성찰에 바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던 이전의 에큐메니칼 문서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주님이 주시는 일치의 은사가 성령의 인도 하에 충만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이 문서는 다자간의 차원에서 진행된 대화, 특히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라는 문서에 대

1) L. N. Rivera-Pagán, ed., *God in Your Grace: Official Report of the Nin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Geneva: WCC, 2007), 448.

해 여러 교회들이 보낸 의견과 더불어, 2009년 크레테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제안들 및 2011년 키프러스에서 열린 정교회 회담의 성과를 취합한 결과물이다. 이에 더하여, 이 문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주제에 관련하여 진행된 다양한 양자간의 대화들을 통하여 진척된 성과에 의거하고 있기도 하다.²⁾

우리는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교회들을 섬기게 되기를 희망한다. (1) 주요 교회론적 주제들에 대하여 최근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에큐메니칼 대화의 결과물들을 일별하는 하나의 종합을 제공함으로써, (2) 이렇듯 대화의 중요성을 확증해주는 긍정적인 성과물을 평가하는 일에 교회들을 초청함과 동시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한 지금껏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영역을 표시함으로써, (3) 교회들이 보다 큰 일치를 향해 나아가도록(엡 4:12-16)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회론적인 이슈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의 구속적 변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어떻게 그 기원을 찾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이며, 일치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일치와 관련된다. 제2장에서는 교회를 친교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니는 뚜렷한 특징에 대해 상술하면서, 성서와 이후의 교회 전통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지, 교회의 삶과 구조에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공동으로 성찰한 결과물을 수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인 백성으로서 교회의 성장에 관한 주제, 특히 과거에 교회들을 분열시켰던 몇 가지 교회론적 난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자 대행자인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관계 맺는 몇 가지 유의미한 방식들을 제시한다. 예컨대 다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라든가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증언하는 일 또는 인간의 고통과 필요에 부응하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1982년에 발행한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해 보내준 많

2) 이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이 문서 말미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을 볼 것.

은 공식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합의문이 출판된 후에 뒤이은 수용의 과정이 그 문서의 출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³⁾ 교회론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촉매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이들이 교회론의 발전에 유의미한 공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진지하게 고려할 뿐 아니라 다음에 제시된 질문들에 비추어 이 문서에 대한 공식 반응을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 이 문서는 당신의 교회가 파악하고 있는 교회론적 인식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가?

- 이 문서는 교회들이 서로 일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일에 어느 정도로 공헌하고 있는가?

- 이 문서는 당신의 교회가 교회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적응과 갱신을 이루도록 도전을 주고 있는가?

- 당신의 교회는 이 문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교회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교회들과 생활 및 선교에서 한층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 교회의 생활에서 어떠한 측면이 추후 더 논의될 수 있겠는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교회론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는 어떠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일반적인 질문에 덧붙여서, 독자들은 아직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특정한 쟁점이 본문 전체에 걸쳐 산재된 이탤릭체로 표시된 단락들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질문들은 일치를 향한 도상 중에 있는 여러 교회 간에 성찰을 촉구하고, 보다 진전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삽입된 것이다.

3) M. Thurian, ed., *Churches Respond to BEM: Official Responses to the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Text*,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vols. I-VI, 1986-1988;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1982-1990: Report on the Process and Responses*(Geneva: WCC, 1990).

I.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일치

A. 하나님의 구상 안에 있는 교회

1. 교회와 그 사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모든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상(즉 경세)이라는 비전 안에 뿌리박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약속되고 또 그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성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창 1:26-17 참조), 하나님과 교통(그리스어, 코이노니아)할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교통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으며(창 3-4장, 롬 1:18-3:20 참조),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및 창조 질서 사이의 관계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함을 지키셨다.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파스카(십자가-부활)의 신비 안에서 결정적인 성취를 거두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활동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생명 살림의 선교를 예언과 긍휼의 사역 속에서 지속해나가며, 이로써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공동체적 친교의 원천은 성삼위가 지니신 생명 그 자체이므로, 공동체적 친교는 교회가 살아가도록 하는 은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화해와 치유의 희망 안에 교회를 부르시어 상처입고 갈라진 인류에게 나누어주라고 명하신 선물이기도 하다.

2.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마 9:35-36). 그리스도는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남성들과 여성들을 불러서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요 20:19-23). 교회는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신 행동과 언약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러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네 복음서가 모두 선교적 위임으로 마감

된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막 16:15, 눅 24:45-49, 요 20:19-21 참조)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이러한 분부 속에 교회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이미 암시되어 있다. 교회는 예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의 믿음으로 초대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교회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음으로 새로운 지체들을 입교시키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교회는 제자직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만찬을 집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신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몸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었다.

3. 성령은 오순절날 아침에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시작하도록 능력을 갖추어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행 2:1-41).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은 이따금씩 라틴어 *missio Dei*,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표현된다.)은 성자와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듯 성삼위의 구원활동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출간한 연구 문서인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믿고 고백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현실 간에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가 증언하는 바이다. 교회의 근원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뿌리박고 있다.”¹⁾

4.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풀어주며, 눈 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셨다(눅 4:18-19, 사 61:1-2

1) *Confessing the One Faith: An Ecumenical Explication of the Apostolic Faith as It Is Confessed in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 (381)*(Geneva-Eugene: WCC-Wipf & Stock, 2010), 216.

의 인용 참조).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소명의 핵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시작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자리하고 있다. 성찬 예배와 감사기도와 중보기도와 같은 교회의 내적 생활을 통하여, 선교와 복음전도를 계획하는 것을 통하여,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매일의 생활 양식을 통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세력과 결연하게 맞서 싸우는 것을 통하여, 교회들은 이러한 복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

B.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의 선교

5. 교회는 시초부터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 특히 성만찬을 거행하는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늘 헌신하여 왔다. 이러한 교회의 수고가 때로는 쓰라린 반대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이따금씩 반대자들의 꾀방뿐 아니라 심지어 사역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배반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포의 사역은 커다란 열매를 거두었다(막 4:8, 20, 26-32 참조).

6. 교회가 이제껏 직면해온 과제는 복음선포를 듣는 사람들을 둘러싼 상이한 상황과 언어와 문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파구스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지역의 토착 신앙체계와 문학적 자료들을 이용하였다(행 17:22-34). 이 사례는 제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청중의 문화적 유산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그것을 변형시켜 가면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는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실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매번 그 선교적 지평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행 1:8 참조) 확대하여 왔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종종 박해로

2) “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 6, in Matthey, e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Statements on Mission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Geneva: WCC, 2005), 8.

비화되곤 하였으나, 이는 또한 신앙의 확산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였다. 때때로 복음선포를 받는 이들의 문화적·종교적 유산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음화에 종사하는 이들이 제국주의적 식민화 정책과 결탁한 경우가 그러하였으니,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민족들이 이로 인해 약탈당하거나 심지어 말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성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과 친구들이 일어나고 풍성한 다양성을 지닌 여러 문화권 속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단일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일치성 안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다양성을 두고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바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엡 5:27, 계 21:2 참조).³⁾ 이전에 외국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오늘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을 돕는 일에 신자들을 파견할 만큼 성숙하기에 이르렀다.⁴⁾

7. 오늘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몇 가지 상황 전개가 교회의 선교와 자기 이해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에서 예수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타종교의 권리주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심화시키도록 도전받고 있다. 통신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교회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설립, 유지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머징 교회들”은 교회 됨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면서 오늘날의 필요와 관심에 대해 그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교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세속 문화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약진함에 따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이란 굳이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충족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신앙의 성립 가능성 자체를 의문시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몇몇 지역에서 교회는 등록인원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보기에 교회는 그들의 삶에 더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3) 이 사례에 대해서는, Augustine, “Ennarrationes in Psalmos,” 44, 24-25, in J. P. Migne, *Patrologia Latina* 36, 509-510을 볼 것.

4) 이러한 상호 원조를 통한 연대는 개종전도(proselytism)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개종전도란 다른 기독교 공동체를 개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태도이다.

여전히 재복음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모으고 있는 정도이다. 모든 교회
는 특정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도전들에 맞닥뜨려 복음화의 과업을 함
께 걸머지고 있다.

C. 일치의 중요성

8. 기독교의 일치가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신약성
서 안에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1-2장을 살펴보
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긴장을 초래하여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열을 일으킬 지경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서 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맨 처음 예루살렘 사
도회의의 경험을 재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문서는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
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간구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신자들이 예수께서 원하신 그러한 교회의 일
치를 추구하도록 초청하려는 것이다(요 17:21 참조).

9. 가시적인 일치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교회들이 서로 상대방 안에 니케아-콘
스탄티노플 신조(381)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가
진정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인정은 결국 어떤 경
우에는 특정 공동체가 교리나 관행이나 목회에 있어 일정한 변화를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일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의미심장한 도전을 나타낸다.

10. 현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와 배타적으로
동일시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자기들이 속하지 않은 공동체 안에도 참된 교회
를 구성하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예배의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상호 계약관계를 맺기
도 한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란 기독교적 성격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모
든 공동체 안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비
가시적이며, 지상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것을 적절하게 분별해낼 수는 없다고 주
장한다.⁵⁾

5) 성공회-루터교 간 보고서 “Growth in Communion,” in J. Gros, FSC, T. F. Best and L. F.

일치의 길을 둘러싼 근본적인 쟁점

1950년 토론토 선언 이래로, WCC는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하는 것은 자신들의 교회 조직에 소속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것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해 왔다. 더 나아가 에큐메니칼 차원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교회들 간의, 또 그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에 대해 크게 장려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으므로 이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 교회의 일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서는 교회들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숙고하는 가운데, 공동의 해답을 찾도록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⁶⁾

II.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

A.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11.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서가 규범이라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서의 증언은 교회에 관한 진전된 합의에 도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원천적 자료를 제공한다. 비록 신약성서에서 체계화된 교회론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 초기 공동체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 및 제자적의 실천, 봉사과 지도력을 감당했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보도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Fuchs, SA, eds., *Growth in Agreement III: International Dialogue Texts and Agreed Statements, 1998-2005*(Geneva-Grand Rapids: WCC-Eerdmans, 2007), 375-425 참조. 이 문서에서는 성공회-루터교 간의 중요 지역 협약으로 마이센(Meissen), 루아얌(Ruilly), 워털루(Waterloo) 등을 언급한다.

6) 따라서 이 문서는 WCC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나온 일치에 관한 선언문, <하나의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Called to Be One Church)에 근거하여 세워지기를 희망한다. 이 선언문에는 “교회들로 하여금 일치의 추구를 위한 투신을 갱신하고 상호 간의 대화를 심화시키도록 요청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Growth in Agreement III*, 606-610). “Final Report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 Section III, 12-21, in *ER 55. 1* (January 2003), 7-8을 볼 것.

드러내는 데 사용한 이미지와 은유도 엇볼 수 있다. 이후에 나온 교회의 성서 해석은 항상 성서적 교훈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역사의 변천과 더불어 교회론에 관한 풍부한 견해를 덧붙여왔다. 제1세대 공동체로 하여금 영감된 성서 본문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이후 세대가 복음에 충실하도록, 매 세대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이 뜻하는 바이다.¹⁾ 대부분의 공동체는 전통이 지닌 이러한 중차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에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2. 매우 다양한 교회론적 견해를 신약성서의 여러 책들과 이후에 나온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약의 정경은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교회론적 다양성이 교회의 단일성과 양립가능한 것임을 입증한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다양성이라 해도 거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²⁾ 바람직한 다양성이란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회가 지닌 보편성(catholicity)의 한 측면이다. 즉 다양성이란 성부께서 품으신 구원 계획—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성육신적인 것이며 복음선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혈육을 취하여야” 한다는 구상—의 일환으로서 보편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특성인 것이다. 교회가 가진 신비성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이미지와 견해(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전, 포도나무, 양무리, 신부, 권속들, 병사들, 친구들 등)를 적절히 이용하며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성서에 나타난 풍부한 증언과 아울러 전통에서 유래하는 견해에도 의거하고자 한다.

1) 신앙과 직제위원회 제4차 세계대회가 “Scripture, Tradition and Traditions(성서와 전통과 전통들)”에서 지적하듯이, “대문자로 표기된 전통(the Tradition)이란 복음 자체를 의미한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의해 세대마다 전수되어 온 것으로 교회의 삶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소문자로 표기된 전통(tradition)이란 말은 전승의 과정을 뜻한다. 전통들(traditions)이란 용어는 … 다양한 표현 형태와 우리가 교파적 전통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동시에 가리킨다.” P. C. Roger and L. Vischer, eds.,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Montreal 1963*(London: SCM Press), 1964, 50. 아울러 *A Treasure in Earthen Vessels: An Instrument for an Ecumenical Reflection on Hermeneutics*(Geneva: WCC, 1998), 14-37, 14-26도 참조.

2) 이 주제는 이하의 단락(§§28-30)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B.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코이노니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주도권

13. 교회가 생겨나도록 불러내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요 3:16) 또한 성령을 보내 시어, 그를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요 14:26 참조).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삶과 일치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치의 추구가 전제하는 것은 친교란 단지 기존의 교회들이 현재 자신들이 지닌 형태 그대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이노니아”(교통, 참여, 친교, 나눔)라는 명사는 “어떤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함께 나누다”, “참여하다”, “동참하다”, “함께 행동하다”를 뜻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주의 만찬에의 참여(고전 10:16-17),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간의 화해(갈 2:7-10),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보(롬 15:26, 고후 8:3-4) 및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체험과 증언 등을 보도하는 단락들에서 나타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친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그 자체의 본질상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창조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바 그러한 친교에 대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았다.

14. 교회는 복음, 즉 성부의 아들이시며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그 핵심과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사실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확증의 말에 반영되어 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복음의 선포를 들음으로(롬 10:14-18)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고전 12:3), 인간은 구원케 하는 믿음에 이르며, 성례전적(성사적) 방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다(엡 1:23). 어떤 공동체는 이러한 가르침에 의거하여 교회를 두고 크레아뚜라 에반젤리(creatura evangelii) 즉 “복음의 피조물”이라고 부른다.³⁾ 교회의 삶

3) J. Gros, FSC, H. Meyer and W. G. Rusch, eds., *Growth in Agreement II: Reports and Agreed Statements of Ecumenical Conversations on a World Level, 1982-1998*(Geneva-Grand Rapids: WCC-Eerdmans, 2000), 495-498에 실린,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교회와 칭의(Church and Justification)” 중 “복음의 피조물인 교회(The Church as ‘Creature of the

을 규정하는 하나의 측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으며 교회의 여정을 안내하는 길잡이를 늘 새롭게 발견한다.

15. 하나님의 어머니(테오토코스)인 마리아가 예수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 보여준 반응—“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을 위한 상징이자 모범으로 여겨져 왔다.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간행한 연구 문서인 <교회와 세계>(1990)는 마리아를 가리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충만한 차원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중요한 모범으로 주목한다. 이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반응하는 것과(눅 1:26-28), 복음의 기쁨을 엘리사벳과 나누는 것과(눅 1:46-55), 예수의 강생과 유년시절을 둘러싼 여러 사건을 묵상하며 겪는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과(마 2:13-23, 눅 2:19, 41-51), 제자직이 함축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과(막 3:31-35, 눅 18:19-20),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곁을 지키다가 그의 몸을 따라 무덤에까지 이르는 것과(마 27:55-61, 요 19:25-27), 제자들과 함께 기다리다가 그들과 더불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는 것(행 1:12-14, 2:1-4)을 말한다.⁴⁾

Gospel)의 단락을 볼 것. 여기서 마르틴 루터의 표현, “교회는 복음의 피조물이다(Ecclesia enim creatura est evangelii)”를 언급한다(WA 2, 430, 6-7). 몇몇 양자간 대화도 동일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라틴어 creatura verbi(말씀의 피조물)를 사용하곤 한다. “Two Conceptions of the Church”(94-113)에서는 교회를 “creatura verbi”라고 묘사하며, 개혁신교-로마가톨릭 간의 대화인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Church”에서는 교회를 “은총의 성례전/성사(sacrament of grace)”라고 묘사한다(*Growth in Agreement II*, 801-805). 위의 1장 6번 각주에서 언급한 성명서 <하나의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Called to Be the One Church)도 참조.

* 옮긴이 주: 이 문장은 프랑스어 원문과 상이함. [따라서 프랑스어 번역을 따라서 번역함] 이어서 프랑스어 번역에는 없는 문장 두 개가 삽입되어 있다. “교회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측면은 성령이다.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신실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성부와의 살아 있는 관계에 참여한다. 성서가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됨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왔다.”

- 4) 신앙과 직제위원회 보고서, *Church and World: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Renewal of Human Community*(Geneva: WCC, 1990), 64를 볼 것. 또한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국제위원회 보고서, *Mary: Grace and Hope in Christ*도 참조할 것(*Growth in Agreement III*, 82-112).

16. 그리스도는 성부께 기도하시기를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주소서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며(요 15:26, 16:13), 성령은 믿는 이들을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비롯한 여타의 은사들을 내려주실 뿐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필수적인 은사와 자질과 질서를 갖추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복음을 선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성례전적 친교, 그중에서도 특히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고 섬김의 사역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예 영적 자양과 생기를 더하여 주신다.

예언자이자 제사장이며 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17.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 자신을 위하여 한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셨다. 예언자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 겔 37:27, 고후 6:16, 히 8:10)와 같은 강력한 언명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과 소명을 자주 상기시켰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구원 계획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서로 간에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및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그리스도가 창설한 언약 안에는 진정한 새로움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키실 것이며,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상 안에서 첫 계약의 백성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롬 11:11-36).

18.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갔다. 그리스도께 귀의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장벽을 무너뜨리셨을 때(엡 2:14)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벧전 2:9-10). 믿는 자들은, 몸소 한 번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계약을 세우신(히 9:15)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장직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려

아울러 프랑스어권 개혁신교회와 로마가톨릭 신학자들의 친교 모임인 동브 그룹(la Groupe des Dombes)의 보고서, *Mary in the Plan of God and in the Communion of Saints (1997-1998)* (Mahwah, N.J.: Paulist Press), 2002도 참조.

진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소명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선교에 자기 몫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다. 이러한 은사들은 공동의 선을 위하여 주어지며(고전 12:7, 엡 4:11-13) 삶의 모든 차원에서 임무와 상호 책임의 의무를 각 개인과 지역 공동체와 전체 교회에 부과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견고케 되어 다양한 형태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제자직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았다.

19.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지니는 예언자적 백성이자, 제자직을 통해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제적인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섬기는 왕 같은 백성이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소명에 동참한다. 예수는 열두 명을 불러 파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 공동체의 지도력을 위한 기초를 놓으셨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모범에 충실하게 일찍부터 믿는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선별되어 특별한 권위와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전을 거행하며, 예배와 선교와 돌봄의 사역을 통하여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⁵⁾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안수를 받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의 일원이다.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도 교회의 일치와 선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사역의 현장이자 대상이 되는 교회가 없이 자신들의 소명을 실현할 수는 없으므로,*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의 인정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20. 상이한 전통에 속한 교회들 사이에도 사역의 필수적인 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일치가 있다. 이 점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발행한 <세례, 성만찬, 직제>(1982)에서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바, 이 문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보내시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에 주목하면서, “교회에 특별한 권위와 임무를 맡은 이들이 결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힌

5)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section on Ministry(Geneva: WCC, 1982), 13.

* 옮긴이 주: 프랑스어본 참조.

다.”⁶⁾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은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구성원 중 몇몇 사람이 수행하도록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과 성례전과 감독의 사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목회의 삼중적 기능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⁷⁾ 최근의 성명서들은 하나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왕적 사제직(벧전 2:9)과 특수한 안수 사역이 둘 다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호 배타적인 선택사항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공동체에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회들 간에 의견이 갈린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 과업이 안수받은 목회자들에게 한정된 반면에, 다른 교회들은 그러한 결정 과정에 평신도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

21. 그리스도는 그의 몸 된 교회의 변함없으신 머리로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치유하신다(엡 5:26). 동시에 그리스도는 교회와 친밀하게 연합하여 계시며, 성령을 통해 교회 전체에 생명을 주신다(롬 12:5, 고전 12:12).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다(롬 10:9). 기독교에 속한 대부분의 전통들은 사람들이 입문의 예식 내지 성례전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주님의 만찬에서 그의 몸에 참여함이 거듭해서 갱신된다(고전 10:16). 성령은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수여하시며 지체들 간에 일치를 이

6) 위의 책, section on Ministry, 9.

7) 개혁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Church,” §132, in *Growth in Agreement II*, 810. 또한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보고서, “Ministry in the Church,” §17, in H. Meyer and L. Vischer, eds., *Growth in Agreement: Reports and Agreed Statements of Ecumenical Conversations on a World Level* (Ramsey-Geneva: Paulist-WCC, 1984), 252-253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신약성서는 여러 직제들로부터 그리스도가 파송하신 사도들을 계승한 상임/항존직으로 이해되는 특별한 직제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특별한 직제는 공동체 내의 지도력을 위해 필요함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신약성서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심으로써 세우신 ‘특별한 직제’가 당시에만 필요했을 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감리교-로마가톨릭 간 대화 보고서, “Toward a Statement on the Church”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제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다(*Growth in Agreement II*, 588, §29 참조).

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롬 12:4-8, 고전 12:4-30).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들을 갖추시고 부르시며,⁸⁾ 이로써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김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교회를 일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 관련시키지만, 심층적으로는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증언하는 것과 같이 성령과의 관련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생한 실례는 오순절날 아침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강림한 사건에 대한 보도이다(행 2:1-4).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믿는 이들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엡 2:21-22),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벧전 2:5).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와 증거와 섬김을 통해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며, 평화의 띠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부름 받았다(엡 4:1-3). 성령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 만물의 변형(변화:transformation)을 선포하며 그것을 이룩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활력을 주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롬 8:22-23).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

22.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열린 이래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예전에 교회가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임을 고백하는 신조를 포함시켜 왔다. 이와 같은 교회의 4가지 속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참조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자 믿는 자들의 인간적인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천하도록 늘 부르심을 받는 사명이기도 하다.

• 교회가 하나인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요 17:11, 딤후 2:5 참조). 따라서 사도적인 신앙도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도 하나이고, 교회가 품는 소망도 하나이다.⁹⁾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세

8) *The Lutheran-Roman Catholic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0), §15.

* 옮긴이 주: 영어 본문이 애매하여 프랑스어 번역을 참조하여 번역함. “...mais qui s'informent mutuellement et sont liés les uns aux autres...”

9) “Called to Be the One Church,” §5, in *Growth in Agreement III*, 607 참조.

상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며(요 17:20-21 참조)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셨다(고전 12:12-13 참조). 교회 자체 안에 또 교회 서로 간에 나타나는 작금의 분열은 이러한 일치성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러한 분열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를 통해 반드시 극복되므로 분열과 배제가 마지막 파국으로 치닫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¹⁰⁾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분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의 복음 안에 세워졌다고 믿으며(갈 1:5-9 참조), 교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많은 공통된 특징을 통해 연합되어 있다(엡 4:4-7 참조).

-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사 6:3, 레 11:44-45 참조). 예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사 물로 씻어 말 씀으로 깨끗케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이로써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 십이라”(엡 5:25b-27).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성은 거룩한 남성들과 여성들 및 교 회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모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통해 증거되어 모든 세대에 걸쳐 증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룩성에 모 순되고 교회의 본질과 소명에 역행하는 죄가 믿는 자들의 삶을 거둬서 훼손시켜 왔다. 이런 까닭에 교회의 거룩성은 한편으로 교회가 사람들을 회개와 갱신과 개 혁으로 불러내는 지속적인 사역의 일환이기도 하다.

- 교회가 보편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딤후 2:4)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 때문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교회의 선교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한 다. 성만찬의 집례하는 것에서 드러나듯,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비가 현존하는 곳 에 교회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Ignatius of Antioch, *Letter to the Smyrneans*, 6 참조). 문화차이를 비롯한 여타의 차이점들이 분열로 이어질 때, 교회의 본질적 인 보편성이 훼손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에 내려주신 이러한 진리와 생명의 충만함을 구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도록 부름 받았다.

- 교회가 사도적인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10) 위의 글.

성자는 이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선택하여 파송하고,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주춧돌들이 되어 섬기며 교회의 선교를 감독하도록 하셨다(엡 2:20, 계 21:14, Clement of Rome, *Letter to the Corinthians*, 42 참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와 같은 사도적 기원에 늘 충실하도록 부름받았기에, 예배, 증거, 섬김에 있어 충실치 못함은 교회의 사도성에 모순된다. 사역의 사도적 계승은 성령의 인도 하에 교회의 사도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¹¹⁾

23. 앞의 단락들(13-22)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단지 신자 개인들이 자기들 간에 결성한 총체가 아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친교이자 그와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모든 친교의 근원이자 중심이 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의 교체인 것이다(벧후 1:4 참조). 이렇듯 교회는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실재(reality)인 것이다.

24.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인간적인 것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라는 것에 대해 공통의 확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 간에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제도적 구조 및 사역의 직제(ministerial order)와 연관되는 방식에 대해서 상이한 감도(感度) 내지는 대조적인 주장마저 드러나고 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지닌 직제의 몇 가지 본질적인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의도하고 제정하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러한 구조들을 변경할 만한 권위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교회의 직제는 한 가지 형태 이상을 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반면, 다른 교회들은 제도화된 어떤 단일한 직제를 하나님의 뜻에 돌릴 수 없다고 믿는다. 어떤 교회들은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제도적인 연속성과의 단절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교회들은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란 분열로 이어지는 단절을 야기하지 않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 WCC의 선언, "Called to Be the One Church," §3-7은 교회가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임"을 고백하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조항에 대한 유사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Growth in Agreement III*, 607 참조.

교회의 연속성과 변화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많은 교회들은 상호 존중과 상호 관심의 기초 위에서, 인내심을 갖고 서로 접촉하는 가운데, 교회의 연속성과 변화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감도와 주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동일한 의도—교회의 직제를 세우는 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경우에는 연속성에 대한 헌신을, 또 어떤 경우에는 변화에 대한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의 직제를 세움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각자가 매진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연속성과 변화와 같은 이슈들을 고려함에 있어 상이한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성찰해볼 것을 촉구한다. 화해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시급한 부르심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기준이 새로운 발전에 대해 어디까지 개방적일 수 있는가? 지금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때인가?

C.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상의 표징이자 청지기인 교회

25. 하나님의 구상(De-Sign)은 인간과 모든 창조세계를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있는 친교 속으로 불러모으는 것이다(엡 1:10 참조).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친교의 반영으로서 이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의도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인간에게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인간이 자신의 창조된 목적이자 자신의 기쁨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그 목적—모든 천군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회의 선교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한 증거와,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 교회의 선교는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므로(딤후 2:4 참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교회의 명시적인 신앙인들이 아닌 이들에게 다가가심을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한다. 교회의 선교는 타종교들과 비종교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진리와 선의 요소를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남성과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함에 이르도록 전도와 간증을 통하여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다.

26. 신약성서의 어떤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엡 1:9, 3:4-6 참조)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친밀한 관계(엡 5:32, 골 1:24-28

참조)를 지칭하는 데 신비(myster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사실은 교회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영적 초월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회의 현세적 차원과 영적 차원은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조직적 구조는 호불호를 막론하고, 예전을 통해 경축되는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사들에 비추어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교회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와 인간성의 변모를 구현하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 서로 간에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한다(고후 5:18-21, 롬 8:18-25 참조).

27.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는 특별한 방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이 있는 한편, 어떤 공동체는 “성례전(성사)으로서의 교회”(Church as sacrament)를 말함으로써 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반면에 다른 공동체는 보통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공공연히 거부한다. “성례전(성사)로서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은 교회를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친교를 통하여 서로 간에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친교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표징이자 방편—때로는 도구(instrument)라는 말을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다.¹²⁾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를 삼가는 이들은 이와 같은 용법이 전체로서의 교회와 개별 성례전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여러 공동체 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악성을 간과하도록 오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모든 이들이 동의한다. 다만 다양한 공동체 간에 교회의 본질과

12) 예를 들어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모인 로마가톨릭 주교들은 “성교회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사적 본질 안에 있다—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상통이자 모든 사람과의 일치를 나타내는 표징이자 도구”라고 진술하였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Lumen Gentium* [민족들의 빛], n. 1 참조). 여기서 도구(instrument)란 교회가 “효과적 도구임(effectiveness)”을 적극적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성사적 본질을 긍정하면서도 기독교 공동체와 관련하여 “도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교회란 하나의 표징으로 보는 생각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수용되는데, 이는 1968년에 웁살라에서 열린 WCC 제4차 총회 보고서에서 입증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교회는 스스로를 가리켜 장차 도래하게 될 인류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담대하게 말한다.” N. Goodall, ed., *The Uppsala Report*(Geneva: WCC, 1968), 17 참조. *Lumen Gentium*을 보려면, 다음의 주소로 접속할 것: <http://www.vatican.va>.

역할 및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교회의 예전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한 차이점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례전(성사)로서의 교회”라는 표현

“성례전(성사)로서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이 성례전(성사)들이 가진 독특한 “성사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 사역자들이 지닌 연약함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이러한 표현을 거부하는 이들 역시 교회가 하나님의 현존과 행동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표징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표현상의 차이점이 호환되고 상호 용인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가?

D. 일치와 다양성 안에서의 공동체

28. 공동체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바람직한 다양성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께서는 공동의 선을 위하여 상호 보완하는 다채로운 은사들을 신자들에게 내려주신다(고전 12:4-7 참조). 제자들은 서로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또 그 덕분에 부요케 되는 한편(고전 12:14-26),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다(행 2:44-47, 4:32-37 참조). 문화적·역사적 요인들이 교회 내의 풍부한 다양성에 이바지한다. 복음은 특정 시대와 상황에 알맞은 언어와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선포되므로 각 시대와 장소에서 진정성 있는 삶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통해 복음을 표현하는 것만이 진정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을 다른 문화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면 바람직한 다양성은 어김없이 훼손되어 버린다.

29. 그러므로 일치성이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말씀의 선포와 성만찬의 집례 및 섬김과 증거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서, 이 공동의 신앙을 통해 각 지역 교회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 속한 지역 교회들과 공동체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치를 위해 이바지하며 다양성을 배양하는 목회사역이야말로 교회에 주신 중요한 방편들 중 하나로서, 이를 통해 교회는 상이한 은사들과 관점을 지닌 이들이 서로에 대해 상호 책임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0. 이방인들도 공동체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할 당위성을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분별케 된 때부터 일치와 다양성에 관한 쟁점은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항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행 15:1-29, 10:1-11:18 참조). 예루살렘의 사도회의가 안
 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일치와 다양성을 좌우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것을 담고 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
 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행 15:28). 후에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모일 때마다 그 “요긴한 것들”의 실례를 덧붙여 나갔으니, 예를 들어 감동들은 제1
 차 에큐메니칼 공의회(325년, 니케아)에서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명시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도 위와 같
 은 기본 교리에 함축된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확실
 한 교도적 견해를 공표했는데,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인종분리 정책에 대해 규탄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¹³⁾ 바람직한 다양성이라 해도 거기에는 제약이 있다. 특히
 나 다양성이 용인되는 한계선을 넘어설 경우, 그것은 일치의 은사를 파괴할 수도 있
 다. 교회 내적으로, 각종 이단과 분파들이 정치적 갈등 및 증오의 분출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물인 친교를 위태롭게 하곤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열과 이단을 극
 복하도록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닌 예전과 관습과 교회법 상의 바람직
 한 차이점을 보존하고 존중하며, 영성 및 신학방법과 표현에 있어서 바람직한 다양
 성을 배양하는 일에도 부름을 받았기에, 이 사명을 교회 전체의 일치성과 보편성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¹⁴⁾

13) “World Council of Churches’ Consultation with Member-Churches in South Africa—
 Cottesole, Johannesburg, 7–14 December, 1960,” in *The Ecumenical Review*, XIII(2),
 January 1961, 244–250; “Statement on Confessional Integrity,” in *In Christ a New
 Community: The Proceedings of the Sixth Assembly of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Dar-es-Salaam, Tanzania, June 13–25, 1977*(Geneva: Lutheran World Federation, 1977),
 179–180, 210–212; “Resolution on Racism and South Africa,” in *Ottawa 82: Proceedings
 of the 21st General Council of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Presbyterian
 and Congregational) Held at Ottawa, Canada, August 17–27, 1982*(Geneva, Offices of the
 Alliance, 1983), 176–180; The Belhar Confession, [http://www.urcsa.org.za/documents/
 The%20Belhar%20Confession.pdf](http://www.urcsa.org.za/documents/The%20Belhar%20Confession.pdf).

14) WCC의 선언문, “The Unity of the Church as Koinonia: Gift and Calling”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신학적 전통과 다양한 문화적·민족적·역사적 접촉에 뿌리내린 다양성들은 친교의 본질에 필수
 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다양성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예컨대, 다양성으로 인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록 동일하신(히 13:8)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공동의 신앙고백이 불가능해진다면,
 그러한 다양성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친교 안에서 다양성은 성령의 은사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

바람직한 다양성과 분열을 야기하는 다양성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셨던 일치를 이루기 위한 에큐메니칼 대화는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기독교 교회들에서 파견한 대표들이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과연 바람직한 다양성인지 분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모든 교회가 자기 나름의 절차를 통해 바람직한 다양성을 그렇지 않은 것과 구분하고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결여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a) 공통의 판단 기준 내지 분별의 수단이 없다. (b) 이러한 기준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호 간에 인정할 만한 구조가 없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 신앙과 직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지속될 뿐 아니라 심지어 그와 같은 불일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다양성의 일부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교회들로 하여금 공동의 분별이 가능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숙고해볼 것을 요청한다.

E. 지역 교회들의 공동체

31. 공동체적 교회론은 지역의 개 교회와 보편 교회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 유용한 틀거리를 제공해준다. 지역 교회가 “세례 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사도적 신앙이 고백되며, 성례전이 거행되고,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증거되며, 감독(episkopé)의 사역이 공동체를 섬기는 감독(주교들)들이나 여타 교역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그리

며, 이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지닌 풍성함과 온전함에 공헌한다.” In M. Kinnamon, ed., *Signs of the Spirit: Official Report Seventh Assembly*(Geneva-Grand Rapids: WCC-Eerdmans, 1991), 173. “바람직한 다양성(legitimate diversity)”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인 양자간 대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성공회-정교회 간 대화에서는 지역 교회들의 삶에서 엿보이는 광범위한 다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목한다. “하나의 믿음에 대한 그것들의 증언이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그러한 다양성은 어떤 결핍 내지 분열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사람을 배정하시는 한 분이신 성령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표지로 간주된다.” *The Church of the Triune God: The Cyprus Statement Agreed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Anglican-Orthodox Dialogue 2006*(London: Anglican Communion Office, 2006), 91. 또한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Facing Unity*, 1984, §§5-7, 27-30, 그리고 특별히 31-34, in *Growth in Agreement II*, 445-446, 449-450; 성공회-로마가톨릭 간 국제위원회, *The Gift of Authority*, §§26-31, in *Growth in Agreement III*, 68-69;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Speaking the Truth in Love*, §50, in *Growth in Agreement III*, 154를 참조.

스도인들이 동의할 것이다.”¹⁵⁾ 문화와 언어와 공통의 역사가 모두 지역 교회의 구성 자체 내에 개입된다. 동시에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공동체적 친교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 전부를 여타의 지역 공동체 모두와 더불어 공유한다. 각각의 지역 교회는 그 자체 안에 교회의 본질을 충만하게 보유하고 있다. 하나의 지역 교회는 온전한 교회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곧 전체 교회는 아니다. 따라서 지역 교회를 바라볼 때 여타의 지역 교회들로부터 고립된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맺고 있는 역동적인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시초부터 지역 교회들 간의 공동체적 친교가 모금활동, 서신 교환, 방문, 성만찬에의 환대 및 구체적인 연대의 표현을 통해 유지되었다(고전 16장, 고후 8:1-9, 갈 2:1-10 참조). 처음 몇 세기 동안에도 지역 교회들이 이따금씩 함께 회집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곤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공동체적 친교를 유지하는 방편이었다. 지역 교회들의 이러한 공동체적 친교는 따라서 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보편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신앙과 예배를 통하여 연합한 모든 지역 교회의 공동체적 친교인 것이다.¹⁶⁾ 그것은 단지 지역 교회들의 총합이거나 연맹체이거나 병존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 모두가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현존하며 활동하는 동일한 교회인 것이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가 기초한 세례 예비 학습서에서 서술하는 대로, 보편성(catholicity)이란 단지 지역 교회들의 지리적 확대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다채로운 다양성 및 그들을 하나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연합시키는 신앙과 삶의 충만성 안에 지역 교회들이 참여하는 것도 일컫는다.¹⁷⁾

32. 보편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들이 이루는 공동체적 친교에 대해 이러한 이해

15) 신구교공동사업가구(Joint Working Group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보고서, “The Church: Local and Universal,” §15, in *Growth in Agreement II*, 866 참조. 여기서 “지역 교회(local)”라는 말을 “교파(denominational)”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16) WCC 뉴델리, 옹살라, 나이로비 총회의 일치 선언문. W. A. Vissert Hooft, ed., *The New Delhi Report: The Third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1* (London: SCM, 1962), 116-134; N. Goodall, ed., *The Uppsala Report 1968: Official Report of the Four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Geneva: WCC, 1968), 11-19; M. Paton, ed.,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 The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London-Grand Rapids: SPCK-Eerdmans, 1976), 59-69 참조.

17) Cyril of Jerusalem, *Catechesis* 18, in J. P. Migne, *Patrologia Graeca* 33, 1044.

를 공유하면서도, 견해차이가 부상하는데, 그것은 “지역 교회”라는 표현이 뜻하는 공동체의 지역적 범위에 관해서만 아니라 감독들의 역할에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어떤 교회들은 감독(주교: bishop)이란 사도들의 계승자로서 지역 교회의 구조와 실체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교회란 여러 교구(본당: parish)로 이루어진 감독관구(교구: diocese)인 것이다. 다른 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 이해를 발전시켜 왔으므로, 이들에게 “지역 교회”라는 표현은 훨씬 낯설게 다가오며 감독의 사역과 관련하여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 몇몇 교회들이 보기에, 지역 교회란 일정 장소에 회집하여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거행하는 신자들의 회중일 따름이다. 감독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교회들이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나 모두 “지역 교회”라는 표현을 교회들이 의장단의 지도 하에 시노드적 편제(synodal structure)로 회집하는 지역 연합체를 언급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끝으로 교회 직분 상의 체계(ecclesial order)가 지역별, 대륙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다자간 및 양자간의 대화들을 통해 의견수렴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진전이 목도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¹⁸⁾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의 관계

지역 교회가 보편 교회 내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관계성 및 친교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공동의 인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인식이란 그리스도의 현존이 성부의 뜻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역 교회 안에서 참으로 드러나며(지역 교회는 “온전한 교회”이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현존이 지역 교회로 하여금 보편

18) 다자간 대화의 좋은 예는 신구교공동사업기구의 보고서, “The Church: Local and Universal,” in www.oikoumene.org/en/%20resources/documents/wcc-commissions이다. 또한 *Growth in Agreement II*, 862-875 참조. 양자간의 대화로는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Church and Justification”에 관한 대화에 들어 있는 “Ecclesial Communion—Communion of Churches,” in *Growth in Agreement II*, 505-512를 참조. 아울러 특별히 정교회-로마가톨릭 간의 성명서 “Ecclesiological and Canonical Consequences of the Sacramental Nature of the Church: Ecclesial Communion, Conciliarity and Authority”(2007) at: 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chrstuni/ch_orthodox_docs/rc_pc_chrstuni_doc_20071013_documento-ravenna_en.html 참조.

교회와의 친교에 이르게 한다(지역 교회 자체가 “전체 교회”는 아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지역 교회”라는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다 진전된 일치를 위해 함께 탐색하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더 밀도 있는 상호 이해와 의견일치를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한 교회가 완전히 연합한 경우 그 안에서 진행되는 교회생활의 다양한 차원을 조정하는 적절한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관계들을 섬기며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목회 지도력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III. 공동체적 친교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A. 이미 그러나 아직

33. 교회는 종말론적 실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겨 살고 있으나, 그 완전한 실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된 활동자로서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봉사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원사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어 성부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 이러한 성령의 활동에 비추어 현재를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신비에 속한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34.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신자들 간의 공동체적 친교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미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친교의 삶이 유효하게 실현되어 있음을 드러내주는 가시적이고도 유형적인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사도들의 신앙을 받아서 공유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성만찬의 빵을 떼어서 나누는 것,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또한 세상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와 협력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반면에 교회는 역사적인 실체로서 세상의 조건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조건 중 하나는 변화인데,¹⁾

1) 이러한 변화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자나는 항구적인 의미—“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는 성장과 발전이란 의미에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쇠퇴와 왜곡이란 뜻에서 부정적 의미를 띠기도 한다. 다른 조건들로는 교회의 믿음과 생활과 증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적·역사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35. 교회는 순례자의 공동체로서 죄악의 현실과 싸우고 있다.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 간의 관계를 바라봄에 있어 간혹 시각 차이 정도로 치부되어 온 것들의 배후에 뿌리 깊은 집단적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집단적 확신을 표명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어떤 교회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교회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한 존재라고 확신한다. 다른 교회들은 죄란 조직적인 것이므로 교회의 제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죄가 교회의 참된 신원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실재하는 까닭에, 교회를 일컬어 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양한 공동체가 죄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상의 차이점들도—죄가 일차적으로 도덕적 불완전인지 관계성의 파괴인지, 아울러 죄가 과연 또 얼마나 조직적인 것인지—이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36.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마 16:18 참조).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신 승리는 완벽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늘 그 승리의 열매에 동참할 것을 확신한다. 동시에 현세에서는 믿는 자들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여전히 죄의 권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모든 교회는 믿는 자들 중에 죄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종종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두는 기독교적인 자기성찰과 참회와 회심(메타노이아) 및 화해와 갱신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한다. 거룩함과 죄악은 결코 일률적이지 않은 상이한 방식으로 교회의 생활에 관계되어 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신원을 나타내는 반면, 죄악은 이러한 신원과 상충된 채로 존재한다(롬 6:1-11 참조).

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를 퇴색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B.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인 신앙, 성례전, 직제 안에서의 성장

37.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공동체의 완전한 실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의 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면모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가시적으로 연합된 한 교회 내에서 온전한 공동체—에큐메니칼 운동의 목표—를 위해 요구되는 교회적 요소로는 사도적 신앙의 온전함, 성례전적 삶, 진정으로 단일하고도 상호 인정되는 사역, 공의회적 관계망과 의사결정을 이루는 구조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의 공동 증언과 섬김 등을 통한 공동체적 친교를 꼽을 수 있다.”²⁾ 이러한 특성이야말로 바람직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유지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틀거리이다. 더 나아가,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의 일치를 지향하는 성장의 과정은 인류 및 창조세계 전체와의 일치를 촉진해야 하는 그들의 소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화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례, 성만찬, 직제>의 작성과 수용의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친교를 이루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앞의 두

2) “The Church: Local and Universal”(1990), §25, in *Growth in Agreement II*, 868로부터 인용함. 이 문서의 단락 10-11과 28-32는 인용문과 각주를 통해 친교의 주제를 다룬 발표문이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개혁신교 및 로마가톨릭을 망라한 다방면에 걸친 에큐메니칼 대화들과 아울러 WCC의 여러 총회에서 채택된 일치에 관한 선언문들로부터 도출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이 문서 제2장 각주 16번 참조). WCC 선언문, “The Unity of the Church as Koinonia: Gift and Calling”은 [상호] 인정된(recognized)이라는 말에 화해된(reconciled)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직제의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다.(M. Kinnamon, ed., *Signs of the Spirit: Official Report Seventh Assembly* [Geneva: WCC, 1991], 173.)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인 “Facing Unity,” in *Growth in Agreement II*, 456-477에서도 친교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유사한 접근이 엿보이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가리켜 신앙과 성례전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소개한다.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인 “The Apostolic Tradition,” in *Growth in Agreement II*, 610-613에서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신앙과 예배와 직제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WCC의 뉴델리(1960), 나이로비(1975), 캔버라(1990) 및 포트토 알레그레(2006) 총회에서 채택된 고전적인 일치 선언문도 일치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 포트토 알레그레 총회의 선언문에서 묘사하듯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교회들이 확신하는 바, 우리가 기도하고 회망하고 노력하는 일치란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동의 고백과 하나의 세례에 의해 들어가고 하나의 성만찬적 교제 안에서 함께 경축하는 공동의 성례전적 삶과 동일한 지체됨과 교역을 상호 인정하고 화해하는 공동의 삶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창조계를 섬기는 공동의 사명 안에서 주어지고 드러나는 코이노니아”이다. 이러한 코이노니아는 모든 장소에서, 상이한 장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간의 공의회적 관계성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Called to Be the One Church,” §2, *Growth in Agreement III*, 606-607.

요소[세례와 성만찬]에 비하여 사역의 분야에서는 더 진전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이미 상당한 대화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 문서의 의도는 그러한 과거의 성과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간략히 요약하는 가운데 그 이후로 근래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 더 진전된 분야들을 적시하려는 것이다.

신앙

38. 앞의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신앙과 관련하여,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유 1:3) 신앙을 매 세대마다 선포하는 가운데 사도들로부터 처음 물려받은 교훈에 확고히 머물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일치가 존재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겨나서, 성령의 은총으로 활력을 얻으며, 성서 안에서 검증되어 교회의 살아 있는 전승을 통해 유전된다. 신앙은 예배와 생활과 봉사 와 선교를 통해 고백된다. 신앙은 변화하는 시간과 장소의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해석의 내용들은 원 증언 및 여러 시대 동안 이어져 온 이에 대한 충실한 해설과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신앙은 매 시대와 장소에 따른 여러 도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신앙은 개인적인 정황과 아울러 부정의, 인간 존엄성의 침해 및 창조질서의 붕괴를 포함한 사회적 상황들에 대해 발언한다.

39.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 드러난 것은 믿는 자들 간에 기독교 교리 중 여러 핵심 사항들에 대해 이미 상당한 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³⁾ 1991년에 출간된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라는 연구 문서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채택한 예전(전례서)에서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의 의미에 대해 그리스도인들 간에 견실한 의견 일치가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 문서는 또한 신조에 표현된 신앙이 어떻게 성서 안에 토대를 두고, 에큐메니칼 신조 안에서 고백되고 있는지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현대 세계로부터 비롯되는 도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새로이 고백되어야 하는지 설명

3) 예를 들어 Walter Kasper의 *Harvesting the Fruits: Basic Aspects of Christian Faith in Dialogue*(London-New York: Continuum, 2009), 10-47에 포함된 “Fundamentals of Our Common Faith: Jesus Christ and the Holy Trinity” 및 “Salv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을 다루는 장들을 볼 것. 여기서는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개혁신교, 로마가톨릭 간에 진행되어 온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설하고 있다.

해주고 있다. 이 연구 문서는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과 여타 교회들이 니케아 신조가 제시하는 신앙에 충실해왔음을 인정하도록 할 뿐 아니라 오늘날 그 신앙을 선포함에 있어 신뢰할 만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도구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1998년에 출간된 『질그릇에 담긴 보물』은 성서와 전통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신앙이 전수되어 온 과정을 탐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서로 간의 대화 가운데 각자의 전통을 재고하고 재해석하도록 인도하시되, 교회의 일치성 안에서 단일한 전통을 구현할 것을 늘 지향하신다.”⁴⁾ 교회들은 성서의 형성과 이후의 해석에서 전통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최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한 해석의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해하고자 애쓰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교계의 해석에는 회중 전체의 신앙 경험, 신학자들의 통찰 및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분별이 개입된다는 것이 술한 양자간의 대화 가운데 인정되고 있다.⁵⁾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해서 함께 작용하는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도록 도전받고 있다.

4) *A Treasure in Earthen Vessels* (Geneva: WCC, 1998), §32. 일찍이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직제에 관한 단락 §3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도 전통이란 사도 교회의 영원한 특징들이 연속되는 것을 뜻한다. 그 특징이란 곧 사도적 신앙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일, 세례와 성만찬을 베푸는 일, 교역자의 책무를 전승시키는 일, 기도와 사랑과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일, 병든 이들이나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 지역 교회들 간에 하나 되는 일,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다.” 박근원 옮김, 『세례, 성만찬, 교역』, 114.

5) 예를 들어, 루터교-정교회 성명서, “Scripture and Tradition,” in *Growth in Agreement II*, 224-225; “Agents of Discernment”를 다루고 있는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The Word of Life,” §§62-72, in *Growth in Agreement I*, 632-634;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Gift of Authority,” in *Growth in Agreement III*, 60-81; 제자교회와 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Receiving and Handing on the Faith: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in *Growth in Agreement III*, 121-137;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Speaking the Truth in Love: Teaching Authority among Catholics and Methodists,” in *Growth in Agreement III*, 138-176; 아울러 “전통과 성서(Tradition and Holy Scripture)”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신학자의 역할(The Role of the Theologian in the Christian Community)”을 다루고 있는 개혁신교-로마가톨릭 간의 “보고서”(2001), §§22-28, in *Growth in Agreement III*, 43-44 등을 볼 것.

성례전(성사)

40. 성례전과 관련하여, 교회들은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와 거행방식에 대하여 <세례, 성만찬, 직제>가 서술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동의를 나타냈다.⁶⁾ 이 문건은 또한 가장 주요한 미결 과제들에 대한 진전된 의견수렴을 모색하기 위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 미결 과제들이란 누가 세례 대상자인가 하는 문제,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현존)의 문제, 성만찬이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 등이다. 동시에 <세례, 성만찬, 직제>는 도유식 내지 견신례(견진성사)에 대하여 짙막하게 논평하면서도, 여러 공동체가 거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중 몇몇 공동체가 성례전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다른 예식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문서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자기들의 소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기들도 교회의 성례전적 삶에 동참한다고 확신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견해를 고려하려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다.

41. 세례에 대한 이해에서 교회들 간에 의견수렴이 점증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⁷⁾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행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을 경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삶과 죽음 및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마 3:13-17, 롬 6:3-5 참조). 그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딤후 3:5)이며,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케 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분깃과 장래 세상에서의 삶에 동참하도록 한다(엡 2:6 참조). 세례에는 죄의 고백, 마음의 회심, 사죄, 정결케 함과 거룩케 함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세례를 통하여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벧전 2:9)의 일원으로 성별(축성)된다. 따라서 세례는 일치의 기

6)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1982-1990: Report on the Process and Responses*(Geneva: WCC, 1990), 39, 55-56 참조.

7) 이 단락은 “II. The Meaning of Baptism”라는 제목을 가진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에 세례를 다루는 단락, §§2-7에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개의 국제적인 양자간 대화에서 오고간 매우 유사한 진술들은 W. Kasper, *Harvesting the Fruits*, 164-168의 “Common Understanding of Baptism”과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연구 문서, *One Baptism: Towards Mutual Recognition*(Geneva: WCC, 2011)에서 발견된다.

본적인 결속인 것이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가 도유식 내지 견신례—이것은 그들이 보기에 입교의 성례전(성사) 중 하나이다—를 통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본다. 세례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합의에 따라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담한 몇몇 교회로 하여금 세례에 대한 상호 인정을 촉구하도록 하였다.⁸⁾

42. 세례와 성만찬 간에는 역동적이며 심오한 관계가 있다. 새로이 입교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되는 그 친교의 관계는 성만찬 안에서 더 온전히 표현되며 거기서 영적 자양을 얻는 성만찬은 세례 때의 신앙을 재확증하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은총을 수여한다.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 나타난 성만찬에 대한 진전된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⁹⁾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식탁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는 잔치(celebration)이다. 성만찬은 복음의 선포이고,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 성부께 영광 돌리는 것(doxologia, 귀영)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및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것(anamnesis, 기념)이고, 성령을 불러서 빵과 포도주의 요소를 성별하고 성만찬의 참가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것(epiclesis, 성령 초대)이다.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중보기도가 드려지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미리 맛보는 가운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깊어지므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찬과 교회가 누리는 생명과의 연관성을 밝히 보여준다(고전 10:16-17, 11:17-33 참조).

43. 신앙의 고백과 세례가 섬김과 증거의 삶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듯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이들 간의 화해와 나눔을 요청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 안에서 버림받은 이들과 연대하도록 부름받는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셨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셨으며 이

8) 세례에 대한 상호 인정의 실례는 2007년 4월 29일 독일기독교교회협의회(Christian Council of Churches in Germany)에 속한 16개 교회 중 11개 회원 교단들 간에 맺어진 협약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www.ekd.de/english/mutual_recognition_of_baptism.html에 기술되어 있다.

9) 여기에 나오는 내용 요약은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성만찬에 관한 단락, §§2-26에 실린 “II, The Meaning of the Eucharist”에 근거한 것이다.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개혁신교 및 로마 가톨릭 간의 진행되는 다양한 수준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Kasper, *Harvesting the Fruits*, 168-90에 실린 “The Eucharist”를 볼 것.

제는 성만찬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표징이 되도록 부름받는다. … 성만찬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는 새로운 현실을 초래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언자들이 되게 한다”(박근원 옮김, 68 참조).¹⁰⁾ 몇몇 교회들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갱신(전례개혁) 운동은 성례전에 관한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나타난 의견수렴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44. 기독교 전통들 간에는 세례와 성만찬 및 기타 예식들을 가리켜 “성례전”(성사: sacraments)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례”(ordinances)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성례전”이라는 말(그리스어 미스터리온/신비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예식의 행동을 통해 전달됨을 가리킨다. 반면에 “규례”라는 용어는 예식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따라 행하여지는 것을 강조한다.¹¹⁾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종종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연구 문서인 <하나의 세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대부분의 전통에서는 ‘성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규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실재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방편적이며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실재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몇몇 전통들에서는 방편적 차원을 강조하고 … 다른 전통들에서는 표상적 측면을 강조한다.”¹²⁾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교리적 불일치라기보다는 강조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예식들은 교회가 지닌 “제정적”(institutional)임과 동시에 “은사적”(charismatic)인 측면을 드러낸다. 이 예식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가시적이며 효력 있는 행동이며,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유효하게 된다. 성령은 이 예식들을 방편으로 삼아서 그 성례전을 받는 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건덕 및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신다.

10)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성만찬에 관한 단락, §§24 and 26.

11) 라틴어 용어 “sacramentum”은 신입 병사가 군복무를 시작할 때 서약하던 맹세를 가리켰으며, 라틴어로 신학 작업을 한 최초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160-220)는 세례를 언급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12) *One Baptism: Towards Mutual Recognition*, 30.

성례전과 규례

세례와 성만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과, “성례전” 내지 “규례”와 같은 표현의 역사적 기원 및 그것들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성찰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교회들에게 제기되는 도전은 이러한 예식들을 포함하여 교회생활이 지닌 그러한 [성례전적] 차원에 대하여 교회들 간에 보다 깊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수렴에 따라 교회들은 몇가지 질문에 대해 더 숙고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세례와 성만찬 및 기타 예식들을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규례”라고 부르는 간에—예전(전례)을 거행하는 중에 도유식/견신례라든가, 혼인예식이라든가, 성직수임식(안수식) 등의 기타 예식 내지 성례전들을 집례하고 있으며, 아울러 죄의 용서와 병자들의 축복을 위한 예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성례전 내지 규례들의 수효와 교회법적 지위가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가? *아울러 우리는 교회들로 하여금 누가 세례 대상자가 될 것이며, 교회의 예전(전례)을 거행함에 있어 누가 집례자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진전된 의견수렴을 이룩할 수 있는지 숙고해볼 것을 요청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식들을 거행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 성례전이나 기타 예식들의 거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기독교 공동체 간에 보다 온전한 상호 이해를 이룩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가?

교회의 대내적 사역

안수받은 목회자

45. 모든 교회는 옛 계약에 속한 제사장(사제)들과 달리(히 7:23 참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히 8:10 참조)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구속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성서의 가르침(히 7:27, 9:12, 9:26, 10:10, 12-14 참조)에 대해 확신한다. 이 본문들이 함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회들 간에 서로 다른 해석을 도출해낸다. <세례, 성만찬, 직제>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중

* 옮긴이 주: “The word sacrament may not the number and ecclesial status of these sacraments or ordinances be addressed in ecumenical dialogues.” 영어 원문이 잘못된 것으로 보임. 프랑스어 번역 참조.

보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목회 속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일을 통하여 성도들이 맡아야 할 왕적이고 예언자적인 사제직을 견고케 하고 또 새롭게 세워나감으로써 특수한 사제적 섬김을 완수하기에, 그들을 가리켜서 사제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¹³⁾ 그러한 견해에 발맞추어, 어떤 교회들은 안수받은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9에서 말하는 모든 신자의 왕적 사제직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특정인들이 신품 성사(the sacrament of ordination)를 통하여 특수한 사제적 역할을 맡도록 안수를 받는다(ordained)고 믿는다.¹⁴⁾ 다른 교회들은 안수받은 목회자들을 두고 “사제들”이라고 보지 않으며, 어떤 교회들은 성직수입(ordination)을 성례전적 용어로 이해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남성들에게만 인정하는 성직수입에 관한 전통적인 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안수받은 목회자

에큐메니칼 대화는 안수받은 목회자와 관련한 쟁점이 일치를 향한 여정에서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안수받은 성직자들의 사제적 등에 관련된 차이점들이 온전한 일치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46. 모든 교회가 안수받은 목회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제정하고, 행사할 것인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성서에 의거하곤 하지만, 신약성서 안에는 목회자에 관한 어떤 단일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성령께서는 교회들을 인도하시어 그 직제를 상황의 필요에 따라 변용하도록 하셨다(행 6:1-6 참조). 다양한 형태의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초기 저술가들은 감독(주교), 장로(사제), 집사(부제)로 이루어

13)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직제에 대한 단락, §17.

14)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Ministry and Ordination” 및 “Elucidation,” in *Growth in Agreement I*, 78-87; 정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The Sacrament of Order in the Sacramental Structure of the Church,” in *Growth in Agreement II*, 671-679를 볼 것.

진 삼중적 사역을 내세웠다.¹⁵⁾ 이러한 삼중적으로 연관된 목회자들은 신약성서 안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형태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들에서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떤 교회들은 종교개혁기 이래로 상이한 직제의 형태를 채택하였다.¹⁶⁾ 성서의 정경, 교의, 예전적 질서 등, 교회의 사도성을 유지하는 여러 수단 중에 안수받은 직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직제에서 계승은 교회의 사도적 연속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47.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는 공식적인 사역의 구조가 있다. 이 구조는 흔히 다각화되어 감독(episkopos)-장로(presbyteros)-집사(diakonos)라는 삼중적 형태를 다소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들 간에 “역사적 감독직”(교회의 최초 세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도적 계승 안에서 안수받은 감독들을 의미함) 내지는 보다 광범위하게 말해서 안수받은 직제의 사도적 계승이란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의도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있다. 어떤 교회들은 감독, 장로, 집사로 이루어진 삼중적 직제가 복음에 대해 충실성을 지켜온 표지이자 교회가 전체로서 지켜온 사도적 연속성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믿고 있다.¹⁷⁾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교회들은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 사역에서 계승과 그리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 어떤 교회들은 역사적 감독

15)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Letter to the Magnesians* 6 and 13; *Letter to the Trallians* 7; *Letter to the Philadelphians* 4; *Letter to the Smyrnaeans* 8 등을 참조.

16) 종교개혁 이후 나타난 발전과정에 대한 통찰력 깊은 해설로는, 개혁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Church” 중의 단락 §§12-63에 실린 “Toward a Reconciliation of Memories,” in *Growth in Agreement II*, 781-795;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The Apostolicity of the Church*, Minneapolis 2006, §§65-164, 40-71를 들 수 있다.

17) 이 점에 대해서,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Church and Justification”(1993), §185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칭의/의화의 교리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수받은 직제가 교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Growth in Agreement II, 5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단락 후에, 동일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감독직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회론적 평가에 대해 가톨릭과 루터란이 보여주는 견해차는 이 직제에 대한 루터란의 반대 내지는 무관심이 이 직제가 교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 가톨릭의 주장과 날카롭게 대립될 정도로 그렇게 격심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라리 이 직제에 대한 평가에서 엿보이는 미묘한 편차라고 하겠다. 가톨릭 측에서는 이 직제를 두고 ‘필수적(necessary)’ 내지는 ‘불가결(indispensable)’과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는 반면, 루터란 측에서는 ‘중요한(important), ‘의미 있는(meaningful)’ 따라서 ‘바람직한(desirable)’과 같은 서술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197; Growth in Agreement II, 532).

직이란 것이 쉽사리 남용되어 왔으므로 공동체의 안녕에 잠재적으로 해를 줄 수 있다고 보기에 그것에 대해 경계한다. <세례, 성만찬, 직제>가 자기 몫으로 단지 확 인하고 있는 것은 삼중적 사역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¹⁸⁾

삼중적 사역

교회 내에서 안수받은 목회자가 갖는 위치에 대해 점차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삼중적 직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실현하는데 교회를 향하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하여 교회들 간에 합의를 이룰수 있는지 묻게 된다.

교회의 목회자가 가지는 권위의 은사

48. 교회 내의 모든 권위는 교회의 주님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비롯된다. 그리스도는 신약성서에서 ‘예수시아’(권력, 대리권, 도덕적 권위, 영향력 등을 의미한다.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존재로부터 말미암음’을 뜻한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자신의 권위를 그의 가르침(마 5:2, 눅 5:3 참조)과 기적을 행하심(막 1:30-34, 마 14:35-36 참조)과 악령을 쫓아내심(막 1:27, 눅 4:35-36 참조)과 죄를 용서하심(막 2:10, 눅 5:4 참조) 및 제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마 16:24 참조) 가운데 행사하셨다. 예수의 사역 전체를 특징 짓는 것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 동원된 권위였다(막 1:27, 눅 4:36).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그것을 사도들과 함께 나누셨다(요 20:22 참조). 감독직(episkopé)의 사역을 이어간 사도들의 계승자들은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 특히 성만찬의 집례와 신자들을 목회적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권위를 행사하였다.¹⁹⁾

49. 교회 내의 권위가 지니는 독특한 본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십자가

18)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직제에 관한 단락, §22.

19) 예수께서 권세를 지니고 계시며 그것을 교회와 더불어 나누어 가지신다고 기술하는 이 단락의 기본적인 내용은 2007년에 나온 정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라벤나 성명서(“Ecclesiological and Canonical Consequences of the Sacramental Nature of the Church: Ecclesial Communion, Conciliarity and Authority,” §12)에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문서의 제2장 각주 18번을 볼 것.

에 달리시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빌 2:7-8)을 당한 분이 지니신 권위에 비추어볼 때 바르게 이해되고 또 행사될 수 있다. 이러한 권위는 예수께서 교회를 천국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의 종말론적 약속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세와 다르다. 제자들이 서로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주시며, 자기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막 10:41-45, 눅 22:25 참조). 교회 내의 권위는 겸비한 섬김으로써, 믿음과 삶과 증거를 통해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세워나가고 거기에 자양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섬김으로서의 권위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의 본을 통해 잘 드러난다(요 13:1-17 참조). 그것은 어떠한 지배도 강압도 행사하지 않는 사랑의 섬김(diakonia)이다.

50.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차원을 지닌 교회 내의 권위는 따라서 단순한 권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다. 교회가 다양한 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권위의 원천, 즉 성서, 전통, 예배, 공의회 및 교회회의들도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다.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시 8:2, 마 21:16 참조) 들려오는 곳마다 이러한 권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다른 이들 및 모든 피조계와의 관계에서 더 위대한 진정성을 의미한다. 역사상 교회는 성인들의 생애 속에, 수도생활의 증거 속에, 일단의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진리를 드러낸 다양한 형태 속에 일정한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에큐메니칼 대화들과 거기서 나온 합의문들 안에도, 특히나 그것들이 “사랑 안에서 참됨”(엡 4:15 참조)을 함께 찾아가며 발견한 것을 반영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들 간의 친교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촉구하며 지속적인 회개와 생활의 거룩함으로 초대할 경우에, 특정한 종류의 권위가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

51.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도적 목회에 종사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계시는 권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위임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교회의 섬김을 위해 예정된 성령의 은사이

다. 그러한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바, 공동체는 신앙의 감각(sensus fidei)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지도력이 진정성 있는 것임을 입증한다. 상호 간의 사랑과 대화를 통해,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과 권위에 복종하는 이들이 서로 연합한다.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예배와 섬김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요청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엡 4:11-16 참조)²⁰⁾ 돕는 것을 지향함으로 자발적인 협조와 동의를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감각”과, 성서 및 신학 연구에 특별한 방식으로 헌신된 이들이 발견한 통찰과, 감독의 목회를 위해 특수하게 성별된 이들이 행하는 지도력 등, 이 모든 것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협력한다. 교회 내의 의사결정은 모든 이들의 합의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분별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성령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명료했던 것들을 해소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현재 우리가 처한 분열의 와중에도,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효력을 미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지도력은 그로 하여금 “흑백분리 정책은 너무나 강력하므로 갈라진 교회가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도록 하였고,²¹⁾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의 선도에 힘입어 기독교 지도자들은 생태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투스 16세는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초청하였다. 폐제 공동체를 설립한 로제 슈츠 수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수

20) “Ecclesiological and Canonical Consequences of the Sacramental Nature of the Church: Ecclesial Communion, Conciliarity and Authority,” §§13-14 참조. 이 문서의 제2장 각주 18번을 볼 것.

21) Desmond Tutu, “Towards Koinonia in Faith, Life and Witness,” in T. Best and G. Gassmann, eds.,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Geneva: WCC, 1994), 96-97.

많은 기독교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예배에 함께 모이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교회 내에서의 권위와 권위의 행사

다양한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 권위와 그 행사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목도되었다.²²⁾ 그러나 다양한 권위의 원천들에 얼마만큼의 가중치가 배정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규준이 되는 신앙의 표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을 통해 확보하는지, 계시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함에 있어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교회들 간에 여전히 불일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교회들 간에는 복음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살아내되, 세상 속에서 겸비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행하여야 한다는 긴급한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권위를 인정하고 행사하는 방식에 관한 에큐메니칼적인 의견수렴을 모색하다 보면 교회들이 가진 이러한 선교적 열정을 촉진시키는 창조적인 역할이 기대되지는 않겠는가?

감독직의 목회자

5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에 의해, 다양한 은사 내지 목회자를 통해 세워진다. 이러한 은사들은 전체 교회 및 교회의 일치와 선교를 풍성하게 한다.²³⁾ 복음에 따라 세워진 감독직의 목회자가 이 사역을 위해 선택되고 따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 충실하게 수행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생활과 사명을 위해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 필요조건이다. 감독직의 구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이를 겪으며 고유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는 감독제의 구조를 따르는 그렇지 않은 간에 감독직의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늘 인식하여 왔다. 여하한 경우에도 감독직은 사도적 신앙의 연속성과 삶의 일치를 유지하

22) 예를 들어,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보고서, "Authority in the Church," 1976, in *Growth in Agreement I*, 88-105; "Authority in the Church II," in *Growth in Agreement I*, 106-18; "The Gift of Authority," 1998, in *Growth in Agreement III*, 60-81을 볼 것. 이것은 또한 감리교-로마가톨릭 간의 문건, "Speaking the Truth in Love: Teaching Authority among Catholics and Methodists," §§83-84, in *Growth in Agreement III*, 163-164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23)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section on Ministry, §23 참조.

기 위하여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에 더하여, 목회자가 가진 주요 임무는 계시된 진리를 보존하여 전수하고, 지역 회중들을 친교 안에 머물게 하고, 복음의 증언을 위하여 상호 지원하며 지도하는 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활동 안에는 인간 삶의 개선 및 재난의 구호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기독교 봉사 단체들—우리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봉사(diakonia)에 속한 여러 측면—을 감독하는 일이 포함된다. 에피스코페 즉 감독직이란 용어로 요약되는 이 모든 기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신자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동체에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과도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다. 이 점은 바로 감독직의 목회자가 교회 내의 모든 사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집단 지도체적(collegial)·분권 공동체적(communal)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확인해준다.²⁴⁾ 이러한 감독직의 수행 방식들에 대해서 <세례, 성만찬, 직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안수받은 목회자는 개인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삶과 증언의 일치 속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기 위해 안수받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수받은 목회자는 또한 집단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공동의 과업을 함께 나누는 일단(一團)의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안수받은 목회자들과 공동체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차원 안에서 안수받은 목회자의 수행은 공동체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²⁵⁾

53. 이와 같은 감독직 수행의 한 측면이 반영해주는 교회의 특성을 두고 “시노드

24) 1927년 로잔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위원회 제1차 세계대회에서, 교회들을 “감독제”(episcopal), “장로제”(presbyteral) 및 “회중제”(congregational) 처리 형태로 분류하는 방식이 이미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세 가지 처리 형태를 받쳐주는 가치체계가 “교회의 직제에 있어 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믿었다.” H. N. Bate, ed., *Faith and Order Proceedings of the World Conference: Lausanne, August 3-21, 1927*(London: Student Christian Movement, 1927), 379. 55년이 경과한 후,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문서 중 직제에 대한 단락, 해설 §26은 이 로잔 문서를 인용하면서 안수받은 직제가 개인적·집단적 및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당화하고 있다.

25)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중 직제에 대한 단락, §26.

성” 내지 “공의회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시노드(synod)라는 말은 그리스어 syn(함께)과 odos(길)의 합성어로서 “함께 걷는다”는 뜻이다. 시노드성과 공의회성은 공히 교회의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세례에 의해 자신의 고유한 지위와 합당한 책임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준다.²⁶⁾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서, 전 교회는 지역 교회와 연합체와 보편 교회를 아우르는 교계적 삶의 모든 차원에서, 시노드성 내지 공의회성을 지니고 있다. 시노드성 내지 공의회성의 특성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이 지니신 신비를 반영해주며, 교회의 구조 역시 이러한 특성을 드러냄으로 하나의 친교로서 공동체의 삶을 실현하게 된다. 성만찬적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특성은 지체들과 그들의 담임 목회자 사이에 맺어진 사랑과 진리 안에서의 심오한 일치를 통해 경험된다.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노드가 모여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요 16:7, 12-14 참조), 교리적 내지 도덕적 위협성 또는 이단 교설들에 대응하여 사도적 신앙을 분별하였다. 보편 교회의 시노드에는 전체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교회 전체의 친교를 배양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감당한 중요한 직무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²⁷⁾ 현재 교회들 간에는 시노드에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것과 그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 상이한 견해와 관행이 있다.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권위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결정한 교리적 규정이 신약성서의 가르

26) 정교회-로마가톨릭 간의 국제대화, “Ecclesial Communion, Conciliarity and Authority,” §5를 볼 것. 여기서는 시노드성이 공의회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27) “에큐메니칼” 공의회 내지 시노드는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성자가 성부에 대해 지니는 동등성을 부정한, 아리우스의 새로운 교설에 대응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기 위해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회의가 보편적으로 첫번째 공의회로 인정된다. 그러한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 교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에큐메니칼 공의회와 그 권위에 대해서는 루터교-정교회 간의 문서, “Authority in and of the Church: The Ecumenical Councils”(1993), in *Growth in Agreement III*, 12-14를 볼 것. 제자교회-로마가톨릭 간의 문서, “Receiving and Handing on the Faith: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Church”의 단락, “Councils and the Declaration of the Faith,” in *Growth in Agreement II*, 125-127을 볼 것. 또한 *Councils and the Ecumenical Movement*(Geneva: WCC, 1968) 참조.

침을 표현하고 있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신약시대 이후에 나온 모든 교리적 결정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다른 교회들은 몇가지 교리적 규정은 규범적이며 따라서 개정될 수 없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간주한다. 에큐메니칼 대회에서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의 가르침과 결부된 규범성에 대해 공동의 검토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는가?

54. 교회가 함께 모여 협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누군가가 질서의 유지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모임을 주재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분별하며 도출해내는 과정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이들은 언제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건덕을 위해 자기가 주재하는 이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지역 교회들의 통전성을 존중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발언권을 보장하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유지하는 것이 회의를 주재하는 이들의 책무이다.

55. 수위권(primacy)이라는 말은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이미 오래된 관행으로 인정한 특정 관습 및 관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 안디옥의 감독(주교)들이,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과 콘스탄티노플의 감독들이 자신들의 개별 관구에 속한 관할 영역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독자적인 처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한 수위권적 처리가 일치를 위한 집단적 사역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시노드성/공교회성과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의 수위권이 다양한 차원에서 공존하였다. 첫 수세기 동안 교회의 자기 이해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중을 받고 있는 『사도헌장』의 교령 제34항에 따르면, 일국 내의 감독들 중 제1인자인 감독은 다른 감독들과 합의하에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다른 감독들은 제1인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중요 결정도 할 수 없었다.²⁸⁾ 첫 수세기 동안에도, 수위권과 관련된 다양한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 간의 경쟁 때문에 이따금씩 오염되기도 하였다. 로마의 감독은 해당 지역 교회가 사도 베드로 및 사도 바울과 갖고 있는 관련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미치는, 의사결정(처리)권과 교도권에 해당되는 수위권을 점차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로마의 수위권은 첫 수세기 동안 많

28) 이 교령의 내용은 www.newadvent.org/fathers/3820.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 교회들의 인정을 받았으나, 그 기본적인 역할 및 행사의 방식은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 수년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보다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덕분에 전 교회적 일치에 이바지하는 사역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56. 부분적으로는 다자간 및 양자간 대화를 통해 이미 나타난 진전 덕분에, 신앙과 직제에 대한 제5차 세계대회는 “기독교 일치를 위한 보편적 사역”의 문제를 제기하였다.²⁹⁾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칙령, “하나가 되기 위하여”(Ut Unum Sint)에서 이 문헌을 인용하면서 타교회 지도자들과 그 신학자들로 하여금 이 사역에 관하여 자신과 더불어 “인내심과 형제적 사랑에 기반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³⁰⁾ 이후의 논의에서, 타교회들에 속한 몇몇 회원들은 불일치의 분야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역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지역 교회들의 일치를 어떻게 배양할 것이며, 지역 교회들의 증언이 지닌 독특한 성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쟁점이 범교회적 차원에서 갖고 있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수위권적 사역이 지닌 본질과 그것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행사되어 온 구체적 방식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위권과 관련된 여하한 개인적인 사역이라도 그것이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을 통해 행사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57. 이 주제에 관한 의견수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몇몇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 전체 기독교 공동체의 일치에 이바지하는 사역에 대해 일정한 가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수위

29) §31.2 of “Report of Section II: Confessing the One Faith to God’s Glory,” in T. F. Best and G. Gassmann, eds.,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Geneva, WCC, 1994), 243.

30) John Paul II, *Ut Unum Sint*(London: Catholic Truth Society, 1995), §96. <베드로의 직제>(Petrine Ministry)이라는 제목이 붙은 보고서가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수위권에 관련된 직제의 문제를 다룬 에큐메니칼 대화들에 대한 종합과 분석에 더하여, 이 직제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대화 초청에 대해 보여준 반응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핵심적인 쟁점을 4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성서적 기초들, 하나님의 법(*De iure divino*: 그와 같은 직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인가하는 문제), 보편 치리권(권세 내지 권력의 행사가 보편 교회 내에 미침), 그리고 교황의 무류성. 이 예비 보고서는 *Information Service*, N. 109 (2002/I-III), 29-42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전통에 속하였느냐에 따라 <베드로의 직제>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권과 관련된 보편적 직제의 필요성 내지는 심지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직제가 과연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의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³¹⁾ 이 문제에 관한 한 일정 교회 집단 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뿐 아니라 심지어 몇몇 교회들 자체 안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사도 베드로 내지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보다 광범위한 일치를 위해 이바지하는 직제에 대한 증거가 신약성서 안에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에큐메니칼 대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직제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치와 선교에 이바지하는 일정 형태의 직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하여 그들의 직제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상존하고 있다.

일치를 위한 보편적 직제

만약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대로 작금의 분열이 극복된다면, 보편적 차원에서 교회의 일치를 배양하고 진작시키는 직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또 행사될 것인가?

IV. 교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존재

A.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58. 예수께서 선교적 사명을 펼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라는 말씀에 가장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이자 최고의 태도는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모든 자녀, 즉 한번이라도 인류 역사 속에 태어났던 모든 여자와 남자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실로 전 창조세계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심으로 선포하셨고, 그의 능한 행적,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룩하신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 시작된 것인 바, 전 우주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31) 성공회-로마가톨릭 간의 대화 보고서, “The Gift of Authority,” in *Growth in Agreement III*, 60-81와 정교회 로마가톨릭 간의 보고서, “The Ecclesiological and Canonical Consequences of the Sacramental Nature of the Church”를 볼 것.

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섬김(diakonia)은 교회의 존재 자체에 속한다. <교회와 세계>라는 연구 문서는 이러한 섬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설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한다. 교회는 신비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되,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그 자체가 ‘신비’라고 불린다.)을 베풀고, 그리스도가 주신 삶의 새로움을 내보임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미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견함으로써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다.”¹⁾

59.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말과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다(막 16:15 참조). 복음화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분부에 순종하여 교회가 감당하는 최고의 과제에 속한다(마 28:18-20 참조). 교회는 성부께서 창조세계를 위하여 이루시는 화해와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부름받았다.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촉진하는 것은 복음화를 구성하는 한 측면이다.

60.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타종교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못지않게 잘 알고 있으며 타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자신의 청중들에 비할 때 “외인” 내지는 “타인”이 되는 이들에 대해 몸소 말씀하신 복음의 구절들을 상기하도록 한다(마 8:11-12, 눅 7:9, 13:28-30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차원 중 하나로서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며, 그리스도께서 몸소 요청하신 자비 안에서 그러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대

1) *Church and World: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Renewal of Human Community* (Geneva: WCC, 1990), Chapter III, §21, 27.

2)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WCC 중앙위원회가 3개 분과 즉 ‘신앙과 직제,’ ‘종교 간 협력,’ ‘선교와 전도’ 위원회에 보낸 제안에 부응하여 연구한 결과물인 “Religious Plurality and Christian Self-Understanding”(2006)[웹사이트 주소: www.oikoumene.org/en/resources/%20documents/assembly/porto-alegre-2006/3-preparatory-and-background%20documents/religious-plurality-and-christian-self-understanding.html]를 볼 것. 이 성명서는 1989년 샌 안토니오에서 열린 세계선교회복음전도위원회 대화에서 선교와 세계 종교들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에 뒤이은 것이다. 종교 간의 협력은,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주제들과 관련성이 깊으므로, 3개 단락에서 모두 언급될 것이다.

화하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지닌 풍성함을 나눌 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 안에 존재하는 여하한 진리와 선함의 요소를 인정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경우, 그들이 가진 종교에 대해 언제나 적절한 존중을 표하지는 않았다. 복음화는 다른 신념체계를 지닌 이들을 항상 존중히 대해야 한다. 신약성서 안에서 계시된 진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충만함으로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중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³⁾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 가능성 및 종교 간의 대화와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사이의 관련성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활발한] 성찰과 토론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에큐메니칼 대응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몇몇 교회들 간에 심지어 교회들 자체 안에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신약성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가르치며(딤후 2:4 참조), 동시에 예수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한다(딤후 2:5, 행 4:12 참조). 성서의 이러한 구절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 가능성에 관한 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명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그러한 견해가 구원을 위해서 신앙과 세례가 필수적임을 말하는 성서 구절들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교회의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지닌 활력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이러한 쟁점에 대

3) 유럽교회협의회(CEC)와 유럽교단협의회(CCEE)가 발표한 “교회일치헌장(Charita Oecumenica)” 제 2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종교와 교회 소속을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공언하는 바이다. 이 말은 도덕적 압력이나 물질적 유혹을 통한 개종을 강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개종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교황청 종교 간 대화촉진평의회, WCC 및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2011년 1월 28일 인준한,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www.oiloumene.org]에서 접속 가능함을 볼 것.

한 보다 확대된 의견수렴에 도달하고 또한 말과 행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B. 복음에 따른 도덕적 도전

61.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제자직은 도덕적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듯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총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롬 3:21-26, 갈 2:19-21 참조).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또한 신자들에게 도덕적으로 흠없는 생활을 요청하며 또 그것을 형성한다. 종교개혁의 시작과 더불어 분리되었던 두 공동체가 분열기에 서로 불일치했던 주된 논점인, 이신득의의 교리와 관련된 핵심 측면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것은 일치를 재수립함에 있어 상당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⁴⁾ 이러한 믿음과 은총의 토대 위에서 도덕적 투신 및 공동의 행동이 가능하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것들이 교회의 삶과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고유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62.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창조주이자 계시자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동체가 시공간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감에 따라 그 형태를 갖추어 간다. 교회는 인류가 전체로서 수행하는 도덕적 투쟁들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뿐 아니라 타종교의 신자들과도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한 인격의 진정한 자기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의 도덕적 가치뿐 아니라 정의, 평화, 환경 보존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진작시켜야 한다. 이는 복음의 메시지가 인간 존재의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공동체적 측면에도 공히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이노니아에는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감화와 통찰에 근거하여 널리 공유되는 도덕적 가치도 포함된다. 현재의 분열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함께 나누는 친교 안에서 전진해온 만큼, 한 교회가 하는 일이 다른 교회들의 삶에도 영

4) 루터교-로마가톨릭 간의 보고서,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Grand Rapids: Eerdmans, 2000)를 볼 것.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른 교회들이 행하는 윤리적 성찰 및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 책임적으로 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의식해가고 있다. 교회들이 상호 질문과 확증의 과정에 가담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잘 드러난다.

63. 도덕적인 쟁점과 관련된 긴장관계에 대해 교회는 늘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목도되는 철학적·사회적·문화적 발전으로 다수의 도덕적 규범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문제들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면서 급기야 교회들 간의 일치에도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도덕적 문제들은 기독교의 인간 이해와 관련되므로, 도덕적 사고에 나타난 새로운 발전을 평가함에 있어 복음에 우선성이 부여된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들도 이따금씩 자신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되는 개인 내지 집단적 도덕성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도덕적 문제들이 본질상 교회-분열적 요인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실제로 교회-분열적 요인이 된다고 굳게 확신한다.

도덕적 문제들과 교회의 일치

다자간 및 양자간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에큐메니칼 대화 덕분에 기독교의 일치를 위한 도덕적 교리 및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띤 변수들의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⁵⁾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에큐메니칼 대화가 교회의 선교와 일치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도덕적 쟁점이 교회들의 의견수렴에 도전이 되고 있음을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교회들이 상호 배려와 지원의 정신 안에서 이러한 쟁점을 탐구할 것을 요청한다.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태도를 이해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5) 예컨대, 성공회-로마가톨릭 성명서 "Life in Christ: Morals, Communion and the Church," in *Growth in Agreement II*, 344-370와 WCC와 로마가톨릭교회 간의 공동연구위원회의 연구 문서, "The Ecumenical Dialogue on Moral Issues: Potential Sources of Common Witness or of Divisions"(1995), in *The Ecumenical Review* 48(2), April 1996, 143-154를 들 수 있다. 각 교회들 내의 도덕적 분별의 문제에 관한 최근의 작품들을 위해서는 Faith and Order Paper 215(2013) at www.oikoumene.org도 볼 것.

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별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이러한 분별의 과제에 함께 가담함으로써, 자신들의 섬김의 현장인 사회를 향하여 적절한 담화의 모델과 현명한 견해를 제공하게 될 것인가?

C. 사회 속에 있는 교회

64.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공감 어린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슬픈 문제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 세상의 변혁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친교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절대불변의 사랑이자 자비이자 정의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그들은 눈 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나환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맞아 주시며, 인간의 존엄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의 돌아보지 않던 권세자들에게 맞섰던 그분의 제자들로서 살아간다. 교회는 사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도와야 한다. 경우에 따라 목소리 없는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자신들이 지닌 신앙 때문에,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 내지는 AIDS의 만연과 같은 건강의 위협에 직면하여 나태하게 서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이 지상의 재화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경감되며 절대적인 빈곤이 언젠가 추방되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한 사역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 예컨대 지구상의 부국과 빈국을 나누는 남북 문제와 같은 것들 것에 대해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을 따르는 자들로서 특별히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들(경제적 불평등, 인종주의, 민족 내지 종교 간의 증오, 과도한 민족주의, 압제 및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는 것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을 극복하고자 모색함으로써 평화를 옹호한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셨다(요 10:10 참조). 그를 따르는 이들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신자 개인 못지않게 교회도 감당해야 할 의무이다. 각각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특정한 구조를 지닌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마

련이다. 지금도 갈라진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한 분별작업을 함께할 수 있고 또 하고 있으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배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활동해오고 있다.⁶⁾ 그리스도인들은 타종교를 신봉하는 이들, 비종교인들과도 더불어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작시키게 될 것이다.

65. 여러 가지 역사적·문화적·인구학적 요소가 교회와 국가 및 교회와 사회 간의 관계를 조건 짓는다. 상황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교회가 지닌 공교회성의 바람직한 발현이 될 수 있다. 신자들의 시민사회의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세속 당국자들과 결탁하여 사악하고 부정한 행위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부추긴 경우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두고 “지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마 5:13-16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해, 또한 그에 반하는 정책과 계획에는 반대하기 위해, 정치 및 경제 당국자들과의 투쟁도 불사해왔다. 이러한 투쟁에는 부정한 구조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폭로하는 것과 그 구조들의 변혁을 위해 일하는 것뿐 아니라 정의와 평화, 환경의 보존 및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돌봄을 촉진하는 시민 세력들의 계획을 후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정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전통에 설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을 하다 보면 그들은 박해와 고난에 노출되기 쉽다. 그리스도는 종의 신분을 가지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이들도 비슷한 운명을 각오해야 하리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교회의 증언(martyria)는 그리스도인 각자와 공동체 모두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며, 그 길은 순교(martyrdom)에까지 이를 수 있다(마 10:16-33 참조).

66. 교회는 모든 사회·경제적 계급으로 이루어진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6) 예를 들어, 개혁교회-로마가톨릭 문서, “The Church as Community of Common Witness to the Kingdom of God”를 볼 것. 이 문서의 제2장은 캐나다 원 거주민의 제반 권리, 남아프리카의 인종분리정책과 북아일랜드의 평화 문제 등에 관한 교회들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3장은 이들 각 공동체에서 적용된 분별의 유형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PCPCU, *Information Service* N. 125(2007/III), 121-138, and *Reformed World* 57(2/3), June-September 2007, 105-207.

모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교회는 고난받는 이들의 처지에 동참하고 곤궁한 이들과 주변부화된 이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았으며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교회는 복음이 지닌 희망과 위로의 말을 선포하고, 긍휼과 자비의 사역에 참여하면서(눅 4:18-19 참조) 또한 깨어진 인간 관계를 치유하고 화해시키고 증오와 소외로 인해 갈라진 이들을 화해케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후 5:18-21 참조).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에 참여하고자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돌보되(롬 8:20-22 참조), 지구를 남용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반대하고 창조세계와 인간 간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이 사명을 추구한다.

결론

67.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일치는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이 내려주시는 공동체적 친교의 은사 안에 존재한다. 코이노니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삶으로서, 신앙을 통한 일치, 성례전적 삶을 통한 일치, (사역과 선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섬김을 통한 일치 등,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방식 안에서 드러난다는 점에 대해 점차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 특히 성만찬의 거행은 현대에서 코이노니아가 뜻하는 바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범례로 작용하고 있다.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교 및 모든 시대와 장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경험한다. 그들은 집례자와 더불어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찬양과 감사를 드린 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고, 사명을 위해 파송된다.¹⁾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두 개의 제단이 있다고 말하였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고, 다

1) 앞의 문장들은 2008년 3월, 독일 브레클룸(Brekum, Germany)에서 열린 '제9회 양자간 대화포럼'에서 나온 성명서의 내용을 대부분 반복하거나 고쳐쓴 것이다. 이 포럼에서 발표한 해당 성명서의 본문을 위해서는 *The Ecumenical Review* 61(3), October 2009, 343-347을 볼 것. 아울러 www.oikoumene.org/fileadmin/files/wcc-main/documents/p2/brekum-statement.pdf에서도 제공됨.

른 하나는 가난한 이들, 고난받는 이들, 곤경에 처한 이들 가운데 있다.²⁾ 교회는 예전을 통해 힘과 자양을 얻어서 세상을 향한 예언과 공훈의 사역 속에서 또한 인간에 의해 야기된 온갖 형태의 부정의와 억압, 불신과 갈등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생명 살림 선교를 지속해나가야 한다.

68. 에큐메니칼 운동에 주어진 한 가지 축복은, 교회들이 아직 온전한 친교 안에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제자직의 여러 측면을 발견해 온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깨어짐과 분열의 상태는 그 제자들의 일치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회의 선교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토록 긴급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친교를 통한 성장은 신자들의 교제 안에서 더 광범위하게 전개되며, 과거와 미래로 확대되어 성도들 간의 전반적인 교통을 포괄하기에 이른다.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루시는 코이노니아 안에 사로잡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새 창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계 21:1-4, 22:1-5 참조).

69.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과 더불어 종결된다(계 21:1-22:5 참조). 이러한 새 우주는 역사의 종말에 약속된 것이지만, 교회가 시대를 거처가는 순례의 길 위에서 믿음과 소망에 근거하여, 사랑과 예배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외칠 때, 일종의 선택적인 방식으로 현재에도 이미 실재하게 되는 것이다.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사랑하듯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며(엡 5:25 참조), 하늘나라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때까지(계 19:7 참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의 선교적 사명을 자기의 교회와 더불어 나누시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신다.

2) St John Chrysostom, *Homily* 50, 3-4, in J. P. Migne, *Patrologia Graeca*, 58, 508-509.

역사적 기록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WCC는 자신을 가리켜 “성서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고백하며, 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공동체”라고 소개한다.¹⁾ 이러한 “공동의 소명”은 교회들로 하여금 아직도 그들을 갈라놓는 교회론적 쟁점에 대해 함께 의견수렴을 모색하고 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그 쟁점이란 “교회란 무엇인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상 안에서 교회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들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대응해온 방식에서 그들이 교회 분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살면서 신학을 전개해왔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따라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에서 교회론—교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두드러진 강조가 늘 있어왔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신앙과 직제에 관한 1927년 세계대회는 7가지 신학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중 하나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²⁾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와 우리가 역사상 경험하는 갈라진 교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었다. 그 대회에서 발견한 내용에 대해 교회들이 보낸 반응에 기초하여,³⁾ 1937년 신앙과 직제에 관한 제2차 세계대회는 다음 회기의 세계대회에서

1) “Constitution and Rule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L. N. Rivera-Pagín, ed., *God in Your Grace: Official Report of the Nin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WCC, 2007), 448.

2) H. N. Bate, ed., *Faith and Order: Proceedings of the World Conference—Lausanne, August 3–21, 1927* (New York: George H. Doran Co., 1927), 특별히 463–466, *Reports of the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Lausanne Switzerland August 3 to 21, 1927*(Boston: Faith and Order Secretariat, 1928), 19–24.

3) 선별된 반응들을 위해서는 L. Dodgson, ed., *Convictions: A Selection from the Responses of the Churches to the Report of the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Held at Lausanne in 1927*(London: 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1934)을 볼 것.

다를 포괄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⁴⁾ 제2차 세계대회가 특별히 이 주제에만 천착하지는 않았지만, 5개 분과 중 2개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및 “성도들의 교제”와 같은 교회론의 핵심 이슈를 다루었다.⁵⁾ 1937년도 세계대회를 폐막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현존하는 분열의 이슈들 중 대부분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에 대한 인식은 갈라진 교회들 간의 친교로 결실을 맺게 되었고, 1948년 WCC의 결성으로 가시화되었다. 제1차 WCC 총회의 보고서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하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해 상호 불일치하는 두 가지 견해로 분열되어 있음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교회가 맡은 역할을 보다 능동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수동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차이였다.⁷⁾ 에큐메니칼 운동 내에 일어난 이와 같은 새롭고 복합적인 상황—교회들이 교회법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 갈라진 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적 그리스도론에 기반한 공동된 의견수렴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서로 각 교회 안에 분열 이전의 하나의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자취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하에서 1952년 WCC 산하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제3차 세계대회를 개최하였다.

제3차 세계대회를 위해 준비된 3가지 보고서 중 제일 처음 것이 에큐메니칼 교회론에 대한 비교연구를 전면적으로 활용한 것에 바탕을 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⁸⁾ 이러한 비교 연구를 활용한 결과물들은 『교회의 본질』(*The Nature*

4) L. Hodgson, ed.,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Held at Edinburgh, August 3-18, 1937*(London: 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1938), 5.

5) 위의 책, 228-235, 236-238.

6) O. Tomkins, *The Church in the Purpose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Geneva: Faith and Order, 1950), 34 참조.

7) “The Universal Church in God’s Design,” in W. A. Visser’t Hooft, ed., *The Firs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eld at Amsterdam August 22nd to September 4th, 1948*(London: SCM Press Ltd, 1949), 51-57 참조.

8) *The Church: A Report of a Theological Commission of the Faith and Order Commiss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Preparation for 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to Be Held at Lund, Sweden in 1952*(London: Faith and Order, 1951).

of the Church, 1952)이라는 책에 취합되었으며,⁹⁾ 이 결과물은 또다시 그 회의의 최종 보고서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Christ and His Church) 제2장에 반영되었다.¹⁰⁾ 이것은 11년 후인 1963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개최된,¹¹⁾ 신앙과 직제위원회 제4차 세계대회 제1분과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한다.¹²⁾

에큐메니칼 교회론에 대한 이러한 강조가 WCC의 역대 총회에서 채택한 일치에 대한 주요 성명서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1961년 뉴델리 총회 성명서는 “각 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all in each place)의 일치에 대한 것이었고,¹³⁾ 1975년 나이로비 총회 성명서는 “하나의 공의회적 공동체”(a conciliar fellowship)로서 하나의 교회에 대한 것이었으며,¹⁴⁾ 1991년 캔버라 총회 성명서는 코이노니아/친교로서 교회를 다루었고,¹⁵⁾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성명서는 “하나의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을 주제로 삼고 있다.¹⁶⁾ 이 모든 성명서는 교회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아울러 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인 단계를 표시한다.

“각 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성령께서 사도적 신앙과 성례전적 삶과 사역과 선

9) R. N. Flew, ed., *The Nature of the Church: Papers Presented to the Theological Commission Appointed by the Continuation Committee of the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London: SCM Press, 1952).

10) *Report of 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Lund, Sweden: August 15-28, 1952 (London: Faith and Order, 1952), 7-11.

11) *Christ and the Church: Report of the Theological Commission for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Geneva: WCC, 1963).

12) P. C. Rodger and L. Vischer, eds.,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Montreal, 1963*(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4), 41-49.

13) W. A. Visser't Hooft, ed., *The New Delhi Report: The Third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1* (London: SCM Press, 1962), 116.

14) D. M. Paton, ed.,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The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Nairobi, 23 November-10 December, 1975*(London-Grand Rapids: SPCK-Eerdmans, 1976), 60.

15) M. Kinnamon, ed., *Signs of the Spirit: Official Report Seventh Assembly—Canberra, Australia, 7-20 February 1991* (Geneva-Grand Rapids: WCC- Eerdmans, 1991), 172-174.

16) L. N. Rivera-Pagán, ed., *God, in your Grace: Official Report of the Nin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WCC, 2007), 255-261.

교 안에 있는 온전한 가시적 일치에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에큐메니칼 비전에 의해 촉발되어,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1961년에 열린 뉴델리 총회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세례, 성만찬, 직제>라는 의견수렴 문서의 작성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⁷⁾

1993년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열린 제5차 세계대회는 교회론에 대한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성찰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앙과 삶과 증언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향하여”(Towards Koinonia in Faith, Life and Witness)를 주제로 모인 이 세계대회는 여러 요인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되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해 보내준 여러 교회들의 반응이 그러한 공식 반응을 담은 6권 분량의 문서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다.¹⁸⁾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하여 186개 교회가 보내준 반응은 면밀히 검토된 후,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주요 교회론적 주제들로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정리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 안에서 교회가 맡은 역할”, “코이노니아, 하나님 말씀의 산물(creatura verbi)로서의 교회”,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신비 내지 성례전으로서의 교회”, “순례자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적 표징이자 종으로서의 교회.”¹⁹⁾ 1993년 대회의 형태를 결정한 두 번째 요인으로는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진행한 “오늘에 있어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동의 표현을 향하여”(Towards the Common Expression of the Apostolic Faith Today)라는 제하의 연구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물을 꼽을 수 있다.²⁰⁾ 이것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말하는 바 교회에 대하여 선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그 전반적인 교리적 내용에 있어서 교회들 간 고무적인 의견수렴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번째 요인으로는 “교회의 일치와 인간의 공동체”에

17)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Geneva: WCC, 1982).

18) *Churches Respond to BEM*, Geneva, WCC, 1986-1988, volumes I-VI 참조.

19) *Baptism, Eucharist & Ministry, 1982-1990: Report on the Process and Responses*(Geneva: WCC, 1990), 147-151 참조.

20) *Confessing the One Faith: An Ecumenical Explication of the Apostolic Faith as it Is Confessed in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 (381)*, Faith and Order Paper 153(Geneva-Eugene: WCC-Wipf & Stock, 2010) 참조.

관한 연구과정을 들 수 있다.²¹⁾ 여기서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표징이자 도구로서 교회가 지닌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으로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에 대한 공의회적 과정에 따라 제기되는 교회론적 도전을 꼽을 수 있다.²²⁾ 아울러, [교회들 사이에] 양자간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친교의 교회론이 점차로 대두하게 되었고, 이로써 새로운 에큐메니칼 계기가 만들어졌다. 1980년대에 진행된 이러한 운동들은 1989년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수렴되었고, 그것은 당시 “교회의 본질과 선교—교회론에 대한 에큐메니칼 관점”이라고 불린 새로운 연구 과제를 출범시켰다.²³⁾ 제5차 세계대회 주제인 “신앙과 삶과 증언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향하여”는 바로 1980년대에 진행된 이와 같은 모든 연구과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는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교회에 대하여 장구한 시기에 걸쳐 성찰해온 이러한 궤적 안에서 자리매김됨과 동시에, 1993년 제5차 세계대회에서 주어진 신선한 추동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수년 동안 연구와 대화를 진행한 후, 그 교회론 연구의 첫 결과가 1998년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²⁴⁾ 이 문서가 지닌 잠정적인 지위는 그 부제에서 “공동의 진술을 향한 도상에서의 한 단계”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코이노니

21) *Church and World: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Renewal of Human Community, Faith and Order Paper 151*(Geneva: WCC, 1990) 참조.

22) “Final Document: Entering into Covenant Solidarity for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in D. P. Niles, ed., *Between the Flood and the Rainbow: Interpreting the Conciliar Process of Mutual Commitment (Covenant) to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Geneva: WCC, 1992), 164–190; T. F. Best & M. Robra, eds., *Ecclesiology and Ethics: Ecumenical Ethical Engagement, Moral Formation, and the Nature of the Church*(Geneva: WCC, 1997) 참조.

23) G. Gassmann,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 Ecumenical Perspectives,” in T. F. Best, ed., *Faith and Order 1985–1989: The Commission Meeting at Budapest 1989*(Geneva: WCC, 1990), 특별히 202–204, 219 참조.

24)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 A Stage on the Way to a Common Statement* (Geneva: WCC, 1998).

아 안에서 삶,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섬김”, “우리의 소명을 따라가기: 견해를 수렴하여 상호 인정으로 나아가기.” 이 문서에 대한 반응이 교회, 에큐메니칼 기구, 지역 교회협의회, 학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답지하였다. 대부분 우호적인 감사의 논평이 건설적 비판에 의해 보완되어 있었다. 예를 들자면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는 보다 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보인다는 것이었다. 즉 친교로서의 교회에 대한 주제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다루는 장과 분리되어 취급될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이었다. 더 나아가, 몇 가지 주제들이 누락된 것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교도권에 대한 단락이 없었고 선교에 대한 주제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산티아고 세계대회는 “기독교 일치화를 위한 보편적 직제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요청했지만,²⁵⁾ 이 주제는 그 문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에큐메니칼 운동에의 투신에 대한 그의 1995년 회칙 서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에서, 로마 감독(주교)의 직제에 관한 대화를 제안하면서,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산티아고 대회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인용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²⁶⁾

각처에서 반응이 답지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한편,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교회론을 다룬 그 문서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교회의 본질과 선교>라는 제목이 붙은 새로운 초안을 내어놓았고,²⁷⁾ 그것은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2006년 WCC 총회에 제출되었다. 다양한 반응으로부터 추려진 제안을 담아서, 그 문서는 다음과 같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공동체적 친교의 삶”,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존재.” 제1장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언급한 성서의 자료들 다수를 공동체적 친교(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교회의 사명에 관한 성서의 통

25) T. F. Best and G. Gassmann, eds.,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Geneva: WCC, 1994), 243.

26) *Encyclical Letter Ut Unum Sint of the Holy Father, John Paul II, on Commitment to Ecumenism*(Rome: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5), §89.

27)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 A Stage on the Way to a Common Statement*, Faith and Order Paper 198(Geneva: WCC, 2005).

찰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의 내용과 통합하였다. 역사를 다루는 제2장에서는 현재 분열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괴롭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조명하고 있다. 다양성이 어떻게 일치성과 조화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다양성을 이루는 요인은 무엇인가? 교회들은 ‘지역 교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며 ‘지역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는 쟁점은 무엇인가? 제3장은 교회들 간의 공동체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들, 즉 사도적 신앙, 세례, 성만찬, 감동직, 공의회 및 시노드에 대해 조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편적인 수위권과 권위에 대한 주제도 포함되었다. 마지막 장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섬김, 즉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억압당하는 이들을 옹호하며, 복음에 따른 도덕적 메시지에 대해 증언하고, 정의와 평화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발맞추어 인간적인 사회를 진흥시키는 활동 등에 대해 간략하게 탐구하고 있다.

교회론을 다루는 이 개정된 문서도 “공동의 진술을 향한 도상에서의 한 단계”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이 역시 여러 교회로부터 반응을 얻기 위해 발송되었다. 80편 이상의 반응이 도착하였는데, 그중 교회들이 보낸 반응은 30여 편에 불과하였다. 교회와 학문 기관과 에큐메니칼 기구 및 특별히 선교단체들이 보낸 대부분의 반응은 교회의 선교에 대한 주제가 제목에 들어 있을 정도로 더 크게 부각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다른 논평은 “본질”과 “선교”라는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이 교회는 그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 관한 것이었다.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이 주도하는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한 반응들의 평가 작업을 돕기 위해, 신앙과 직제위원회 간사들은 각각의 반응에 대하여 일차적인 분석과 상세한 요약을 준비하였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를 평가함에 있어 세 단계의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 첫째로 신앙과 직제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양한 교회들을 대표하는 120명의 회원들과 더불어 2009년 크레테에서 열렸다. 이 회합에는 처음으로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다수 출석하였으며,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3개 연구 과제, 그중에서도 특히 교회론 연구에 투입된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회의의 구조를 조정하였다. 이 회의를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한 평가가 진

행되었다.²⁸⁾ 전체회의의 주요 방침은 그 문서의 분량을 줄이고, 그 내용을 보다 더 상황에 맞게 개정하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삶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광범위한 독자층에게 더 널리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12개의 분과 그룹으로 나누어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담긴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문서에 대한 상세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²⁹⁾

두 번째로, 2010년 6월 아르메니아의 성지 에치미아친(Holy Etchmiadzin)에서 신앙과 직제상임위원회가 모여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해 보내준 여러 반응과 크레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 문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최종 수정판 작업을 시작할 적기가 되었음을 의결하였다. 성공회, 가톨릭, 루터교, 감리교, 정교회 및 개혁신교회 출신의 신학자들로 구성된 초안위원회가 임명되었고, 감리교와 정교회 전통으로부터 2명의 공동 의장이 호선되었다.

세 번째로, 위원회는 교회들의 반응을 취합하는 과정 중에 중대한 공백이 있었음을 감지하였으니, 그때까지도 동방정교회 및 오리엔탈 정교회(Eastern and Oriental Orthodox churches)로부터 팔목할 만한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콘스탄짜야 수좌주교관구(Holy Metropolitanate of Constantia)에 속한 키프러스의 하기야 나파(Aghia Napa)에서 정교회 간 회담이 개최되었고, 거기에 10개의 오리엔탈 정교회와 3개의 동양정교회를 대표하는 40인의 신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거기서 제안하는 주요 내용은 세례, 성만찬 및 직제에 관한 자료들을 교회의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발제에 더 분명하게 통합시키라는 것이었다. 이 정교회 간 회담과 거기서 나온 보고서는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의 차기 회의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문서의 작성과정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교회들이 보낸 반응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이 2010년 11월 말 제네바에서 모인 초안위원회의 첫번 모임에서 계속되었다. 그 과정은 2011년 3월 초에 있었던 정교회 간 회담 이후에 신선한 추동력을 얻었다. 3월 말에 미국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서

28) John Gibaut, ed., *Called to Be the One Church: Faith and Order at Crete*(Geneva: WCC, 2012), 147-193 참조.

29) *ibid.*, 207-231 참조.

열린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 모임에서는 이 문서의 새로운 초안이 작성되어 2011년 7월 이탈리아의 가자다에서 있었던 신앙과 직제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위원들로부터 많은 논평이 있었으니, 그들 대부분은 상당히 우호적이면서도 그 문서가 구체적으로는 양자 간에 의견 일치를 본 합의문들과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최근에 간행한 연구 문헌인 <하나의 세례: 상호 인정을 향하여>(One Baptism: Towards Mutual Recognition) 등에서 나타난, 특별히 직제의 분야에 관해서, 보다 진전된 의견수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³⁰⁾

이러한 요청은 몇 가지 어귀들을 강조하고 거기에 주석들을 보강하여 [지금껏] 의견수렴을 지향하는 가운데 진전된 성과를 입증하는 식으로 처리되었다. 뒤이어서, 2011년 12월 스위스의 보세이 에큐메니칼연구소에서 모인 초안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판본을 준비하였다. 초안위원회는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의 간사들이 보내준 내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작성된 문서가 외부의 에큐메니칼 전문가 4인 앞으로 송부되어 새로운 검토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보내온 제안을 초안위원회가 평가하고 반영하여, 2012년 3월 말 독일의 프라이징에서 열린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 모임에 제출하였다. 프라이징 모임에서 나온, 이 문서에 대한 논의와 반응에 기초하여, 교회론에 관한 실무단은 신앙과 직제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최종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2012년 6월 21일 최종 본문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는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라는 제목과 더불어 만장일치로 그것을 하나의 의견수렴 문서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는 보다 진전된 공동의 선언문을 향한 도상의 한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전의 판본들—<교회의 본질과 목적> 및 <교회의 본질과 선교>—이 추구해온 공동 선언문인 것이다.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는 교회에 대하여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수행해온 성찰의 한 단계를 완결지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수행해온 성찰이 일정 수준의 성숙도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 문서가 1982년에 나온 <세례, 성만찬, 직

30) *One Baptism: Towards Mutual Recognition*(Geneva: WCC, 2011).

제>와 동급의 지위 및 성격을 지니는 하나의 의견수렴 문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문서는 이대로 각 교회들에 보내져서 교회들이 서로 더불어 자신들의 교회론적 의견수렴을 시급하고 분별하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셨던 바 일치의 현현을 향한 교회들의 진일보한 순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평가 기준으로 이용될 것이다. WCC 중앙위원회는 2012년 9월 초 그리스의 크레타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수용하여 그것을 회원 교회들의 연구와 공식 반응을 위한 문서로 추천하였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

WCC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확인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는 2006년 세계교회협의회(WCC)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이후 새로운 에큐메니칼 선교 확인을 작성하기 위해 수고하며 공헌하였다. 이 새로운 성명서는 2013년 WCC 제10차 부산 총회에 제출될 것이다. 1961년 뉴델리에서 국제선교협의회(IMC)와 WCC가 통합된 이래로 지금까지 WCC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공식 성명서는 1982년에 중앙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확인>(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이 유일한 것이었다. 이번 새로운 선교 성명서는 2012년 9월 5일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이 에큐메니칼 통찰의 목적은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 선교와 전도를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비전과 개념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WCC 회원 교회들과 그 협력 선교기구들을 넘어 더 광범위한 대상에게 호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물의 생명 충만을 향해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I. 함께 생명을 향하여: 주제 소개

1. 우리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 구속자, 유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oikoumene)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시기 위해 세상 안에서 일하신다.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요 3:16)으로 믿는다. 만물 가운데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관심이며 선교이다(요 10:10).

1) 특별히 지적하지 않는 경우 성경은 개역개정판을 인용한다.

우리는 생명의 시여자(施與者)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생명을 지탱시키고, 힘을 주시며, 온 피조물을 새롭게 하신다(창 2:7, 요 3:8). 생명을 부정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살리기 선교로 초대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을 위한 풍요로운 생명의 비전을 증거하도록 권능을 주신다. 우리는 현재 우리를 하나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명 살리기 사역을 어떻게, 어디에서 분별할 수 있을까?

2.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성 삼위를 하나로 묶는 그 사랑은 온 인류와 창조세계로 넘쳐흐른다.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선교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요 20:21) 희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주신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축하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고 그것을 변혁시키라는 임무를 받았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산 증인들이 되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것”(요 20:22)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령의 선교를 새롭게 인식함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변화하는 다양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 선교를 어떻게 다시 상상해볼 수 있을까?

3.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은 선교의 본질이며, 우리가 왜 행동하는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의 핵심이다. 영성은 우리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제공하며 우리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그것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거룩한 선물이며 생명을 긍정하고 보살피는 에너지이다. 이러한 선교 영성은 사람들의 영적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혁의 역동성을 갖는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가 생명을 긍정하는 변혁적 영성이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4.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부분적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창조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좋은 소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교를 우주적 차원으로 깨닫는 것과 온 생명,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지구의 미래가 명백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것과 그 위협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5. 기독교 선교 역사는 선교의 한 중심지로부터 “미전도 지역” 혹은 땅 끝까지 이르는 지리적 확장의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다수가 지구의 남반구와 동쪽에 살고 있거나 그곳에서 태어난 “세계화된 기독교”

(World Christianity)라고 표현되는 급속한 교회의 지형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²⁾ 이민은 기독교의 지형을 재형성하는 전 세계적이고 다방향적인 현상이 되었다. 강력한 오순절 및 은사운동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출현하는 것은 오늘날 가장 주목할 만한 세계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인구 비중의 변화”가 선교와 전도의 신학과 의제와 실천에 어떤 통찰을 주고 있는가?

6. 선교는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사회 특권층으로부터 소외계층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주변부화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교 대리자로서 자신들의 핵심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교를 변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역할의 반전은 강한 성서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고전 1:18-31)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선교를 진전시키시고, 생명이 번성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주변을 향한 선교”에서 “주변으로부터의 선교”로 선교 개념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주변 출신 사람들의 독특한 공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비전이 오늘날 선교와 전도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7. 우리는 mammon(물신, mammon)에 대한 숭배가 복음의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시장 이념은 글로벌 시장이 무한대로 성장하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는 선전을 펴뜨리고 있다. 이러한 신화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 인간성뿐만이 아니라 온 창조세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또한 시장의 영을 이길 수 있을까? 글로벌 규모의 경제적·생태적 부정의와 위기의 한가운데서 교회는 어떠한 선교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8.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그리고 개교회들은 구원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려피지게 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았다. 전도는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과 확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러한 나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선물이다.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참된 신앙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 안에서 교

2) Todd M. Johnson, Kenneth R. Ross (eds.), *Atlas of Global Christianity*(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 중 필수적인 전도에 대해 새롭게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세대를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선포할 수 있을까?

9. 교회는 다종교, 다문화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도 세계인들이 서로의 정체성과 일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 평화, 정의가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종사한다. 다원성은 교회들이 만나는 도전이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와 문화 간의 소통에 대한 진지한 참여는 피할 수 없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있는 세계 안에서 생명 살리기 선교를 공동으로 증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에큐메니칼 신념을 가져야 하는가?

10.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세상을 변혁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의 선교는 새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있는 분열과 긴장을 이겨내고 일치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하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고 하나가 될 것이다(요 17:21).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적 교제(communion)로서 교회는 반드시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 치유와 화해를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는 선교적이 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갱신할 수 있으며, 생명의 충만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11. 이 선교 성명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의 틀 안에서 성령의 선교를 이해하는 데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발전을 강조한다. 이 성명서는 4가지 제목으로 그 내용을 다루었다.

- 선교의 성령: 생명의 숨결
- 해방의 성령: 주변으로부터의 선교
- 공동체의 성령: 움직이는 교회
- 오순절의 성령: 모든 사람과 만유를 위한 복음

이러한 관점들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역동성(dynamism), 정의, 다양성, 변혁(transformation)을 오늘날 변화하는 기독교 지형 속에서 선교의 중심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위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오늘날 선교와 전도에 대한 10가지 확언을 응답으로 제시하면서 마칠 것이다.

II. 선교의 성령: 생명의 숨결

성령의 선교

12. 하나님의 영(ru'ach)은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창 1:2) 생명과 인간 숨결의 근원이 되셨다(창 2:7). 히브리어 성서에서 그 영은—지혜(잠 8장)와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사 61:1), 마른 뼈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겔 47장), 꿈꾸게 하시고(욥 2장),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개혁을 일으키시며(대하 7:1)—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13. 창조 때에 “수면 위를 운행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은 마리아에게 임하여(눅 1:35) 예수를 낳으셨다.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에게 권능을 주시고(막 1:10), 선교하도록 파송하신(눅 4:14, 18) 분은 성령이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영혼을 포기하셨다(요 19:30).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무덤의 냉기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롬 8:11).

14.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동체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을 선교하도록 파송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22).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성령의 은사에 의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증거하는 새 공동체를 이루었다(눅 24:49, 행 1:8). 초대교회는 일치의 성령 안에 함께 살면서 성도들 사이에 소유를 나누었다(행 2:44-45).

15. 창조세계 안에서 성령의 경륜의 보편성과 성령의 구속 사역의 특수성은 둘 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고전 15:24-28)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성령의 선교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령은 종종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일하신다(눅 1:34-35, 요 3:8, 행 2:16-21).

16. 성서는 성령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고 증언한다. 그중 하나는 성령이 그리스도에 완전히 의존적이고, 보혜사이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위로자와 변호자로서 오실 분이라고 강조한다. 성령은 선교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현존이라고 이해된

다. 이러한 이해는 파송과 확장을 강조하는 선교학을 낳는다. 기독교 선교에 대한 성령론적 이해의 하나는 선교란 본질적으로 기독교론에 근거하며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17. 또 다른 견해는 성령은 우리를 “온전한 진리”(요 16:13)로 인도하며,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시는(요 3:8) “진리의 영”이며, 온 우주를 끌어안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근원(source)이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론적 모임(synaxis)이라고 선포한다. 이러한 두 번째 견해는 성도들이 성만찬의 집회에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미리 감지하고 맛보는 체험을 한 후에 평화롭게 (선교로) 나아가는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파송으로서 선교는 교회의 기원이기보다는 결과이며, “예전 후의 예전”³⁾이라고 부른다.

18. 분명한 사실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중심에 있는 사랑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능력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모든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역동적 관계하심을 지속적으로 확증하는 신앙적 증언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선교와 창조세계의 번성

19.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흘러넘침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활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창조세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서로 엮여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교는 항상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 안에 우리 모두를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좁은 접근을 넘어서 모든 창조된 생명과 우리가 화해된 관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선교 유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땅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며, 처음부터 땅이 인간의 부정의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창 4:10).

20. 그 중심에 창조세계를 품고 있는 선교는 생태정의,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그리고 땅을 존중하는 영성을 발전시키는 캠페인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이미 적극

3) Ion Bria,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 Mission and Witness from an Orthodox Perspective* (Geneva: WCC, 1996) 참조. 이 용어는 본래 대주교 아타스타시오스 야노울라토스(Anastasios Yannoulatos)가 처음 사용했고 이온 브리아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적인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온 창조세계가 우리가 실천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 화해된 일치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후 5:18-19). 우리는 창조세계는 멸망되고 오직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는다. 땅과 우리의 몸은 모두 성령의 은혜를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이사야의 비전과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새로워질 것이다(사 11:1-9, 25:6-10, 66:22, 계 21:1-4).

21.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고, 창조세계 안에 존재하고,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은 상호 변혁적이기 때문에 함께 엮여 있어야 한다. 나머지 둘 없는 하나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웃에 속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고 잘못 믿는 개인주의 영성으로 일탈하게 될 것이고, 다른 피조물들이 상처받고 신음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단순히 기분 좋게 해주는 영성에 빠지게 될 것이다.

22.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의 선교 안에 새로운 겸손을 수용하는 새로운 회개(metanoia)가 필요하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 인간이 다른 대상들을 향해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모든 창조세계와 함께 공동체적 교제(communion)를 하면서 창조주의 사역을 찬양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창조세계는 인간을 향해 임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자연세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혜문서는 창조세계가 자신들의 창조주를 찬양한다고 확증한다(시 19:1-4, 66:1, 96:11-13, 98:4, 100:1, 150:6). 창조세계 안에서 창조주의 즐거움과 경이로움은 우리의 영성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욥 38-39장).

23. 우리는 창조세계와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긍정하려고 하지만, 지구가 오염되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주의는 무한성장이 아니라 끝없는 지구 자원의 착취를 촉발했다. 인간의 탐욕은 지구온난화와 다른 형태의 기후변화에 원인이 되고 있다. 만일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땅이 치명적으로 손상된다면, 어떤 구원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피조세계의 나머지가 멸망하고 있는데 인간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 생태정의는 구원과 분리될 수 없고, 땅 위의 모든 생명의 요구를 존중하는 새로운 겸손 없이는 구원이 올 수 없다.

영적 은사와 영분별

24.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고전 12:7, 14:26) 온 창조세계를 화

해하기(롬 8:19-23) 위해 나누어야 하는 은사들을 값없이 공평하게 주신다(고전 12:8-10, 롬 12:6-8, 엡 4:11).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는 영분별이다(고전 12:10). 우리는 괴역압자들의 해방, 깨어진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창조의 회복을 포함하여 생명의 충만이 모든 차원에 긍정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분별한다. 우리는 또한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파괴가 만연한 곳에서 악령들을 분별한다.

25.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많은 영들이 있는 세계를 경험했다. 신약성서는 악령들, “섬기는 영들”(천사들, 히 1:14), “통치자들”과 “권세들”(엡 6:12), 짐승(계 13:1-7), 그리고 선하고 악한 다른 권세들을 포함한 다양한 영들에 대해 진술한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일부 영적 투쟁(엡 6:10-18, 고후 10:4-6)에 대해 진술하며 악을 대적하라(약 4:7, 벧전 5:8)고 명령한다. 교회들은 세상에 파송되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사역을 분별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행 1:6-8).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종종 전복시키고, 우리를 한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응답할 것을 요청받는다.

26.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내적이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지만 또한 선교적인 노력에서는 우리를 바깥으로 이끌어간다. 성령에 대한 전통적인 상징과 명칭(불, 빛, 이슬, 샘, 기름 부음, 치료, 녹이기, 따뜻하게 함, 위로, 위안, 힘, 휴식, 씻음, 비추임)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친숙하다는 사실과 선교가 관심을 갖는 관계성, 생명, 창조세계의 모든 측면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다양한 상황과 순간들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만남의 공간으로, 그리고 중요한 투쟁 장소로 인도함을 받는다.

27. 성령은 지혜의 영(사 11:3, 엡 1:17)이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요 16:13). 성령은 인간의 문화와 창의성을 고취시킨다. 그래서 각각의 문화와 상황(context) 안에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식민지 건설과 연결된 선교활동이 종종 지역 주민들의 문화를 폄하하고 그들의 지혜를 인정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긴다. 생명을 긍정하는 지역의 지혜와 문화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선물이다. 우리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멸시와 조롱을 받아온 전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진술을 높이 평가한다. 그들의 지혜는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와

성령의 생명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또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는 방법들을 사고하도록 돕는 중요하고 새로운 방향(orientation)을 제공하기도 한다.

28.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주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포함하는 성령의 열매(갈 5:23)를 맺으라고 교회를 격려하면서 이 말을 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활동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변혁적 영성

29. 진정성 있는 기독교적 증언은 우리가 선교에서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선교하는 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깊게 뿌리내린 영성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영성은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제공한다. 그것은 삶의 여정을 자극하고 그것에 동기를 부여하고 역동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생명 충만을 위한 에너지이며, 생명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쇠약하게 하는 모든 세력과 권세와 제도에 저항하는 헌신을 요구한다.

30. 선교 영성은 늘 변혁적이다. 선교 영성은 경제와 정치 안에 심지어 우리의 교회들 안에라도 생명을 파괴시키는 가치와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들에 저항하고 변혁을 추구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값없는 생명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우상숭배 수준의 거만함, 불공평한 제도, 독재정치, 현 세계 경제질서 속에 있는 착취와 대결하도록 한다. 경제와 경제적 정의는 창조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에 닿아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의 문제가 된다.”⁴⁾ 선교 영성은 맘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경제에 봉사하고, 개인 탐욕을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생명을 나누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권력자들의 자기 이익에 도전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31.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4) *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s and Earth(AGAPE): A Background Document*(Geneva: WCC, 2005), 13.

고 말씀하셨다. 무한성장정책은 글로벌 자유시장을 지배함으로써 가난한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대안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면서, 부와 번영을 창출해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을 만들어낸다.”⁵⁾ 그것은 끝없는 착취를 통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부(富)가 무제한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mammon의 글로벌 제도이다. 이러한 탐욕의 탐은 하나님의 온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러한 mammon의 제국에 직접적으로 반대한다.

32. 변혁은 파스카 신비의 빛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딤후 2:11-12). 억압과 차별과 고통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전 1:18). 심지어 우리 시대에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제자도의 희생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순교에 직면해서도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살도록 용기를 준다.

33. 십자가는 선교와 교회 안에 권력 남용과 악용에 대한 회개를 요청한다. “교회와 세계 안에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괴롭히는 힘의 불균형과 불안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권력 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권력 구조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요청받고 있다.”⁶⁾ 성령은 약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력해진 사람을 위해 강자가 스스로 자기의 특권을 비우도록 도전하신다.

34. 성령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생명을 충만하게 맛보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계속 유지시키는 만물을 기뻐하고, 절망과 염려(시 23편, 사 43:1-5)의 강을 건너기 위해 연대의 행진을 하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증거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선교는 성령께서 우리와 만나 삶의 모든 단계에서 도전하신다는 깨달음을 주고 또한 우리의 개인 혹은 집단의 여정(旅程)의 장소와 시간에 새로움과 변화를 주신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 안에 자극한다.

35. 성령은 동반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결코 길들여지거나 “관리할 수 있

5) *The Accra Confession, Covenanting for Justice: in the Economy and the Earth*(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2004), §10.

6) Edinburgh 2010, *Common Call*, 2010, § 4.

는” 분이 아니다. 성령의 놀라운 활동 가운데에는 주변으로 여겨지는 장소들로부터 배척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다.

III. 해방의 성령: 주변으로부터의 선교

36.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 가운데 이미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은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눅 4:16-18)이라고 선언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시대에 주변부화된 사람들과 함께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선교를 완수하시려 두루 다니셨는데, 그것은 온정주의적 자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세상의 죄성을 입증했고, 그들의 생명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37.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면하여 변혁하기 위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끌어안았다. 그것들은 거대한 빈곤과 차별과 비인간화를 가져오고, 유지시키며, 사람과 땅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문화와 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주변으로부터의 선교는 권력의 역학, 글로벌 제도와 구조, 그리고 지역적 상황의 복잡함을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 선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속 주변으로 밀려나는 사람들과 연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방법들을 통해 이해되거나 실행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주변으로부터의 선교는 만물에게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선교라는 것을 재구상하도록 교회를 초대한다.

왜 주변부 사람이며 주변부화인가?

38.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는 삶과 교회와 선교 안에 있는 부정의에 대항하려고 한다. 그것은 오직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특권 있는 자가 소외된 자에게 선교할 수 있다는 인식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선교운동이 될 것을 추구한다. 그러한 접근방법들은 억압과 주변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는, 중심부가 되는 것이 자기 권리와 자유와 개성이 긍정되고 존중

받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주변부에 사는 것은 정의와 존엄에서 배제 되는 현실임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주변부에 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향을 제공할 수 있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변해줄 자들이 있고 중심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연약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변부 사람들은 종종 어떠한 특권층세력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자기들의 투쟁의 절박성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다. 특권층 사람들은 주변부적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투쟁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39. 주변부 사람들은 능력개발이 박탈되고, 기회와 정의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으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대신 주변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통해 적극적인 희망과 집단적 저항의 담지자들,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담지자들이 된다.

40. 선교활동의 현장(context)은 선교의 범위와 성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선교 사역자들의 사회적 활동 장소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선교학적 성찰을 할 때 선교적 전망을 형성하는 서로 다른 가치 지향성(value orientations)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주변부로부터 권력의 중심부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변부에 있게 함으로써 중심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맞서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오히려 권력 구조를 변혁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41. 과거와 현재에 주요한 선교적 표현들은 종종 사회의 주변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주변부 사람들을 선교활동의 적극적 행위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보아왔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된 선교는 종종 억압적이고 생명을 죽이는 제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특권층 주류와 제휴되어 있었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제도에 대한 도전을 막아왔다. 주류에서 출발하는 선교는 온정주의적 태도와 우월의식이 동기로 작용했다. 역사적으로 이런 선교는 기독교와 서양문화를 동일시했고, 그러한 주변부화로 희생된 사람들의 온전한 인간성을 부정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42. 주변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은 사회, 문화, 문명, 국가, 심지어 교회까지도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이다. 주변부화와 억압을 일으키는 불평등의 근거에는 부정의가 있다.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본성과 주권과 분리되지 않는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가운데 신 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 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 10:17-18). 그러므로 모든 선교활동은 모든 사람의 인격적 존재와 땅의 성스러운 가치를 지켜야 한다(참조 사 58장).

투쟁과 저항으로서 선교

43.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창조세계 안에 구체적인 실재와 상황(context) 속에서 행동하시고, 정의와 평화와 화해를 통해 온 땅의 생명 충만을 추구하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속되는 해방과 화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착취하고 노예화하는 마귀들을 분별하고 가면을 벗기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가부장적 이념을 해체하고, 원주민들을 위한 자결권을 옹호하며, 인종주의와 카스트 제도의 사회적 뿌리에 도전하는 것을 수반한다.

44. 교회의 희망은 약속된 하나님 통치가 성취되는 것에 근거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류와 모든 창조세계 사이에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전은 비록 종말론적인 실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만, 종말 이전 시기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깊은 활력과 정보를 준다.

45.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막 10:45),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눅 1:46-55), 상관성, 상호관계와 상호 의존성의 특징을 지닌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만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생명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정의, 인간존엄, 생명의 대의를 지키는 운동에 참여하고 솔선하는 모든 사람과 혼쾌히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와 포용성을 추구하는 선교

46.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좋은 소식은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계가 실현된다는 약속과 관련된다. 포용성은 인류와 창조세계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창조세계가 상호 인정하고 또한 각자의 성스러운 가치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가치를 지탱하는 정의로운 관계를 양육시킨다. 그것은 또한 각 사람이 공동체의 삶 속에 온전하

게 참여하도록 돕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공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장벽들을 극복해냄으로써 이러한 희망의 근거를 제공하는 평생의 임무를 갖는 것이다(갈 3:27-28). 그러므로 인간을 해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47. 예수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마 20:16). 교회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철저한 호의를 베푸는 범위만큼, 교회는 하나님 통치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사 58:6). 교회가 자기중심주의를 삶의 방법으로 택하는 것을 비판하는 범위만큼, 하나님 통치가 인간의 실존에 스며드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회가 사적인 상호작용은 물론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제도 안에서 신체적·심리적·영적인 표명을 할 때 폭력을 포기하는 만큼,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 통치를 증언하는 것이다.

48.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교와 돈과 정치권력은 전략적 동반자들이 되어 있다. 비록 우리의 신학적·선교학적 대화는 가난한 사람과 연대하는 교회의 선교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실천적으로 부자들과 밥을 먹으며, 교회 관료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로비하면서 권력의 중심부에 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특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도전한다.

49.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공동체의 계획을 진술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치와 관습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차별의 형태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부정의한 구조를 변혁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소명으로 인해 교회에 대해 확실한 기대가 생겨나게 된다. 교회는 그 서열구조 안에 억압적인 권력들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대신 대항문화공동체(counter-cultural community)로서 활동해야 한다. 신구약성서 안에서 언약 공동체를 향한 명령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마 20:16)는 언명으로 특징지어진다.

치유 및 온전성으로서의 선교

50.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와 삶의 온전성을 향한 행동은 선교의 중요한 표현이다. 치유는 예수 사역의 중심적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

역을 지속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특징이기도 하다(마 10:1). 치유는 또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이다(고전 12:9, 행 3장). 성령께서는 한편으로 기도, 목회적 돌봄, 전문적 보건을 포함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의 근거 원인들에 대한 예언 자적 고발, 부정의를 일삼는 구조의 변혁 및 과학적인 탐구를 포함하는 생명 양육의 선교를 위하여 교회에게 능력을 주신다.

51. 건강은 육체적·정신적 복지 이상의 것이고, 치유는 본래 의학적인 것이 아니었다. 건강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교회의 성서적·신학적 전통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인간을 다차원적 통일체로 보고 몸·혼·정신을 상호 관련적, 상호 의존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이해는 개인적 특성과 온전성의 사회적·정치적·생태학적 차원을 긍정한다. 건강은 온전성이라는 의미에서 현재에는 실질적 가능성이고, 종말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조건이 된다.⁷⁾ 온전성은 정(靜)적인 조화의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세계가 함께 공동체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와 부정의는 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장벽이고 그러므로 온전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에이즈와 면역결핍증을 포함하여 의학적 조건이나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다. 방치되었던 우리의 개인적·집단적 삶의 모든 부분이 포용될 때, 그리고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서 그러한 온전성이 경험될 수 있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통치의 징표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52. 사회는 장애나 질병을 죄의 결과나 혹은 해결되어야 할 의학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학적 모델은 개인의 “결함”으로 여겨지는 것을 교정하거나 치료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변부화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족”하거나 “병든” 존재로 보지 않는다. 성서는 많은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는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평등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며 치유하셨고, 공동체 구조 안에 그들의 정당한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치유는 결함으로 이해되는 그 어떤 것을 교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물론 온전해지기 위해서 손상된 부분들은 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치료를 고정적으로 보는 것은 성서적 관점을 진척시키기 위해 극복되어야 하는 관점이다. 선교는

7) *Healing and Wholeness: The Churches' Role in Health*(Geneva: WCC, 1990), 6.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의 삶 속에 온전하게 참여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53. 기독교 의료선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질 높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만인 건강의 성취라는 목적이 있다. 종합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건강과 치유에 참여할 수 있고 현재에도 참여하고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교회는 진료소와 선교병원들을 세우고 지원하며, 상담하고, 보살피는 단체들과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교회들은 병든 교우들을 방문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할 수 있다. 치유과정은 병자와 함께하는 기도 혹은 병자를 위한 기도, 고백과 용서, 안수, 기름 바르기, 카리스마적인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고전 12장)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여 치유자가 영광을 누리거나 거짓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승리주의적 치유집회 등 부적절한 예배 형태는 사람들에게 깊은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우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일어나는 치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54.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고통 속에 신음하며 구속을 바라는 창조세계의 일부로서 기독교 공동체는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다(롬 8:22-24). 성령은 여러 방법으로 정의와 치유를 위해 일하시며 그리스도의 선교를 구현하기 위해 부름받은 특별한 공동체 안에 거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IV. 공동체의 성령: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생명

55. 교회의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선교란 창조세계와 구속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초대하신다”(Caritas Christi urget nos). 이러한 공동체적 교제(communion)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같은 운동을 하는 형제자매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개방시킨다(고후 5:18-21).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교회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를 위해 좋은 소식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나눔은 모든

선교와 전도의 원천이다.

56. 성령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⁸⁾에서, 그리고 모든 문화와 상황을 위해 온 인류에게 주시는 영감 있는(inspirational) 선물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성령의 강력한 현존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내주(內住)하시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그러한 목적 실현에 참여하도록 힘과 자격을 주신다.

57. 교회는 역사 안에서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신학적·경험적으로 선교를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 기원과 목적에 있어서 교회와 선교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교회와 선교의 관계는 매우 친숙한데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에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셨다(요 20:19-23). 그러므로 마치 불이 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만일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더는 교회가 아니다.

58. 하나님 선교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래로부터”(from below)의 교회론적 접근에 도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가 교회를 소유하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들을 확장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현하는 보편적 교회(the Church)의 계획이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 역동적인 이해가 나온다. 사도성은 이어지는 시대들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직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적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일치

59.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교에 참여하는 중요한 길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속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히

8)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111, 1982, §19.

10:25).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하나의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존재 안에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통치의 비전을 미리 맛보고 증언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함께 모임(coming together)이고 평화 가운데 나아감(going forth)이다.

60.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선교와 일치는 서로에게 속한다. 이런 관점에서 1961년 국제선교협의회(IMC)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통합된 것은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선교와 교회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용기를 준다. 그러나 이 목적이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기(世紀)에 교회가 진정 선교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선한 시도들을 하면서 이 여정을 지속해가야 한다.

61.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 면에서 자신들이 아직 하나님 선교의 충분한 구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때로는 선교와 교회를 분리하는 의식이 여전히 우세하다. 선교 안에 온전하고 실질적인 일치가 부족해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 선교가 성취되는 것에 대해 진정성과 신뢰성이 여전히 손상되고 있다. 주님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요 17:21). 이처럼 선교와 일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와 일치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더 광범위한 일치 이해로, 즉 인류의 일치 및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의 우주적 일치로 개방해야 한다.

62. 자유시장경제의 대단히 경쟁적인 환경은 불행하게도 남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를 추구하도록 교회들과 유사교회(para-church)운동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심지어 한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교파 소속을 바꾸라고 설득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채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타인 존중의 태도와 공존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권력과 돈이 아니라 자기 비움(kenosis)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선교에 대한 이러한 겸손한 이해는 우리의 선교 방법들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본성이며 본질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자기 비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63. 다양성을 지닌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존경하고 책임지는 복음전도 형태를

포함하는 동반자 관계와 협력정신을 가지고 공동 증언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실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공동 증언이란 “비록 분열되었지만 교회들이 특별한 공동 노력을 통하여, 이미 그들이 함께 나누고 경험한 하나님 주신 진리와 삶의 은사들을 나타내는 것이다.”⁹⁾

64. 교회의 선교적 본성은 또한 교회들과 유사교회(para-church) 구조들이 더 가깝게 관계할 수 있는 길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MC와 WCC의 통합은 교회일치와 선교에 대해 사고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다. 일치 논의들이 제도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온 한편, 선교 단체들은 선교에서 유연성과 보완성(subsidiarity)을 나타냈다. 유사교회운동들은 교회론적 지주(支柱)를 통해 책임성과 방향성을 찾는 반면, 교회들은 유사교회 구조들을 통해 자신들의 역동적·사도적 특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5. 협력과 일치에 술회를 보였던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와 직접 계승자인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는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선교에서 일치(unity in mission)를 표현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WCC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CWME는 세계 도처의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복음주의, 오순절, 토착교회들로부터 나오는 선교와 일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만날 수 있었다. 특별히 WCC는 로마가톨릭교회와 가까운 실무관계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복음주의자들과의 협력 증진은, 특히 로잔세계복음화운동(LMWE)과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관계는 일치 안에 선교(mission in unity)라는 주제에 대해 에큐메니칼 신학적 성찰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는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 세계 안에(in the whole world)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을 증언해야 한다는 공동의 관심을 함께 가지고 있다.¹⁰⁾

66. 일치의 영이신 성령은 또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기 위해 주도적이고 건설적으로 사람들과 교회들을 연합시키신다. 성령은 포용적이고 상호 책임적인

9) Thomas F. Best, Günther Gassmann, eds.,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Santiago de Compostela 1993*, Faith and Order Paper no.166(Geneva: WCC, 1994), 254.

10) “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Reflections of the Lausanne Theology Working Group,” 2010 참조.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육성환경(nurturing environment)에서 서로의 차이를 탐구하도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동적 상황과 자원들을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에 힘을 주신다

67.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 그래서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요구에 근거한 긴급한 내적 충동이 되고(고전 9:16),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성 있는 삶을 평가하는 시험과 척도가 되기에, 예수께서 가져오신 생명 충만을 나누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특별한 개인이나 전문 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당연한 것이다.¹¹⁾

68. 인류와 모든 창조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메시지를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은 가능한 장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으로 증언하고, 우리 안에 있는 희망(벧전 3:15)의 이유를 설명하는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들은 풍요로운 공동 선언들을 발표해왔는데, 그 선언들의 일부는 연합하는 교회(uniting) 혹은 연합된 교회(united)들로부터 나타났고 또한 대화 중 일부는 하나의 살아 있는 치유와 화해의 유기체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 회복을 추구하였다. 성령의 사역을 치유와 화해 안에서 재발견하는 일은, 오늘날 선교신학의 중심이 되었는데, 중요한 에큐메니칼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¹²⁾

69. 교회들 사이에 “가시적” 일치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조 차원에서만 일치가 추구될 필요는 없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선교의 대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선교 안에서 일치는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위한 바탕이 되며, 교회 직제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일치를 성취하려는 시도는 정의를 찾으라는 성서적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11) *Mission and Evangelism in Unity*, CWME Study Document, 2000, §13.

12) *Mission as Ministry of Reconciliation*, in Jacques Matthieu, e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Statements on Mission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0-2005*(Geneva: WCC, 2005), 90-162 참조.

한다.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은 때로는 침묵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거짓된 일치를 타파하는 데 관련된다. 진실한 일치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성과 존경을 수반한다.

70. 오늘날 광범위한 세계적인 이민 상황은 교회들이 아주 실천적인 방법으로 일치에 헌신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는 말씀을 듣고 있다. 교회들은 이민 공동체를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또한 문화 간의 교류를 위해 의도적인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¹³⁾ 교회들은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기 위해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다양성 안에서 공동 증언의 표현으로서 다문화 목회와 선교를 창조해내야 한다. 이것은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정의를 옹호하고,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여성, 어린이, 미등록 노동자들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주민들 가운데 가장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여성들은 또한 자주 새로운 이민정책의 첨단에 놓여 있다.

71. 하나님의 환대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집단들을 주인으로, 이주민과 소수자들을 손님으로 보는 우리의 이층구조 개념을 극복하도록 요청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환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모두 겸손과 상호성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성령에 의해 초대받는다.

개교회들: 새로운 창의적 주도성

72. 하나의 교회(the one Church)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각 개교회(local congregation)가 자기 성도들의 상황적 현실에 응답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들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날 변화된 세계는 개교회들이 새로운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속화되고 있는 북반구에서 “신수도원주의”(new monasticism), “이머징 교회”(emerging church), “프레쉬 익스프레션”(fresh expression)과 같은 새로운 형태

13) “Report of WCC Consultation on Mission and Ecclesiology of the Migrant Churches, Utrecht, the Netherlands, 16–21 November 2010,”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100.1., 2011, 104–107.

의 상황적 선교(contextual mission)가 교회들을 재정의하고 재활성화하고 있다. 상황에 알맞게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하다. 북반구에 있는 일부 교회들은 대중술집(pubs), 커피숍, 개조된 영화관에서 모이고 있다. 온라인을 교회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비선형적(non-linear)·시각적·실험적 방식으로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73.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같이 개교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것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개교회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변혁의 동인(動因)이 될 수도 있다.¹⁴⁾ 그러므로 개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선교의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교회들은 선교의 전선들이며 주요 대리자들이다.

74. 예배와 성례전은 변혁적 영성과 선교를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성서를 상황에 맞게 읽는 것은 개교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와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선교를 삶으로 실천할 때에만 온전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개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한 지대 밖으로 나가야 하고 경계선들을 넘어가야 한다.

75. 오늘날 개교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문화적·인종적 경계들을 넘어가도록 강조하고, 문화적 차이를 성령의 선물로 긍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민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들이 자신들을 새롭게 재발견하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은 지역 차원에서 문화 간 교회들(intercultural)과 다문화교회들(multicultural)을 창립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교회는 상이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시대에 상황에 알맞게 문화 간 선교를 표현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포용할 수 있다.

76. 개교회들은 또한 과거에는 결코 불가능했던 글로벌 연결 관계를 발전시킬

14) Christopher Duraisingh, ed., *Called to One Hope: The Gospel in Diverse Cultures*(Geneva: WCC, 1998), 54.

수 있다.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 사이에 영감(靈感) 있고 변혁적인 연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점점 대중화되는 단기 “선교여행”은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 가난한 지역 교회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현지 교회들을 전부 무시하는 경우가 발행하기도 한다. 그러한 여행들 도처에 위험과 염려가 있지만 다양한 문화적·사회경제적 상황에 노출되는 기회는 그 여행자가 자국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장기 사역을 결정하도록 인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지체 안에서 온 교회(the whole church)를 세우는 영적 은사들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고전 12-14장).

77. 정의를 옹호하는 일은 국회나 중앙 관청만의 특권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의 참여를 요구해야 하는 증언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WCC의 폭력 극복 10년(WCC Decade to Overcome Violence, 2001-2011)은 국제에큐메니칼평화회의(International Ecumenical Peace Convocation)에서 “교회들은 인권, 젠더 정의, 기후 정의, 일치와 평화를 해칠 수도 있고 진척시킬 수도 있는 일상의 선택들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¹⁵⁾는 탄원으로 결론을 맺었다. 지역 교회들이 일상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데 명분과 동기를 제공한다.

78. 교회는 각 지역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봉사(diakonia)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지닌 믿음과 희망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교회는 봉사를 통해 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봉사를 통해 하나님 선교에 참여한다. 교회는 봉사의 힘이 지배의 힘보다 우월함을 나타내고, 생명을 위한 가능성을 육성하며, 하나님 통치의 약속을 설명하는 봉사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변혁하는 은총을 증언하는 봉사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¹⁶⁾

15) *Glory to God and Peace on Earth: The Message of the International Ecumenical Peace Convocation*, WCC, Kingston, Jamaica, 17-25 May 2011, 2.

16) “Diakonia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heological Perspectives,” WCC Conference on Theology of Diakonia in the 21st Century, Colombo, Sri Lanka, 2-6 June 2012, 2.

79.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때, 자신의 외적인 특성이 전도로 나타나게 된다.

V. 오순절의 성령: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화로의 부름

80. 증언(martyria)은 온 세계 안에 있는 온 인류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는 구체적인 전도 형태를 취한다.¹⁷⁾ 증언의 목적은 세상의 구원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에 대해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부활의 중심성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하는 선교 활동이다. 그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과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81.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흘러넘치는 것이다.”¹⁸⁾ 오순절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행 2:4, 4:20). 전도는 선교의 서로 다른 차원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과 제자도를 향한 개인적 화심으로의 초대”¹⁹⁾를 포함하는 복음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성령은 어떤 사람들을 전도자로 부르시지만(엡 4:11),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설명하도록 부름받았다(벧전 3:15).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전도하도록 부름받았다(막 16:15, 벧전 2:9).

82. 오늘날 세계는 공동체를 치유하고 양육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종교적 정체성과 신념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개종(proselytism)이 전도를 실행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

17) *Minutes and Reports of the Fourth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WCC, Rolle, Switzerland, 1951, 66.

18) The Lausanne Movement, *The Cape Town Commitment*, 2010, Part I, 7(b).

19)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Doctrinal Note on Some Aspects of Evangelization*, No. 12, 2007, 489-504 참조.

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²⁰⁾ 성령은 사람들의 설교와 복음의 증언과 동역할 것을 선택하시지만(롬 10:14-15, 고후 4:2-6 참조), 새 삶을 창조하고 거듭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다(요 3:5-8, 살전 1:4-6). 우리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 수단이나 권력의 악용을 통해 “개종”을 강요했기 때문에 때때로 전도가 왜곡되었고 그 신뢰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 억압된 정체성을 가지고 비인간적 조건에서 살아가는 주변부화된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지배 집단들의 의도에 의해 강제 회심(conversions)에 대한 고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83. 전도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며,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고수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들을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눔은 신뢰와 겸손을 가지고 할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들과 복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혹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정직성에 대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대해 나누고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은 없다.

84. 전도는 회개, 믿음과 세례로 인도한다. 죄와 악과 대면하면서 진리를 듣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을 요구한다(요 4:28-29, 막 10:22 참조). 그것은 태도, 우선순위, 목표의 변화를 수반하는 회심을 촉발한다. 그 결과 전도는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 병든 자들의 치유, 억압당하는 자들과 온 창조세계의 해방을 가져온다.

85. “전도”는 선교의 서로 다른 차원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과 제자도를 향한 개인적 회심으로의 초대”를 포함하는 복음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²¹⁾ 서로 다른 교회들 안에는 성령께

20) *Towards Common Witness: A Call to Adopt Responsible Relationships in Mission and to Renounce Proselytism*, WCC Central Committee, 1997.

21) 모든 교회가 앞에서 표현한 대로 전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로마가톨릭교회는 “evangelization”을 *missio ad gentes*(mission to the peoples)로 언급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일반적인 목회활동

서 어떻게 우리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는지에 대해 다른 이해가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전도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인적 회심으로 이끄는 것에 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는 억압받는 사람과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기독교적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하나님 선교의 한 구성요소로 생각한다. 서로 다른 기독교 전통들은 선교와 전도의 측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leitourgia)가 증언(martyria), 봉사(diakonia), 코아노니아(koinonia)와 불가분리하게 연결되는 지역교회의 삶 속에 근거를 둔 전도를 이해하도록 성령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고 여전히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전도

86. 전도는 말과 행동으로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다. 언어적 선포 혹은 복음 설교(kerygma)를 통한 전도는 아주 성서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언어적 진술과 보이는 행동이 결합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목적을 증언하게 된다. 전도는 일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증명하고(요 13:34-35), 반면 분열은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전 1장).

87. 생명의 충만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의 동역(同役)을 받아 자신의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충성되고 겸손한 봉사의 본보기들이 역사 속에 있고 현재에도 있다. 또한 자신의 문화적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선교사로서 살며 사역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상호성과 존중을 가지고 일을 했다. 하나님의 성령 또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셨다.

88. 유감스럽게도 이따금 복음을 성육화하기보다 배반하는 방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선교란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긍정을 포함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고(막 10:45, 마

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 “new evangelization”은 기독교 신앙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목회적 전도를 뜻한다. *Doctrinal Note on Some Aspects of Evangelization* 참조.

25:45 참조) 착취나 어떤 형태의 미끼 사용도 없어야 한다.²²⁾ 어떤 모양의 기독교적 생활을 택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오늘의 개인주의적 상황에서, 전도를 마치 “상품”을 사고파는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만인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이 자본주의적 용어들 아래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절하신다. 성령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화심과 변혁을 일으키고 만인을 위한 생명의 충만함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신다.

89. 진정성 있는 전도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겸손과 존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화의 맥락에서 잘 이루어진다. 전도는 말씀과 행위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와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촉진시킨다. “연대 없는 전도는 없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메시지를 공유하지 않는 기독교 연대는 없다.”²³⁾ 그러므로 전도는 개인 간 관계성 및 공동체 관계성을 건설하도록 고무시킨다. 그러한 진정성 있는 관계성은 종종 지역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육성되고, 지역의 문화적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말뿐만이 아니라 현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진술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마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0. 서로 다른 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 사이에, 그리고 기독교 증언에 관한 다양한 해석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정성 있는 전도는 다음의 진술처럼 항상 생명을 긍정하는 가치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세계교회협의회, 교황청 종교 간 대화촉진평의회, 세계복음주의연맹의 공동성명서 <다종교 세계에서 기독교의 증언: 행동지침>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권력 남용을 포함하는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에 의해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과 억압을 거부한다.

- 보복이나 협박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없이 신앙을 준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정의와 평화와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의 선을 증진하는

22) World Council of Churches, 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World Evangelical Alliance,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 2011.

23) *The San Antonio Report*, 26, *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 §34, *Called to One Hope*, 38.

일에 서로 존중하며 연대한다.

-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 문화를 존중한다. 반면, 우리 자신의 문화 안에 가부장제도, 인종차별제도, 카스트 제도 등 복음에 의해 도전을 받아야 하는 요소를 분별한다.

- 거짓 증언을 포기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이해하기 위해 들어야 한다.
- 개인과 공동체가 결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 공동선을 위한 깊은 상호 이해,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종교인들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정립한다.²⁴⁾

91.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도전하는 개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다른 이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기만과 부정의와 억압을 일삼는 세력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전도는 또한 그 영향력의 범위만큼, 희망과 사랑 안에서 권력을 향해 진리를 말하는 것을 포함하는 예언자적 소명이다(행 26:25, 골 1:5, 엡 4:15). 복음은 해방적이고 변혁적이다. 복음선포는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창조해내려는 목적을 지닌 사회변혁을 포함해야 한다.

92. 악과 부정에 저항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때때로 억압과 폭력에 직면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고난과 박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진정성 있는 전도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신(빌 2:5-11)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연약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로마의 박해 아래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 된다. 예수는 그를 따르라는 부름과 영원한 구원을 그러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연결시키셨다(막 8:34-38).

전도, 종교 간의 대화와 그리스도인의 현존

93. 오늘날 세계의 다원성과 복잡성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다른 많은 종교와 이념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께서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을 긍정하는 모든 문화

²⁴⁾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 2011.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성령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다른 신앙 전통들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다양한 영성 안에 고유한 가치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진정성 있는 선교는 “다른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선교의 동반자로 만든다.

94. 대화는 생명을 긍정하고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공동의 삶과 목표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종교적 차원에서 대화란 우리보다 앞서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그들과 함께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때만 가능하다.²⁵⁾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계시기에(행 17장),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을 운반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재(先在)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대화는 양편의 각자가 개방적이고, 참을성 있고, 존중하는 태도로 모든 것을 테이블로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진솔한 만남을 제공한다.

95. 전도와 대화는 구분되지만 서로 관련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살아 있는 지식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전도가 대화의 목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화는 또한 “헌신된 자들의 상호 만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대화 안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는다. 더 나아가 진정성 있는 전도는 삶과 행동의 대화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대화의 정신” 즉 “존중과 우정의 태도”²⁶⁾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전도는 우리의 가장 깊은 확신을 선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 의해 도전을 받고 경험을 넓히는 것을 포함한다(행 10장).

96. 특히 서로 다른 신앙인들 사이에 대화는 다종교적 상황 안에서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 인구가 대다수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소수집단의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의 선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창 1:26)으로 창조되었다는 인간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와 신앙의 신봉자들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²⁷⁾

25) Baar Statement: Theological Perspectives on Plurality, WCC, 1990 참조.

26) PCID, Dialogue and Proclamation, 1991, §9.

27)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 2011.

전도와 문화

97. 복음은 특수한 문화적·정치적·종교적 실재에 참여함을 통해 여러 상황에 뿌리내린다. 복음이 그러한 여러 실재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곳의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적·상징적 삶의 세계를 존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어떻게 현존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미리 활동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복음은 더 넓은 상황에 참여하고 대화하면서 시작해야 한다.

98. 선교 역사에서 복음과 식민 세력들이 결합된 까닭에 서구 기독교를 표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충성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만들어졌다. 경제적 힘이나 문화적 패권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도는 복음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소유를 빼앗긴 사람들, 소수자들과 동역관계를 찾아야 하며, 그 약자들의 신학적 자원과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99.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개인의 유일성을 손상시킨다. 바벨(Babel)은 획일성을 강요했던 반면에 오순절에 제자들의 설교는 개인의 특수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손상되지 않고 존중되는 일치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

100.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보이시고,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 평화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 자신의 왕국, 우리 자신의 해방, 우리 자신의 독립(행 1:6)이라는 좁은 관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이나 제도가 아니라 모두에게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며,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빌 2:3-4 참조). 우리는 한 지배문화의 관점을 가지고 성서의 복잡성을 파악할 수 없다. 문화의 다원성은 우리의 믿음과 상호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성령의 선물이다. 가령, 다문화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문화 간(intercultural) 신앙 공동체는 문화가 진정성 있게 서로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문화가 복음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동시에 복음은 문화우월주의적 개념을 비판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자체로 진실해야 하고 사람들의 문화 속에 성육화(肉化)하거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복음이 특정 문화를 도전하는지, 승인하는지, 변혁하는지 더 잘 분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령의 통찰을 구해야 한

다.”²⁸⁾ 생명을 위하여.

VI. 생명의 잔치: 결론적 확인

101. 우리는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에, 특히 생명의 충만을 고대하는 억압과 고난의 사람들에게 복음선포의 선교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 증언인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눅 14:15)로 초대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는 그 연회를 준비하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 잔치는 풍요로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창조와 풍작에 대한 경축이다. 그것은 선교의 목적이 되는 온 창조세계의 해방과 화해의 징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교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이 성령서의 첫 부분에서 제기했던 질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02. 우리는 하나님 선교의 목적이 생명의 충만함(요 10:10)이며 그것이 선교를 분별하는 기준임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서, 특히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해방, 깨어진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그리고 온 창조세계가 회복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분별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우리는 여러 문화 안에서 생명을 긍정하는 영들을 분별하고, 생명을 긍정하고 보존하는 사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도록 도전받고 있다. 우리는 또한 죽음의 세력들과 생명 부정이 경험되는 곳에서 악령들을 분별하고 대적한다.

103. 우리는 선교가 하나님의 창조행위로부터 시작되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재창조 가운데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오순절에 불의 혀와 같이 부어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드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셨던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스타일로 이끄시며, 우리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신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시고 권능을 주사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신다. 우리는 구속받은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과 생명수를 나누며 온 창조를 치유하고, 화해시키

²⁸⁾ *Called to One Hope*, 21-22, 24.

고, 갱신하기 위하여 일치의 성령을 찾는다.

104. 우리는 영성이 선교적 활동력의 근원이며 성령 안에서 선교는 변혁적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영성과 창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의 관점을 재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예전과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선교 영성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와 더 넓은 창조세계를 재연결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고, 창조세계 안에 존재하고,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은 상호 변혁적이기 때문에 함께 엮여 있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창조와 함께 시작된 선교는 모든 차원에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경축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105.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교가 온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은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시 24:1).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 인간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보살피는 책임이 있다. 지속적인 자연파괴를 초래하는 과도한 탐욕과 무절제한 소비는 중지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구원이 온 창조세계의 갱신에서 분리된다고 선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하나님 선교는 모든 생명을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그것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위해 기도하지만 또한 지금 행동해야 한다. 선교는 창조세계를 그 중심에 품고 있다.

106. 우리는 오늘날 다방향적이고 많은 양상을 지닌 선교운동들이 지구 남반구와 동쪽으로부터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기독교의 지구 인구 비중이 남반구와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이 지역들의 상황, 문화, 영성에 근거한 선교학적 표현들을 탐구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상호 우애와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하고, 선교와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 상호 의존성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의 선교적 실천은 고난받는 사람들과의 연대 및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야 한다. 전도는 자기 비움의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또한 다른 문화와 신앙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또한 전도는 이 지형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와 모순되는 억압과 비인간화의 구조와 문화에 맞서는 것을 포함한다.

107. 우리는 주변부화된 사람들이 선교의 대리자이며 만유를 위한 생명의 충만을 강조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확인한다. 사회에서 주변부화된 사람

들은 하나님 선교의 주요 동역자들이다. 주변부화되고, 억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그들의 위험한 삶에 나쁜 소식인지를 구별하는 특별 재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살림 선교에 헌신하려면, 무엇이 생명을 긍정하는 것이고 무엇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주변부화된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한다. 우리는 주변부화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정의와 연대와 포용성은 주변으로부터의 선교를 표현하는 핵심 용어이다.

108.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가 모든 사람과 자연을 위한 사랑과 정의의 가치에 기초해 있으며, 변혁적 선교는 자유시장 경제 안에 있는 우상숭배에 저항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경제 지구화는 사실상 생명의 하나님을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신, 뎀몬으로 대체했다. 그것은 부당한 부의 축적과 번영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교는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비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대항 문화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선교는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과 자연에 불행과 고난을 가져오는 이러한 거짓 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는 탐욕의 경제를 규탄하고 사랑과 나눔과 정의의 신성한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10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좋은 소식이고, 사랑과 겸손의 성령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고 확인한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안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중심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전도는 제도가 아니라 늘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그리고 전도는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교회의 예언자적 소리는 들려야 할 그대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설득, 감동, 확신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방법을 갱신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110. 우리는 생명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선교와 전도에서 필수적이라고 확인한다. 진정성 있는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인간을 위하여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함으로 이루어진다. 폭력적인 수단, 경제적인 이익 제공 혹은 권력 남용을 통해 이루어진 개종은 복음의 메시지와 반대된다. 전도할 때에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존중과 신뢰 관계를 성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각각 혹은 모든(each and every)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며, 복음은 특정 단체에

의해 소유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 우리의 임무는 선교지로 하나님을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행 17:23-28). 성령과 연합한 우리는 생명을 향해 함께 일하기 위해서 문화적·종교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111.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 교회를 움직이시며 권능을 주심을 확인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수행할 때에 역동적이고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기독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 증언이 일어나게 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하면서 함께 여행하고, 사도들의 선교를 지속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이 사실은 실천적인 면에서 교회와 선교가 일치해야 하며, 서로 다른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생명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112.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요 10:10)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사 65:17)라고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을 확증하시는 성령을 통해 온 창조물을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신다. 우리는 겸손과 소망 가운데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증언

점차 다양해지는 다종교 세계질서에서의 신앙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가? 교황청 종교 간 대화촉진평의회(PCID),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세계교회협의회(WCC)로부터 나온 이 역사적 공동 성명서는 2011년 6월에 나왔다. 그것은 종교 간의 공존, 긴장과 갈등, 선교 행위뿐만 아니라 종교 간 경쟁의 무대에서 모든 기독교의 행위를 인도해야 하는 포괄적 원리를 보여준다.

서언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세계에 증언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인 것이다. 동시에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서로 다른 종교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과 기독교의 증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인식하고 있는 교황청 종교 간 대화촉진평의회(PCID)와 WCC와 WCC의 초대를 받은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언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 그리고 그 증언과 관련하여 행동을 위한 일련의 권고안으로서 도움이 되는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 5년간 모임을 가졌다. 이 문서의 의도는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을 하려는 데 있지 않고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증언과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다.

이 문서의 목적은 교회들과 교회협의회들과 선교단체들이 그들의 현재의 실천을 숙고하도록 고무하는 데 있고 또한 이 문서의 권고안들을 사용하여 적절한 곳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특정 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증언과 선교를 위한 그들 자신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증언할 때 그들 자신의 실천의 빛에서 이 문서를 연구하기를 희망한다.

기독교 증언을 위한 기초

1.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친절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고 기쁨이다(벧전 3:15 참조).

2.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증언이다(요 18:37 참조). 기독교의 증언은 언제나 그분의 증언을 나누는 것이며 그 증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이웃에 대한 봉사, 그 행위가 십자가로 인도할지라도 전적인 자기 증여의 형태를 취한다.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들을 보내셨듯이 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기 위한 선교 안으로 보냄을 받는다.

3.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교회의 가르침과 모범은 기독교 선교를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해왔다(눅 4:16-20 참조).

4. 다원적인 세계에서 기독교의 증언은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행 17:22-28 참조).

5.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방해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금지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언에서 서로 연대하여 계속 신실할 것을 그리스도에 의해 위임받고 있다(마 28:19-20, 막 16:14-18, 눅 24:44-48, 요 20:21, 행전 1:8 참조).

6.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와 강제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선교 수행의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들은 복음을 배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 출발은 회개를 요청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롬 3:23 참조).

7.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지만 회심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요 16:7-9, 행전 10:44-47 참조). 그들은 성령은 어떤 인간도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요 3:8 참조).

원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위임을 특별히 다종교의 상황 속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완수하려고 할 때 다음의 원리를 고수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동하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원천 이시고 따라서 그들의 증언에 있어서 자신들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마 22:34-40, 요 14:15 참조).

2.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삶의 모든 면에서, 특히 그들의 증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즉 그의 사랑을 나누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요 20:21-23).

3. 기독교의 덕.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거만, 오만, 비난을 극복하고 신실함, 자애심, 긍휼히 여김, 겸손함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갈 5:22 참조).

4. 봉사와 정의의 행위.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미 6:8 참조). 더 나아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할 때 형제와 자매들의 가장 작은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마 25:45 참조). 교육, 건강관리, 구제봉사, 정의와 옹호 행위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봉사의 행위는 복음 증거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가난과 결핍 상황의 착취는 그리스도인의 봉사활동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봉사행위에서 금전적인 동기와 보상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유혹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고 삼가야 한다.

5. 치유사역에서의 분별. 복음 증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치유사역을 실행한다. 이 사역을 수행하게 될 때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치유 필요성을 악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분별력을 훈련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6. 폭력의 거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증언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심지어 힘의 남용을 포함하여 심리학적이거나 사회적인 폭력조차 거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예배 장소, 거룩한 상징이나 원문에 대한 침해나 파괴를 포함하여 어떤 종교적 권위나 세속적 권위에 의한 폭력, 불의한 차별 또는 억압을 거부한다.

7. **종교와 신앙의 자유.** 공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고 보급하고 변화시킬 권리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있는 인간의 바로 그 존엄성으로부터 나온다(창 1:26 참조).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어떤 종교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화되거나 종교 박해가 일어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위를 거부하는 예언자적 증언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8. **상호 존중과 연대성.**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데 전념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정의, 평화, 공동선을 함께 촉진시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종교 간 협력은 그런 헌신의 본질적 차원이다.

9.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문화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부요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복음이 문화의 어떤 측면에 도전을 할 때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들 자신의 문화 속에서 복음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요소를 분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10. **거짓 증언 거부하기.**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실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기 위하여 경청해야 하며 그들 속에 있는 참되고 선한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도록 격려를 받는다. 어떤 의견이나 비평적 접근은 상호 존중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종교들에 대한 거짓된 증언은 확실히 하지 말아야 한다.

11. **개인적인 분별 확실하게 하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종교를 바꾸는 것이 개인의 충분한 자유를 보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적당한 숙고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동반해야 하는 결정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12. **종교 간 관계 수립하기.**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선을 위한 보다 깊은 상호 이해와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계속 수립해야 한다.

권고사항

WEA와의 협력 속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교파들(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복음주의, 오순절)이 참석하는 가운데 WCC와 PCID에 의해 조직된 제3차 회의는 교회들, 국가적·지역적 고백단체들, 선교단체들, 특히 간종교적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숙고하는 데 필요한 이 문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에큐메니칼 협력의 정신으로 행동해오면서 이 단체들이 다음과 같이 하기를 권고한다.

1. 제3차 회의는 이 단체들이 이 문서에서 다루어진 이슈들을 연구하고 경우에 따라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기독교 증언에 관한 행동지침을 공식화하기를 권고한다. 가능한 경우 이것은 에큐메니칼적으로,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대표들과의 협의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2. 제3차 회의는 이 단체들이 특히 교회들과 다른 종교 공동체 사이의 제도적 차원에서 모든 종교인과 함께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그들의 기독교적 헌신의 일부로서 진행 중인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기를 권고한다. 오랫동안의 긴장과 갈등이 공동체 사이와 그 가운데서 깊은 의심과 신뢰 파기를 만들어 냈던 어떤 상황에서는 종교 간 대화가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기억을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제3차 회의는 이 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그들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그 종교 지지자들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의 신앙과 실천을 거짓되게 설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제3차 회의는 이 단체들이 정의와 공동선을 향한 종교 간 옹호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종교 공동체와 협력할 것과 가능한 한 갈등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결속할 것을 권고한다.

5. 제3차 회의는 이 단체들이 그들의 정부에게 종교의 자유는 적절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기를 권고하며 많은 나라들에서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권고한다.

6. 제3차 회의는 이 단체들이 그들의 이웃들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기도란 그리스도의 사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권고한다.

부록: 문서의 배경

1. 오늘날의 세계에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점증하는 협력과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들 간의 점증하는 협력이 있다. PCID와 종교 간 대화와 협력에 관한 WCC의 프로그램(WCC-IRDC)은 그런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PCID/WCC-IRDC가 과거에 협력했던 주제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종교 간 결론”(1994-1997), “아프리카의 종교성”(2000-2004). 이 문서는 그들의 공동 사역의 결과이다.

2. 오늘날의 세계에는 폭력과 인간 생명의 상실을 포함하여 점증하는 종교 간 긴장이 있다. 정치, 경제와 다른 요소들은 이 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때때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박해를 받는 사람들로서든 폭력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든 이 긴장 속에 연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PCID와 WCC-IRDC는 기독교적 증언의 행동을 위한 공유된 권고사항을 만들기 위한 공동과정에 포함된 문제들을 다루기로 결심했다. WCC-IRDC는 WEA가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했고 그들은 기쁘게 그렇게 했다.

3. 처음으로 두 개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6년 5월 이탈리아 라리아노에서 열린 첫 회의는 “현실 평가”라는 제목으로 열렸는데 거기서 상이한 종교의 대표자들은 대화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경험을 나누었다. 그 회의에서 나온 진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에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종교적 감수성을 침해함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 이외의 다른 신앙들을 존중해야 하는 양도할 수 없는 책임감을 부과하며 동시에 우리 신앙의 우월성을 지지할 목적으로 다른 신앙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잘못 설명하지 않을 양도할 수 없는 책임감을 부과한다.”

4. 두 번째 기독교 간 회의는 동일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해 2007년 8월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개최되었다. 가족과 공동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경제, 마케팅과 경쟁, 폭력과 정치에 관한 문제들이 철저하게 토의되었다. 이 주제들에 관련된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이슈들은 신학적 성찰의 배경이 되었고 이 문서에서 발전된 원

리의 배경이 되었다. 각 이슈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이 권고사항에서 주어질 수 있는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하다.

5. 제3차 (기독교 간) 회의의 참석자들은 2011년 1월 25-28일에 태국 방콕에서 만나서 이 문서를 완성하고 6월에 출판하였다.

모두의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경제: 행동 촉구 요청

WCC는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WCC 제9차 총회에 보고된 아가페 부름(AGAPE Call)으로 마무리된 “인간과 생태를 중시하는 대안적 지구화”, 즉 아가페 과정(AGAPE process)의 후속으로 빈곤과 부와 생태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빈곤을 극복하고 부의 축재에 도전하여 생태적 온전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빈곤, 부, 생태(PWE) 프로그램은 종교, 경제, 정치 지도자들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왔다. 전 세계의 에큐메니칼 지도자들, 교회 대표와 지도자들, 그리고 이웃 종교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 사회단체 등 세계의 여러 대륙과 나라의 대표들이 이 대화과정에 참여해왔다. 대륙별 연구 모임과 협의회가 연이어 열렸는데 2007년에는 다르 에 살람(Dar es Salaam)에서 아프리카협의회, 2008년에는 과테말라 시에서 남미와 카리브해협의회, 2009년에는 치앙마이에서 아시아태평양협의회, 2010년에는 부다페스트에서 유럽협의회, 2011년에는 칼가리에서 북미협의회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글로벌 포럼과 아가페 축연을 개최함으로써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여기 이제 제안하는 행동 촉구의 요청은 빈곤과 부, 그리고 생태를 연결하는 6년간의 지역 협의회와 연구회의 결과물이다.

서언

1. 이 행동 촉구의 요청(Call to Action)은 이런 요청의 필요가 절박한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의 낭비적 부의 축재에 반해 다수의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가난해지는 데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경제적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세계적 금융 위기, 사회경제적 위기, 생태 위기, 기후 위기 등이 중첩되면서 인간과 생태는 심각한 위험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대륙별로 개최된 협의회에 참가해온 우리는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때로는 서로 상반된, 심지어 서로 대립적 시각조차 나타내기

도 했다. 그러나 만약 이기주의, 민감하지 못한 외면,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탐욕의 죄악을 우리가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의 삶은 그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우리 안에 서서히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런 긴박감 속에서 그동안 서로 나누어온 의견을 종합해 교회 앞에 행동 촉구의 요청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 긴급성은 우리의 깊은 희망과 확신에서 나온다. 생명의 경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형성되고 있다—그리고 바로 그 기반에 하나님의 정의가 자리하고 있다.

생명의 신학적·영적 확인

2. 우리의 성서적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낳은 생명망의 일부분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창 1장)고 선언하셨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온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 의지의 표현이며 땅에서 생명을 가져오고 다시 땅으로 생명을 가져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집(Oikos)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지속시킨다. 하나님의 집의 경제는 모두를 위해 풍성한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함께 짜여져 있다고 인식하는 “땅은 생명이다”(MacIling Dulag)라는 원주민들의 생각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온 피조물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는 것과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다(고전 15:28)는 우리의 믿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3.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영적 교훈들은 “좋은 삶”이란 결코 소유를 위해 경쟁한다든가, 재산을 축적한다든가, 우리 자신만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아성을 구축한다든가, 우리의 힘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약 3:13-18)에 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좋은 삶”(키추아[Kichua]어로 수막 카우사이[Sumak Kausay], 서파푸아[West Papu]어로 와니암비 아 토바티 엔그로스[Waniambi a Tobati Engros]라는 개념)이란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에서 그 전형이 잘 나타나듯이 상호성, 서로 나누는 동반자 정신, 호혜성, 정의, 사랑의 친절임을 천명한다.

4. 피조물의 탄식과 가난한 자들의 애통함(렘 14:2-7)은 현재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생태적 긴급상황이 풍성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는 얼마나 적대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경고해주고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공동체는 해체되고 관계는 깨어지고 있다. 우리의 탐욕과 자기중심적 사고는 인간과 지구를 모두 위협하게 한다.

5. 우리는 이제 죽음을 야기하는 일에서 떠나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metanoia)에 헌신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탐욕과 이기주의의 죄악으로부터 떠나 이웃과 온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 선교의 동반자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시작하도록 인간들을 부르신다. 예언자들의 부름은 현재의 경제구조에 의해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그들을 통하여 오늘에 새롭게 들리고 있다. 정의를 행하고 새 땅을 존재하게 하라!

6. 정의를 향한 우리의 비전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고(마 21:12), 약한 자는 강하게 하고 강한 자는 약하게 하시는(고전 1:25-28), 가난과 부에 대한 관점을 재규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는 주변부로 내몰리고 제외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화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비로부터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삶이 구조악을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언하고 여성이나 어린이,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서든지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 인종차별로 억압당하는 사람들, 장애우들, 불가촉천민(dalits), 강제 이주 노동자들, 난민들, 종교적 소수자들처럼 구조와 문화로 피폐되고 상처받은 민중의 삶과 투쟁에 우리가 함께하도록 부르고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5:40).

7. 우리는 우리를 이웃과 다시 연결하고 (우분투와 상생) 우리에게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모든 형태의 주변부화에 저항해 쫓겨나도록 용기를 부여하고, 전 지구를 구하기 위한 길을 추구하고, 생명 죽음의 가치에 저항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는 “변혁적 영성”(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을 구현해야 한다. 이 영성은 필요에 따라(행 4:35) 나누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게 생각하는

은총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8. 교회는 오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기억하고, 경청하고,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변혁되도록 부름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치유와 화해의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바, 즉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받고 있다.(아프리카의 가난, 부, 생태) 그러므로 교회는 변혁을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이다. 교회는 어떤 생명 부정에도 항거하며 모두를 위한 풍성한 생명을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다.

중첩되고 긴박한 위기

9. 현재의 삭막한 지구 현실은 죽음과 파괴로 너무나도 무거워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개발 패러다임이 급진적으로 변혁되고 정의와 지속성이 경제와 사회, 그리고 생태를 위한 견인차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10.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중의 고통과 그들의 삶을 위한 투쟁을 양산하고 있는 세계금융 위기, 사회경제적 위기, 기후 위기, 생태 위기의 치명적으로 뒤얽힌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엄청난 시장자유화, 탈규제화, 상품과 서비스업의 고삐 풀린 민영화들이 전 생태계를 착취하며, 사회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해체하고, 경제의 국경을 열어 생산을 외형적으로 무제한 성장시키게 될 것이다. 규제되지 않는 금융자본의 유동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금융 위기, 외채 위기 등의 다양한 면들이 서로 결합되어 이 위기들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 위기들은 더는 따로 떼어서 다룰 수 없다.

11. 기후변화와 온 창조세계의 보전에 대한 위협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여러 가지 위협에 중대한 도전이 되었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작은 도서 국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깨끗한 물의 이용성을 감소시키며 지구의 생태 다양성을 격감시킬 것이다. 이것은 식량안보, 사람들의 건강, 점점 증가하는 인구가 살 주거에 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

의 생명은 불과 수십 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될 것이다. 미증유의 기후변화의 도전은 자연자원의 무제한적 착취와 함께 진행되게 되어 있고 이는 지구의 파괴로 이어지며 생태환경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파괴는 점점 생사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12. 우리의 세계는 오늘날보다 더 변명한 때가 없었으며 동시에 오늘날보다 더 불평등한 때도 없었다. 불평등은 우리가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해 있다. 사람들은 빈곤 속으로 몰리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리도록 내몰리고 변화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이전보다 훨씬 더 긴급하며 분명한 어조로 탄식한다. 지구 공동체는 부의 분배에서 전대미문의 치명적인 불평등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정의를 행할 필요를 인식해야 한다.

13. 탐욕과 불의, 불로소득의 추구, 불의한 기득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적을 희생시키며 얻는 단기 수익의 혜택이 중첩된 위기의 원인이며 이제 이것들은 더는 간과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생명 죽음의 가치가 슬며시 우리 속으로 스며들어와 오늘의 구조를 지배하게 되고 지구의 재생 가능한 한계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생명권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삶의 양식으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위기들은 아주 심오한 도덕적·실존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앞에 닥친 도전은 더는 기술적이고 금융적 위기가 아닌, 윤리적·영적 위기인 셈이다.

14. 시장근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유형을 넘어서 어떤 것으로 사회적·도덕적 철학의 문제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고삐 풀린 경쟁과 삶의 모든 면들을 계산화하고 가격화하는 데서 나타난 대로 거의 신앙에 가까운 시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과 공적 의견과 언론과 심지어 교육까지도 압도하게 되었다. 이 패권적 양태가 이미 부유한 계층에게로 부를 집중하게 하도록 했고 그들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엄청나게 약탈하도록 허용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유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그것이 특히 이미 가난해지고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파장을 미치도록 양산하는 혼돈상황을 다룰 수 없다.

15. 이 이념은 모든 삶의 측면에 침투하여 가족의 삶이나 지역 공동체의 삶 속으로 확산되어 외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을 파괴하면서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삶의 형태와 문화를 황폐화시키고 지구의 미래를 망쳐놓는다. 이 패권적 지구

경제구조는 우리가 알듯이 이런 방식으로 생명과 그들의 평화적 공존의 조건 양쪽 모두에 종말을 고하도록 위협한다.

16. 사회적 공익은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일반적인 신념은 오해이다. 통제 없는 경제성장은 기후변화, 벌목, 대양 산성화, 생태 다양성 실종 등 우리의 생태환경의 흐름을 교살한다. 생태계의 공적 할당은 군사 목적의 사용이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독점적) 사용으로 퇴화하고 도용되었다. 무방비 상태의 채무를 대가로 자행되는 과소비는 대량의 사회적·생태적 채무를 양산시키는데 자연에게 지는 생태 채무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양산시키듯이 이 채무는 대부분 지구 북반부에 의해 지구 남반부로 부과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다. 주의 것(시 24:1, 고전 10:26)이라는 관념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정의의 원천

17. 우리는 교회와 교인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삶의 양식과 소비적 삶에 참여하고 탐욕의 경제에 얽히게 되면 결국 불의한 구조에 관련된 공범자가 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교회들이 변영의 신학, 자기 의, 지배, 개인주의, 편의성에 대해 계속 가르치고 있다. 어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의 신학보다는 자선신학을 지지한다. 또 다른 교회는 무한성장이나 무한축재에 대한 제도나 이념에 대해 문제를 삼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생태파괴의 현실이나 세계화의 희생자들의 곤경을 외면하기도 한다. 어떤 교회나 교인은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희생시키고 단기적이고 양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생산, 소비, 투기행위를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는 반면 변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위한 그들의 노력을 경주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수도 세계 곳곳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8.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두를 위한 생명의 약속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헌신하는 교회와 운동에서 이런 부활 소망의 증거를 본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다. 우리는 교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혁의 예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생명경제를 건설하고 생태를

꽃피우는 일을 촉진하는 여성운동, 가난 속에서 사는 민중들, 청년들, 장애우들의 운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 감명을 받고 있다.

19. 그리스도인이든, 무슬림이든, 필리핀의 토착부족 지도자 등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 자신들이 속한 땅과 지속적으로 관련 짓고 그 땅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교회들은 외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 광산업과 지하자원 채취 회사들에게 인권침해와 환경 손실에 대해 책임지라고 도전하고 있다. 남미와 유럽의 교회들은 세계화의 서로 다른 경험을 나누며 함께 공동의 책임이면서도 또 각각의 책임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연대감을 높이고 전략적 동맹을 맺으며 함께 일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지표를 설정하고 대탐욕 투쟁에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불교인들이나 무슬림들과 국제적 대화를 진행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는 교회들은 생명농업을 촉진하고 연대 경제를 이룩하면서 새로운 국제 금융, 경제 기구의 기준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한다.

20. 여성들은 경제를 사회와, 사회를 경제와 깊이 관련시키는 여성경제와 더불어 가부장적 지배제도에 도전하는 여성신학을 발전시켜 왔다. 청년들은 검소한 생활과 대안적 삶의 양식을 위한 캠페인의 선두에 서 있다. 원주민들은 사회, 생태 채무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지구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통전적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헌신과 부름

21. WCC 제10차 총회는 하나님의 전 창조세계의 역동적 생명력이 부의 창조를 위한 인간의 수단에 의해 소멸될 수도 있는 때에 열리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변혁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다. 변혁은 희생과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변혁적 교회가 되고 변혁적 교인이 되도록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의와 지속성의 영성을 증언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용기를 계발해야 하며 모두를 위한 생명경제를 위한 예언운동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동원하고 필요한 자원(기금, 시간, 능력 등)의 제공, 경제구조와 생산, 분배, 소비형태, 문화, 그리고 가치 등을 변혁하기 위

해 한 단계 발전된 더욱 조직적이고 잘 조정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필요로 한다.

22. 변혁의 과정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의 온 창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증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개인과 국가이익을 넘어서 미래 세대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변혁은 가난 속에 있는 민중이나 여성, 원주민, 장애우와 같이 구조적 소외로 인해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생명의 사회적·생태적 구조를 파괴시키는 지배구조와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변혁은 전 피조물을 치유하고 갱신하는 선교의 일환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23. 그러므로 우리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총회로 하여금 모두를 위한 생명경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에큐메니칼 협력을 강화하며 더 큰 응집을 위해 교회를 불러모으는 일에 WCC가 역할을 하는 데 헌신하기를 촉구한다. 특별히 신국제금융경제기구(<정의로운 금융과 생명을 위한 경제에 관한 WCC 성명서>)의 창설과 부의 축적과 조직적 탐욕에 대해 도전하고(<탐욕선연구회 보고서>), 생태채무를 교정하고 생태정의를 발전시키는(<생태정의와 생태책임에 관한 WCC 성명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하고 향후 더 심화되도록 해야 한다.

24.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제10차 부산 총회가 지금부터 차기 총회까지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교회가 “모두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삶을 사는 생명경제’에 신앙적 헌신을 하는 데 집중하도록 독려하기를 요청한다. 이 과정은 교회들로 하여금 서로에게서 용기와 희망을 끌어내게 하고 일치를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의 바로 핵심에 놓여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공동 증언을 하게 할 것이다.

25. “정의로운 금융과 생명경제”에 대한 성명서는 정직,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 상호 책임, 생태의 지속성 등과 같은 공동 가치의 구조 속에 기초를 둔 윤리적이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제금융기구의 창립을 요청했다(<정의로운 금융과 생명경제에 관한 WCC 성명서>). 우리는 삶에 영향을 끼치고 정당한 삶과 가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사회적 재생산과 여성에 의해 먼저 이루어지는 돌봄의 일을 지원하고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공기, 물, 땅,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보존하는 모든 결정 과정에 모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생명경제를

빛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아시아·태평양에서의 빈곤, 부, 그리고 생태). 생명 경제의 실현에는 꼭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적인 자기 성찰, 급진적인 영적 갱신, 권리에 근거한 접근 등이 필요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소리가 가능한 한 많은 영역에서 들려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극대화하며, 지구 북반부와 지구 남반부 간, 교회와 시민사회, 국가 책임자, 각 분야와 세계 종교인 간의 대화의 장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존엄성 속에 살 수 있는 삶을 부정하는 구조와 문화들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저항할 수 있는 협력작용을 일으키며 세무정의를 세우고 공동 증언과 변호를 위한 더 넓은 장을 조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26. 이 과정은 어떻게 변혁적인 영성이 생명 파괴의 가치와 마주하여 저항하며 탐욕의 경제 속에 있는 공모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교회들이 서로서로, 그리고 다른 종교 전통에게서, 더 나아가서 사회운동에게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점점 키워나갈 때 그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 그것은 생명경제가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성찰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것은 빈곤 극복과 부의 재분배, 친생태적 생산과 소비, 분배, 건강하고 공정하고 후기 화석 연료, 평화를 사랑하는 사회로 이끄는 정책과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공동 캠페인과 옹호활동을 국가적·대륙적·지구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나눔의 식탁으로 오라!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으로 오라!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으로 오라!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눅 1:79).

서언

이 선언은 일차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된 목소리이다. 나사렛 예수님의 모범에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평화의 길에 헌신하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평화의 약속이 모든 종교가 전하는 핵심 가치를 깨닫는다. 이 가치는 각자의 종교 전통과 헌신에 따라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된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는 이 선언을 채택하고 연구, 성찰, 협력, 공동 행동에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선언은 2006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WCC 총회 권고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발표된 것이며, “폭력 극복 10년 2001-10: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에큐메니컬 운동과정에서 얻은 통찰에 기초한다.

정의로운 평화는 윤리적 실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한다. 이것은 분석 방법과 행동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 선언은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며 교회의 생명과 증언에 몇 가지 의미를 제시한다. 이 선언의 원본 문서인 <정의로운 평화 동행>은 더 발전된 성서적·신학적·윤리적 성찰, 추가적인 탐구를 위한 제안, 훌륭한 실천 사례를 제공한다. 2011년 5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에큐메니컬평화회의(IEPC)에서 제기된 약속과 함께, 이 자료들이 다가오는 WCC 총회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에큐메니칼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정의는 평화를 포용한다. 평화 없이 정의가 가능할까? 정의 없이 평화가 가능할까? 흔히 우리는 평화를 포기하고 정의를 추구하거나 반대로 정의를 희생하고 평화를 추구한다. 평화를 정의와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시 85:10)라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가 없거나 서로 상반될 때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일어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2. 사람들이 말하게 하라. 폭력, 인간 존엄의 침해, 창조세계의 파괴로 물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모든 귀가 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느 곳도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충격으로 계속 휘청거리고 있다. 민족적·종교적 증오, 인종과 신분제에 기초한 차별은 국가의 모습을 손상시키고 흉한 상처를 남긴다. 수천 명이 죽고, 추방되고, 집을 잃고, 고국의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난다. 여성과 아이들은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많은 여성이 폭행당하고, 팔려가고, 살해당한다. 아이들은 부모와 헤어지고, 고아가 되고, 병사로 끌려가고, 학대당한다. 일부 국가의 시민들은 점령군, 불법무장단체, 게릴라, 범죄조직, 정부군에 의해 폭력을 당한다. 많은 국가의 시민들은 국가안보와 무력에 집착하는 정부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안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매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지만 권력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유리하게 경제적·정치적 결정을 내린다.

3. 성서가 말하게 하라. 성서는 정의를 평화와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씀한다.(사 32:17, 약 3:18) 정의와 평화는 인간 사회의 의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 인간과 지구의 필수적인 연결, 창조세계의 ‘평강’과 통합을 나타낸다. 평화는 오늘날 깨어진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삶과 교훈,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약속이자 현실 곧 미래의 희망이자 지금 여기에 주어진 선물로 이해한다.

4.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평화는 산상수훈(마 5:3-11)의 정신으로 표현되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분은 적극적인 비폭력을 확고하게 견지하셨다. 정의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분의 삶은 고문과 처형

의 도구인 십자가 위에서 끝난다.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와 같은 확고한 사랑, 순종, 믿음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진리이다.

5. 용서, 인간 존엄, 관대, 일상적인 삶에서의 약자에 대한 돌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비록 희미하다고 해도 평화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불의, 가난, 질병, 무력분쟁, 폭력, 전쟁이 인간의 몸과 영혼, 사회, 지구를 손상시킬 때 평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6. 그러나 일부 성서 본문에서는 폭력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한다. 이런 구절에 기초하여 일부 기독교 교파들은 자신과 타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했고, 지금도 계속 정당화한다. 우리는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를 주목하지 않고는 더는 그런 구절을 읽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폭력, 증오, 편견에 대해 말하거나 다른 민족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분노를 언급하는 성서구절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성서구절을 통해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목적과 계획, 증오, 열정, 습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한다.

7. 교회가 말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장소로 부름을 받는다. 여러 방식, 특히 유월절 축제를 비롯한 성례전 전통은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세계와 평화를 나누라고 요청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흔히 교회는 이러한 요청을, 삶을 통해 보여주지 못한다. 평화를 건설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신뢰를 여러 측면에서 약화시키는 기독교의 불일치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마음과 지성의 회개를 요청한다. 오직 하나님의 평화에 기초할 때에만 신앙 공동체는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구조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에서 정의, 평화, 화해를 실천하는 자”(WCC 총회, 1998)가 될 수 있다.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평화의 삶을 살 때, 예수가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 위의 동네가 된다.(마 5:14)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맡겨주신 화해 사역을 수행하는 신자들은 교회의 범위를 넘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참여한다.(고후 5:18)

정의로운 평화의 길로

8. 여러 방법으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평화의 구현자로 선포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오늘날의 폭력과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실현하라는 요청에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의 길에 동참한다. 이 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운동과 이 여정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양한 세계관과 종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목표를 숙고하고 그들이 걷고 있는 여정을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정의로운 평화는 우리에게 삶을 통해 증언하라고 요청한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인종, 신분제도, 성, 성적 취향, 문화, 종교를 이유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비롯하여 개인적·구조적 폭력과 대중매체에 의한 폭력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응답하고, 선조들의 지혜와 성자들의 증언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인 '미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우리의 아이들은 마땅히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누려야 한다.

9. 비폭력 저항은 정의로운 평화의 길의 중심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조직적이고 평화로운 저항을 통해 정부의 억압과 학대나 취약한 공동체와 창조세계를 착취하는 사업 방식에 맞서 적극적이고, 끈질기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강자들의 힘은 시민과 군인,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복종과 순응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폭력 전략에는 시민불복종과 불순응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10. 정의로운 평화의 길에 서면 무장폭력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점차 타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교회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달라 싸웠다. 그러나 정의로운 평화의 길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전쟁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힘을 기울여 민족과 국가들 사이에 정의와 평화로운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정의로운 평화의 길은 '정당 전쟁'(Just War)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불의한 무력 사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정의, 법의 지배, 인권 존중, 공동의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포함한다.

11. 언어와 지성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를 집단적이고 역동적이면서도 현실에 기반을 둔 과정으로서 그 목표는 인간을 두려움과 결핍에서 해방시키고, 증오·차별·억압을 극복하고, 특별히 가장 약한 자들의 경험을 중시하고 창조세계의 통합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관계를 만드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여정대로 살기

12. 정의로운 평화는 인간과 모든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여정이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평강의길로 인도하시리로다”(눅 1:79)라는 말씀을 신뢰한다.

13. 여정은 힘들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며 진실을 직시해야 함을 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기만하고 폭력에 연루되는지를 깨닫는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합리화를 포기하고 정의의 실천 속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베풀고, 받으며, 서로 화해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14. 폭력과 전쟁의 죄는 공동체를 깊이 분열시킨다. 적대자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악마로 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깊이 다루고 치유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지원과 동행이 필요하다. 적대자와 화해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이다. 화해의 과정에서 유력한 자와 무력한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바뀐다.

15. 평화 협정은 흔히 쉽게 깨지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 않다. 평화가 선포되는 곳이 여전히 증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전쟁과 폭력의 상처를 복구하는 것은 그것을 유발한 갈등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을 따라 평화의 삶을 사는 것은 비록 불완전하다고 해도 미래의 더 위대한 일에 대한 약속이 된다.

16.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 평화와 관련하여 분열된 교회, 갈등으로 찢

어진 교회는 평화를 위한 증인 또는 일꾼으로서 거의 신뢰를 주지 못한다. 평화를 위해 일하고 증거하는 교회의 능력은 민족적·국가적 정체성, 심지어 교리와 교회 조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서 비롯된다.

17.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여행한다. 아울러 용서와 원수에 대한 사랑, 적극적인 비폭력, 타인에 대한 존중, 온유, 자비를 포함하는 평화의 윤리와 실천을 공유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연대와 공동선을 위해 삶을 내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기도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분별력과 성령의 열매를 간구한다.

18. 이 여정을 함께 걸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약자의 짐을 들어준다.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의 증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궁핍한 사람에게 관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많은 비극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갈 용기를 발견한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폭력과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과 집단의 엄청난 죄, 분노, 고통, 증오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기억이 치유되고 짐이 벗어지고, 깊은 정신적 상처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 공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19. 이 여정은 매력적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듣는다. 그들은 교회 내 다양한 영역, 다른 종교 공동체, 일반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종, 종교, 국가, 계층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거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거나, 힘든 화해사역을 감당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는 평화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20. 우리는 이웃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현재의 자기 모습을 옹호하는 데서 관대하고 열린 삶으로 바뀌가는 법을 배운다. 우리의 발걸음은 평화를 만든다. 우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공통적인 인간성을 확인한다. 타인은 더는 이방인이나 적대자가 아니라 동료 인간이다. 우리는 이 여정을 그들과 함께 걸어간다.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21. 정의로운 평화와 갈등 전환. 갈등 전환은 평화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갈등 전환은 폭력과 숨겨진 갈등을 드러내어 피해자와 공동체가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갈등 전환의 목표는 적대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서 눈을 돌려 공동선을 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표면적인 평화를 허물고, 구조적인 폭력을 드러내거나 보복 없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교회와 종교 공동체의 과제는 폭력의 피해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옹호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갈등을 관리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공권력과 가해자들—심지어 교회 내의 가해자들도—이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도 포함된다. ‘법의 지배’는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의 핵심적인 틀이다.

22. 정의로운 평화와 무력 사용. 하지만 폭력의 한가운데 그리고 폭력적인 갈등의 위협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종종 시험을 받게 마련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이자 더 작은 필요악으로서 합법적인 무력 사용은 임박한 치명적 위협에 노출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때에도 우리는 갈등 상황 속에서 일어난 무력 사용을 심각한 실패의 표지이며 정의로운 평화의 길에 대한 새로운 장애물로 인식한다.

23. 국제법의 제한 안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엔헌장의 정신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유엔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나아가 군사력 사용의 모든 신학적이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정당화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전쟁’ 개념에 의존하는 것과 이런 개념의 관습적인 사용을 낡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낀다.

24. 우리는 이런 확신 속에 내재된 도덕적 딜레마를 인정한다. 이런 딜레마는 정당전쟁 전통에서 발전된 기준이 합법적인 무력 사용 윤리를 위한 틀로 이용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해소된다. 예를 들어, 이 윤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경찰활동’, ‘보호책임’에 관한 국제법의 새로운 개념의 등장, 유엔헌장이 중시하는 평화 건설 메커

니즘에 대한 선의의 실천을 고려할 수 있다.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평화와 법에 의한 국제적 지배에 현저하게 상반되는 많은 것들이 범주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되어야 하며, 먼저 대량살상무기의 소유와 사용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의 공통적인 삶은 평화를 만들고 건설하기 위한 생각, 행동, 법률의 일치를 요청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윤리적 담론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비폭력적인 갈등 전환을 실천하고, 평화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촉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25. 정의로운 평화와 인간 존엄.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존엄과 권리라는 축복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존엄과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정의로운 평화를 이해하는 데 중심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이 인간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제법적 수단임을 확신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국가가 법의 지배를 보장하고,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 침해가 많은 사회, 전쟁, 평화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본다. 아울러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타종교에 속한 사람을 비롯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법에 의한 국제사회 지배를 강화하려는 시민사회의 모든 동반자에게 우정과 협력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26. 정의로운 평화와 창조세계에 대한 보살핌. 하나님은 만물을 좋게 만드셨고, 인간에게 그것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다(창 2:4하-9). 자연에 대한 착취와 유한한 자원의 오용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대가로 일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폭력의 유형을 보여준다. 우리는 모든 창조세계가 인간의 폭력적인 행동을 비롯한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며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롬 8:22).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무대책으로 창조세계와 모든 생명체를 훼손한 죄를 인정한다. 정의로운 평화의 비전은 공동체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훨씬 넘어선다. 이 비전은 인간에게 지구를 우리 집처럼 돌보라고 강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구 자원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7. 평화의 문화 만들기. 우리는 타종교 전통과 신앙고백,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런 헌신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폭력을 거부하고 가난한 자,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

억압받는 자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라는 복음의 명령에 응답하려고 노력한다(마 5:1-12, 눅 4:18). 이러한 집단적인 노력은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인, 지도자와 실무자의 은사를 활용한다. 우리는 여성들의 평화를 만드는 은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의 특별한 역할, 사회적 영향력, 종교적 지혜와 통찰의 해방시키는 능력이 평화와 인간 존중을 촉진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아울러 종교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힘을 남용하거나 문화적·종교적 유형이 폭력과 억압에 기여해온 사례에 대해 개탄한다. 우리는 종교의 외피를 쓰고 전파되고 대중매체의 힘에 의해 증폭되는 공격적인 언어 표현과 가르침을 특히 우려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편견과 그 외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공모했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화해, 용납,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28. **평화교육.** 평화의 비전을 꿈꾸는 교육은 평화활동 전략을 가르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정, 교회, 사회를 포함하는 심오한 영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평화의 정신을 키우고,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불어넣고, 폭력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고 채택하게 만든다. 평화교육은 다양한 전통과 문화에서 실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변화를 만드는 탁월한 힘으로서의 적극적인 비폭력을 증진한다. 인격교육과 양심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평화를 찾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정의로운 평화를 함께 찾고 추구하기

29. 평화를 향한 기독교적 순례는 평화를 추구하는 가시적·비가시적 공동체를 만들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돈을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을 돌보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교회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교회가 평화를 위해 일치된 모습으로 일할 때, 교회의 증언은 더욱 신뢰가 높아진다(요 17:21).

—지역 사회의 평화—

그리하여 모두가 두려움 없이 살리라(미 4:4)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6:8, 눅 10:27, 마 5:44)

30. 세계적인 도전. 아주 많은 지역 사회가 경제적 계층, 인종, 피부색, 신분제도, 종교, 성에 의해 분열되어 있다. 가정과 학교에는 폭력과 학대가 만연하다. 여성과 아이들은 신체적·심리적·관습적으로 학대를 당한다. 마약과 알코올 남용과 자살은 대규모적인 자기 파괴 형태이다. 직장과 예배 장소가 지역 사회의 갈등으로 손상 당한다. 선입견과 인종주의는 인간 존엄을 부정한다.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기업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소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전통이 상업적인 영향과 외부에서 들어온 생활방식 때문에 약화된다. 대중매체, 게임, 오락물은 폭력, 전쟁, 음란물을 확산시켜 공동체의 가치관을 왜곡하고 파괴적 행동을 부추긴다. 폭력이 발생하면 청년들은 보통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여성과 아이들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

31. 기본 방향. 교회들은 평화 문화의 건설자로서 참여하고 협력하고 서로에게서 배운다. 개인, 가족, 교구, 공동체가 참여한다. 과제로는 갈등을 방지하고 바꾸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며, 갈등 해결과 평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며, 정의와 인권을 위한 비폭력 운동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모든 계획에서 여성을 포함시키고, 교회와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적절하게 실행한다. 평화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발생하는 곳에서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회, 다른 종교 공동체, 지역 사회 단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중오락매체, 게임, 음악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관습적 폭력도 포함된다. 평화 문화는 모든 사람,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무장폭력으로부터 보호될 때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가 지역사회에서 금지되고 제거될 때, 그리고 가정폭력이 해결되어 중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32.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평화를 위한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중들은 하나가 되어 교회생활 안에서 폭력에 대한 침묵 문화를 깨고 지역 공동체의 폭력에 맞서 관습적 불화를 극복해야 한다.

—지구와의 평화—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셨고, 인간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죄가 사람들 사이와 창조질서 사이의 관계를 깼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과 정의와 사랑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창 2:1-3, 요 10:10, 롬 8:20-22).

33. 세계적인 도전. 인간은 창조세계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차원의 탐욕, 이기심, 무한한 성장에 대한 신념 때문에 지구와 창조세계를 착취하고 파괴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울음이 지구의 신음소리와 함께 들려온다. 화석연료와 그 외 제한적인 자원의 과도한 소비는 사람들과 지구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방식 때문에 초래된 기후변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위협한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가뭄과 홍수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는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원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생활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산호섬과 가난한 해변 마을의 거주자들과 더불어 그들은 지구온난화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쳤는 데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

34. 기본 방향.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창조세계를 돌보고, 생태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의로운 평화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칙은 자연 자원의 남용을 회개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복음의 요청이다. 교회와 회중은 지구의 자원, 특히 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5. 전 세계교회 회중과 교구민들은 자신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지구 전체가 번영할 수 있는 방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각 지역마다 '생태지향적 교회'와 '녹색'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협정이나 협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세계적 차원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 지구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과 미래 세대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장의 평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기 위하여

이 세계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세대의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풍성한 자원을 가졌고, 이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계층, 성, 종교, 인종, 민족에 상관없이 충만하고 존엄한 삶을 사는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시 24:1, 145:15, 사 65:17-23).

36. 세계적인 도전. 전 세계 소수의 엘리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1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극빈자로 산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의 부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48개 국가의 국내총생산량보다 더 많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비효율적인 규제, 혁신적이지만 비도덕적인 금융 수단, 왜곡된 보상 구조 그리고 탐욕에 의해 악화된 그 외 다른 구조적인 요인들이 세계금융 위기를 유발하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수천 만 명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는 시장 중심적인 경제자유화정책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견해와 모든 사회가 성장 추구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과소비와 경제적 박탈감은 일종의 폭력이다. 세계 군비지출액—냉전시대보다 더 많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개선시키기는커녕 더 위태롭게 만든다. 무기는 인간에 대한 주요한 위협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위협을 해결하는 데 지출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사용한다. 이런 불일치는 전 세계 인류 공동체의 정의, 사회적 통합, 공공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37. 기본 방향. 시장의 평화는 '생명경제'(economies of life)를 통해 촉진된다. 생명경제의 필수적인 기초는 공평한 사회경제적 관계, 노동자 권리에 대한 존중, 자원의 공정한 공유와 지속 가능한 사용,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식량, 경제적 의사 결정에 대한 폭넓은 참여이다.

38. 교회와 사회의 협력 기관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교회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재분배를 고려하는 성장, 공정한 세금, 공정한 무역, 깨끗한 물과 공기, 기타 공동재(common goods)의 보편적 공급, 규제 제도와 정책은 금융을 경제생산뿐만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생태

계의 지속 가능성에 다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군비 지출의 대폭 축소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음식과 주택, 교육, 보건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책에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인간과 생태계의 안전이 국가안전보다 경제적 우선순위가 더 높아야 한다.

—민족 간의 평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며,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평한 판결을 받는 국가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고 더는 전쟁 연습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출 20:17, 사 2:1-4, 마 5:44).

39. 세계적인 도전. 인류 역사의 진보는 용기 있게 평화를 추구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무력의 사용을 통제하는 법률—새로운 기준—조약에 의한 지배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최고위 인사들을 포함한 권력 남용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의지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도덕적·정치적 반대자들—외국인 혐오, 공동체 간 폭력, 증오 범죄, 전쟁 범죄, 노예제, 인종학살 등을 포함한다—에 의해 얼룩져 있다. 폭력의 정신과 논리가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해도, 그런 죄의 결과는 최근 역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과학, 기술, 경제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증폭되고 있다.

40. 오늘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에큐메니컬 과제가 훨씬 더 긴급해진 이유는 이러한 위협의 성격과 범위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과 그 토대를 파괴하는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게 커진 것을 목격하고 있다. 위협의 규모, 그 위협에 대한 인간의 집단적인 책임, 일치된 지구적 대응의 필요성은 과거의 선례가 없다. 막대한 두 가지 위협—핵무기에 의한 대학살과 기후변화—은 많은 인명과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모든 전망을 파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창조세계에 내재된 에너지를 폭력적으로 오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무기,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서 발생한다. 후자는 ‘대량멸종을 유발하는 생활방식’의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두 가지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

41. 기본 방침. 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람들 간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상호 책임과 갈등 해결에 관한 조약이나 기구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치명적인 갈등이나 대량살상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병기와 전쟁 무기의 확산을 중단시키거나 줄여나가야 한다. 교회는 다른 종교 공동체나 다른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국가의 전쟁 능력을 줄이고, 인간과 지구를 전례없는 위험에 빠뜨리는 무기를 제거하고 전쟁 제도를 비합법화해야 한다.

42.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갈망한다. 우리의 고향은 지금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생명은 억누를 수 없는 것이지만 아직 평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은 비록 주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승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안하고 깨어진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 건설은 선포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위로하고, 화해하고, 치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비판하고, 고발하고, 옹호하고, 저항해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찬성하며, 무너뜨리고 세우며, 한탄하고 축하하며, 애통해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의 사역은 확실한 은혜를 드러내는 명멸하는 빛으로서 계속될 것이다.

21세기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신학적인 전망

2012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WCC 소속의 “정의와 디아코니아”, “정의와 양성평등 공동체”, 그리고 “선교와 복음전도” 등 세 프로그램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회의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디아코니아—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봉사—의 뜻과 실천이 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구를 통해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의 사회적·경제적·종교적 상황변화가 거대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파악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할지를 재평가하려는 것이다.

이 신학적인 묵상 자료는 구체적 상황과 경험에 기초한 귀납법적인 추론을 의도하고 있다. 25여 개국에서 다양한 디아코니아 사업들에 열중하고 있는 50명의 참여자들은 변두리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중에 생겨난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주었지만, 몇몇 난처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들은 21세기의 디아코니아에 관하여 공부하려면 바로 이어서 언급할 몇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라는 오늘날의 지배체제에서 비롯되는 불의의 제도화, 기후변화의 현실과 그 영향력, 온갖 전쟁과 갈등 및 이로부터 비롯되는 파괴와 정신적 외상, 그리고 깨뜨려진 관계들, 여러 종교들과 민족들의 공격적인 주장에 기인한 공동체 붕괴, 취약 계층을 향한 탈취 행위와 추방,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 및 장애인들과 노년층을 향한 폭력, 영양 부족과 질병 및 면역결핍 바이러스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들과 원주민들, 아프리카 출신 공동체, 남아시아의 천민들, 다양한 이유들로 차별을 겪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현실.

오랜 전쟁과 갈등으로 폐허가 된 스리랑카는 치유와 희망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애쓰는 나라로서, 이번 회의의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회들의 증거를 대표하고 있는 스리랑카교회협의회가 주도하는 것이다. 그곳의 교회들은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공적인 참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변두리 소규모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제각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유와 화해를 향한 증거에 있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회의는 디아코니아를 다음에 상술하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장점들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이 회의는 디아코니아를 계속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첫째가는 과제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교회들이 배타적이거나 내향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세상에 참여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었다. 이 회의는 또한 디아코니아를 제도적인 형식들 안에서 바라보고 추구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에 응답함과 아울러, 그러한 형식들이 허용하는 도전에만 응답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둘째로, 이 회의는 디아코니아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교회의 디아코니아 수혜자들이나 대상들—취약한 변두리 공동체—로 간주되던 자들의 시점에서 새롭게 생각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신학적인 이유들에서만 아니라 자원에 초점을 맞춘 디아코니아의 형식들보다는 사람들에게 기초한 디아코니아의 형식들—그들의 열망에서 비롯된—을 더 찾아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아코니아를 오늘의 세계에서 재규정할 때 그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번 회의는 또한 생색내는 간섭으로부터 촉매적인 동반으로의 가능한 변화를 암시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로, 현재의 많은 디아코니아 모델들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반구에 자리한 교회들의 견해와 선호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번 회의는 삶의 양식이 현저하게 다른 지구촌 남반구의 시각에서 볼 때 디아코니아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탐구하고 싶어 했다. 첨언하자면, 북반구보다는 남반구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이 소수 공동체로 나누어져 있으며, 종종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두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심각한 생존경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남반구 선호 경향은 지구촌 북반구가 이와 동일한 도전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은 디아코니아와 그것의 반향에 있어서 북

반구 교회들이 공헌한 바를 무시하고자 하려는 것도 아니다. 남반구 교회들을 향한 이러한 선택은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것이다. 남반구 교회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삶의 표현과 기독교적인 표현을 염두에 두고서 말이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인간과 지구의 운명, 지구의 미래 등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생겨나는 복잡한 질문들 중의 일부에 답하려는 노력에서 말이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시각에서 살펴본 주제에 관한 생각을 요약한 것이다.

교회와 선교, 그리고 디아코니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1. 하나님의 선교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더는 우는 소리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이 젊어서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 것이요, 수고의 열매를 즐길 것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재난으로 죽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맹수들이 변할 것이다”(사 65:17-25). “새 하늘과 새 땅”(계 21:1)을 향한 이러한 종말론적인 희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끊임없이 현재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며, 지금 모든 곳에서 그러한 희망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초청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는 역동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탱하는 사람들과 힘을 포괄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세례를 통하여 부름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의 존재 자체와 선포와 봉사를 통하여 이러한 선교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봉사로 이해되는 디아코니아는 공동체로서의 신앙과 희망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식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말이다.

3. 자신의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증거한다. 자신의 디아코니아 안에서 교회는 섬기려고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셨던 주님—스스로 종이 되어 오신—의 길(막 10:45)을 따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지배 권력에 맞서 봉사의 힘을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은 존재이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생명이 가능해지도록 말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다가올 통치의 한 표지로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통치로 이끄는 길, 곧 그리스도의 길의 한 표지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4. 교회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과 그보다 더 넓은 지역 모두를 포괄하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기독교적인 증거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 이 점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모든 표현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예배와 선포, 환대와 고난의 실천(히 13:1-3), 공적인 증거와 주장. “예전 후의 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믿음이 경축하는 것에 의하여 힘을 얻게 되는 디아코니아는 보살핌과 구제와 봉사 등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압제적인 체제와 구조들에 담겨 있는 불의의 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가지 한다.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심이야말로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죽음을 초래하는 제국의 권력에 맞서서 말이다.

5. 온갖 지정학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로서,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증거하되 하나님 통치의 약속을 드러내는 봉사의 실천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모든 관계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위한 동역자 의식을 고양시켜준다. 삶과 정의와 평화 등의 온갖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디아코니아는 일치의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하며, 그 자체로서 일치를 위한 도구로 이해될 필요도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한 가지 표현으로서의 디아코니아는 온갖 지엽적인 관심사들과 종교적인 증식의 차원을 넘어선다.

6. 디아코니아의 보다 확대된 제도적인 표현 중 일부는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자원 개발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위하여, 그리고 취약민들의 정의와 경제 발전의 명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확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형식이나 다른 전통적인 형식 중 일부가 하부구조와 제도, 전문기술, 자원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을 디아코니아의 후원자나 수익자로, 그리고 드물게는 디아코니아에 참여하는 자들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전문화된 사역들이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과제를 디아코

니아적인 것으로 대체해주는 것은 아니다.

7. 하나님의 다가올 통치의 희망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디아코니아는 역동적이고 상황적이며 다원적이다. 그것의 표지들은 혼란 중에 겪는 모든 희망의 경험에서, 사람들과 관계들을 치유하고 고양시켜주는 행동에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확증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발견된다. 디아코니아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또는 보다 큰 교회 구조들의 차원에서, 그리고 회중과 특별한 사역 및 지방과 지역과 국가의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와 인간 존엄성 등의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물망 속에서 동역자 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변두리 사람들을 위한 디아코니아

“건축자가 버린 돌이…”(시 118:22, 행 4:11).

8. 많은 사람들에게 디아코니아는 궁핍과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으로 이해되며, 자원과 하부구조를 가진 힘과 특권의 자리를 떠나 그들에게 이르는 행동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이해는 종종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디아코니아의 대상이나 수령인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많은 박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숭선 행동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해는 변두리 사람들의 디아코니아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단순히 디아코니아의 대상이나 수령인으로만 취급하였다. 디아코니아의 일부 형식은 존중히 여기는 태도나 잠재력에 대한 인식 또는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의식 등이 없이 추구되기도 하였다.

9. 약한 자들과 취약민들을 섬기려는 의도로 시작된 일부 디아코니아 사업들은 수년 동안 사회의 특권층과 부유층에게 봉사의 도구로 여겨졌다. 불행하게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일부 기독교교육 시설들과 보건 시설들의 활동 목표가 된 적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윤 추구와 소비주의에 초점을 맞춘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 역시 전통적인 섬김의 구조가 경제적인 활동과 이익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섬김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 의하여 무기력하게 된 자들에게 나아가는 일은 일부 교회들에게 더는 우선적인 과제가 아

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다른 디아코니아 사역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디아코니아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사역을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된다. 교회들이 그동안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길로부터 이탈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은 교회의 신뢰성 회복과 순전함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절박한 것이다.

10. 변두리 사람들은 비록 많은 교회들이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할 수 있는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삶과 일상적인 저항운동을 통하여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죄악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세상이 자신의 죄악 연루 상황과 침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변두리 사람들을 선호하시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요, 온정주의적인 자비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사회 변화의 급박한 필요성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11. 세계는 변두리를 불명예와 무기력함의 자리로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성서의 증언은 불의하게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리는 자들의 투쟁에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압제와 그로 인한 상실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피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해방을 향한 그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으로써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출 3:7-8).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보증하기도 하는 해방의 디아코니아이다.

12.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 이 비판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러한 선교를 위하여 마련하신 중요한 출발 지점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디아코니아가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 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디아코니아라고 선포하신다(눅 4:16상). 예수께서는 자신이 잃은 자들과 작은 자들을 찾으러 왔음을 계속 강조하심으로써, 끊임없이 그 시대의 변두리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계셨다. 그의 디아코니아는 권력 남용을 거부하며(눅 4:1-12), 지배적인 힘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거부하며(막 10:45), 압제적인 종교 전통들에 맞선다(눅 11:37-54). 도리어 그의

디아코니아는 자기 삶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선택한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마침내는 그를 십자가로 이끌기는 했지만 말이다(이를테면 한쪽 손 마른 사람, 막 3:1-6).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 그는 사람들을 변두리로 몰아내는 세력을 폭로하며 그 세력에 맞서신다. 이 점에서 변두리 지역은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의 위한, 그리고 약함과 저항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었고, 악한 영들의 통치가 분쇄되었으며, 변두리 사람들의 존엄성이 보호받았고, 제자들은 삶을 긍정하는 목회적 가치로 무장할 수 있었다.

13. 뿐만 아니라 변두리 사람들은 항상 궁핍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리고 생명과 정의와 존엄성 및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의 권리 등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불의와 압제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낸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자들은 공감과 협력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아프리카 후손 공동체와 인도의 불가촉천민, 그리고 차별당하는 다른 공동체는 교회들과 공동체에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인간화하는 문화와 관행에 맞서서 그것들을 극복할 것을 요청한다. 원주민들은 그들의 삶과 땅이 위협당할 때조차도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가치를 옹호한다. 불행한 처지에 놓인 젊은이들은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빼앗는 정책들에 맞선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이주 노동자들은 인권과 존엄성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국익(國益)이라는 명분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는 정치체제에 도전한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 구석구석에서 두루두루 발견된다. 지구촌 남반구에서도, 지구촌 북반구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에서, 그리고 해방과 변화를 향한 행동과 연대 속에서 디아코니아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교회적 자기 발견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기에 변두리 사람들의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곧 세계를 위한 대안적인 비전의 성취에 참여해야 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4.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변두리 사람들의 언어는 사람들을 체제와 구조의 희생물로 규정하거나 그러한 희생물로 격하시키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그러한 구조의 파괴적이고 비인간화시키는 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처한 현실의 비극적인 효과를 지적할 뿐만 아

나라 세계의 변화를 위한 변두리 사람들의 요구와 합법적인 권리와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사람들이 물건과 소모품으로 취급되고 성과 인종과 피부색과 계급과 나이와 장애와 성적인 지향성과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위치 등과 같은 정체성 때문에 차별당하는 세계에서, 디아코니아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우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확인시켜 주며 특정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문화와 관행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15. 변두리 사람들은 존엄성과 정의에 기초한 삶을 향한 열망을 통하여,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정의와 존엄성과 생명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목표로 하는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의 강한 도전이 되지만, 디아코니아의 실천과 신학적인 반성에 관한 전통적인 모델들을 새로운 포괄주의와 공유 및 변혁 행동 등의 양식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돕는 약속의 의미를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도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 시대의 변두리 사람들 중에 속해 있음을 발견하셨다. 세계 전역에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 회중은 몇 가지 요인 때문에 대부분 가난하거나 변두리에 처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더욱 확실한 초교파적 참여를 위한 기회와 수단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 변두리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과 연대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의 신뢰성을 보증해줄 것이다.

변화를 위한 디아코니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미 6:8).

16. 그러기에 디아코니아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경축하게 만드는 봉사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서 지금 항상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실재하는 것이 되도록 사람들과 상황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 실제로 변화를 가능케 하는 믿음이다.

17. 성서의 하나님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시며 이끄신다. 특히 그들 자신의 삶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서의 디아코니아는 사람들과 체제와 문화를 변화시키려

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들의 정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다. 예수께서도 불의한 체제와 관행에 도전하셨으며,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득을 얻는 강자와 특권층에게 회개하고서 사랑과 나눔과 신실함과 겸손 등의 가치로 변화될 것을 촉구하셨다.

18. 디아코니아는 희생자들의 상처를 싸매주거나 공황의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랑과 보살핌의 표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표현은 고통과 상실을 초래하는 세력과 요인에 맞서서 그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디아코니아 사역은 이렇듯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엡 6:12)에 맞서는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그것은 희생시키는 자뿐만 아니라 희생자까지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급진적인 투쟁의 영성을 의미하며, 죄악스런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헌신을 뜻함과 아울러, 그러한 구조에 의하여 희생된 자들의 해방을 위한 헌신을 뜻하기도 한다. 변화를 위한 활동이 없다면 디아코니아는 단순한 봉사의 표현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압제와 착취를 행하는 세력의 이익에 교묘하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들의 상호 협력관계를 덮어버림으로써 말이다. 만일에 디아코니아가 불의와 권력 남용에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을 만한 디아코니아가 되기를 중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9. 디아코니아는 또한 피상적인 평화와 친절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디아코니아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렘 6:14)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분노에 공감함으로써, 종종 불의하고 압제적인 현실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강한 자들과 특권층의 그러한 시도를 폭로한다. 예언적인 행동을 뜻하기도 하는 디아코니아는 그러한 세력에게 진리를 말하는 행동을 포함하기도 한다.

20. 오늘날의 세계에서 디아코니아는 불의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맞서는 정치적인 행동을 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인간 개발보다는 자기 방어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 정치에 이익을 제기하며, 박탈당하고 내쫓긴 자들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반이주법에 반대하고, 땅과 사람들을 파괴하는 개발정책에 반대하며,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 의하여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21.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가부장제, 인종차별, 계급제도, 외국인 혐오증 등과

그 외의 다른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관행 등의 압제적인 문화를 해체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인 행동을 뜻할 수도 있다. 교회들은 이러한 문화가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회개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와 신학적인 작업에 대해서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

22.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악에 저항하거나 맞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간에 관계를 맺거나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디아코니아는 변혁적인 것이다(롬 12:2).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누룩으로 부르셨다(마 5:13-14). 달리 말해서 변화와 변혁을 이루어야 할 자들로 부르신 것이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디아코니아는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대안적인 가치와 세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제국의 권력에 저항하였다.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궁핍에 처한 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를 이루려는 창조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도전과 기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사 43:19)

23. 21세기의 세계 정세는 각종 도전에 더하여 세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와 존엄성과 생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교회들이 많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디아코니아를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놓여 있다. 교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새롭게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무수한 다른 기회와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보다 진전된 생각과 행동을 위하여, 이번 회의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바 있는 다음의 통찰력 있는 제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지역 교회의 디아코니아

1.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디아코니아 공동체로 존재하는 곳에서 그들의

삶이 처해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라. 기독교교육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2. 예배와 선포를 통하여 디아코니아의 신학적인 중요성을 깨닫고 확증하는 일에 힘쓰라.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일에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장이 될 필요가 있다.
3.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수준에 맞춘 행동을 적극 시도하라.
4.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안의 여성들을 향한 학대와 폭력의 현실에 분명하게 응답하라.
5. 사람들에게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에 맞서도록 교육함으로써, 희생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라.
6. 솔직하고 정의롭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 교회들은 차별 없는 공간, 그리고 안전과 희망의 성소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상담, 탈중독 프로그램, 교육과 취업의 기회, 성적 감수성 등의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수용 능력을 키우도록 하라.
8. 각각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 다른 신앙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도적인 행동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b. 보다 큰 교회 집단들의 디아코니아

1. 지역 교회들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문제에 응답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들과 동행하도록 하라.
2.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도시와 농촌, 부자와 빈자, 정착민과 이주민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연대감과 상호 책임의 표현을 격려하라.
3. 교회 안에 있는 차별과 배척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되, 안팎에서 그러한 문제를 종결 짓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라.
4. 후천성면역결핍증, 장애, 가난, 식품 안전, 환경 청지기 등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5. 인권, 정의, 변두리 공동체의 권리 등의 대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예언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인정하고 강화시켜주고 지원하도록 하라.

6. 일반 대중에 기초한 능동적 행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에 속한 교회 및 조직과 협력관계를 세우도록 하라.
7. 신학 기관들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곳에서 디아코니아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격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디아코니아 실습을 위한 심화 연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라.
8.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디아코니아 관련 성서 연구 자료들을 개발하라.
9. 다른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디아코니아 사역에 참여하라.

c. WCC 및 이와 유사한 국제기구들의 디아코니아

1. 디아코니아를 교회의 본질적인 표현으로 인식하라. 그리고 그러한 기구들의 우선적인 소명이 교회들을 위하여 일정한 디아코니아 사역을 시도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주도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인식하라. 이것은 능력 개발, 협력관계 증진, 자원 동력화 등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말이다.
2. 사람들과 공동체 및 회중들과 함께 인종차별과 인간 소외에 맞서 투쟁하도록 하라.
3. 정의와 존엄성과 평화 등의 대의명분을 옹호하고, 이유 없는 공격과 추방과 강탈 등에 희생된 자들을 옹호하도록 하라.
4. 변화를 위한 일반 대중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도록 하라. 그러한 활동 중 일부는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가시성과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5. 다양한 교회 협력의 양식들을 격려하고 상호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인 디아코니아 기구와의 대화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라.
6. 다양한 상황에서의 창조적인 디아코니아 참여를 위한 신학적인 지원의 교환 교류를 가능케 하는 자원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교류과정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라.
7. 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상호 연대의 힘이 크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라.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그러한 상호 연대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육성

하도록 하라.

24.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디아코니아는 때때로 현상 유지에 연연하는 세력과의 대결을 포함할 수도 있다. 때로는 사랑과 겸손과 용기와 헌신의 태도를 필요로 하는 위험이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도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직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임을 강조하신다(마 16:24). 따라서 교회들은 섬김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의 길에서 봉사의 사명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를 격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위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13-16).

신학교육에 대한 에큐메니칼 서약

변화하는 세계 기독교 지평에서의 리더십 훈련양성

공동 선언문은 2012년 3월 14-17일 보세이 에큐메니칼연구소에서 열린 회의 중에 ETE 분과모임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것은 2012년 8월 WCC 회원 교회와의 대화와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부산 총회 준비 과정에서 지역 신학교 연합과의 대화를 위하여 WCC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추천되었다. 이 선언문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를 위한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신학교육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맥락에서 교회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 신학교육을 위한 에큐메니칼 헌신의 유산

에큐메니칼 리더십 양성과 신학교육에 대한 관심은 초기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고, 전 세계 기독교 교회의 선교적 참여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왔다. 이른 초기부터 교육 향상에 대한 관심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선교의 핵심적 특징이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의 많은 교육구조와 제도는 기독교 선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선구적 작업이 있었기에 존재한다. 선교사 훈련과 신학교육을 확고하게 에큐메니칼 운동의 의제로 채택한 것은 바로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였다. 1910년 에든버러는 이미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 과거와 미래에 기독교 선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신학교육의 전략적 중요성
- 학문적 수준에서 철저하게 향상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수해야 할 과목이 확대되어야 하는 선교사의 훈련에 있어 상당한 질적 향상의 요구
- 신학교육과 다른 교단과 선교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심적인 선교 대학

의 설립 추진에 있어서 교단 노선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이동의 요구

- 자국어로 하는 신학 및 기독교교육으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성

선교사 훈련기관과 목회자 양성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메시지를 번역하려는 정열과 열정이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국제선교협의회(IMC)의 지속적인 헌신 때문이었다.¹⁾ WCC가 1948년에 설립 되었을 때, 암스테르담 창립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이곳 암스테르담에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이 WCC를 설립하는 데 서로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WCC 미래의 모든 것을 위한 이 서약문이 신학교육과 교회의 목회자 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포함한다고 단언한다. 네 개의 다른 기구들이 WCC 회원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야기하는 에큐메니칼 리더십 형성, 기독교교육, 그리고 신학적 훈련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런던에 있는 IMC 신학교육기금(Theological Education Fund, 1958-1976)은 남반구 교회의 신학교육 역량을 높이고 강화하며 신학교육의 현장화(contextualization)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100명 이상의 선교 동역자들을 불러모았다. TEF는 남반구 신학교육기관의 교과과정 혁신과 에큐메니칼 신학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작업에 일조했던 PTE와 ETE의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WCC에 통합되었고, 프로그램과 출판물, 프로젝트 보조금을 통하여 전 세계 1,200개 이상의 신학교와 신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 주일학교운동과 학교들 안에서 기독교교육 프로그램의 개념 이해와 에큐메니칼 협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1년에 WCC에 통합된 세계기독교교육협의회(WCCE)의 모태인 세계주일학교협회(World Sunday School Association)

- 특별 허가된 에큐메니칼 대회와 연구 센터로 봉사하기 위하여 1946년 WCC보다 그 이전에 설립되어, 그 이후 3,000여 명의 신학생들을 위한 에큐메니칼 훈련양

1) 역사적 상세 내용은 다음을 보라. Christina Lienemann, Training for Relevant Ministry, 1996 and Dietrich Werner, Promoting Ecumenical Theological Education in World Christianity? an unfinished agenda, in: <http://www.oikoumene.org/en/news/news-management/eng/a/article/1634/promoting-theological-edu.html>

성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는 보세이 에큐메니칼연구소

- 60년 이상 젊은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신학적·비신학적 연구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 WCC 장학금 프로그램

TEF와 WCCE의 전통과 정관 명령을 통합한 후에 WCC는 21세기의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맞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추구해오면서 에큐메니칼 훈련양성, 기독교교육, 그리고 목회자 양성을 위한 작업 유산을 계속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제도적인 의무에 집중해왔다. WCC의 각 프로그램은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을 위한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사는 교회 역시 공동 행동, 세계적인 일관성,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WCC의 가시적이고 분명한 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도 생략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고서 어떻게 이것이 제도적으로 성취되며 프로그램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지와 WCC의 이 일에 대한 적절한 협력과 후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가 부산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관심사이다.

II.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위한 신학교육의 전략적 역할

2010년 에든버러 대회 기간 중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은 다시금 세계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신학교육의 전략적 역할을 확인했다.²⁾ 2010 에든버러 신학교육분과 토의를 위한 준비 연구 모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하였다. ‘

“몇 가지 주요한 발전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남반구 교회들의 독자적인 신학교육 기관이 생긴 일과 다원화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신학교육의 토착화와 맥락화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주요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시에 신학교육의 영역에서 신규 도전들이 오늘날 기독교 선교를 위한 신학교육의 적절성 및 접근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100년 전보다 더 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도전도 더러 있다. 따라서 교회의 친교 속에서 신학교육을 증진

2) Dietrich Werner, David Esterline, Namsoon Kang, Joshva Raja, eds., “Handbook on Theological Education in World Christianity”, Regnum Publishers 2010을 보라.

시키는 데 있어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연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시켜야 할 긴박함이 있다. 일부에서는 신학교육의 새로운 글로벌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으며 21세기의 다음 수십 년 동안 바로 세계 기독교의 통합과 미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³⁾

따라서 “신학교육의 진흥을 위한 관심은 세계선교(그리고 에큐메니칼)운동 안에서 협력과 공동 증인의 최우선 영역이었고 최우선 영역으로 남아야만 한다. …기독교회의 세계적 친교를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맥락적으로 적절한 신학교육의 틀을 제공하는 과업은 결코 성취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21세기 초에 우리는 세계 기독교 전망의 급격한 변화가 야기한 거대한 도전, 위기 징후와 신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긴급성과 증가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⁴⁾는 것은 공동의 확신이 되어왔다.

중앙위원회는 WCC 회원 교회에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명령 및 의무의 하나로서 신학교육을 지원(석사 이상의 높은 학위뿐만 아니라 학부에 관하여)해야 한다. 적합한, 그리고 양질의 신학교육 시스템이 없는 교회는 스스로 축소되거나 기독교의 종교적 근본주의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다. 제대로 개발된 신학교육을 갖고 있는 교회는 전체적인 기독교 선교에 대한 깊은 헌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수준과 도전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그것들을 능가하는 데 적격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신학교육을 지배하거나 축소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신학교육 기관에 대하여 명확한 소유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⁵⁾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확신으로 신학교육에 관한 세계 연구 보고서를 마쳤다. “신학교육은 교회의 갱신, 교회사역과 선교,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교회일치를 위한 헌신의 모판이다. 만약 신학교육 시스템이 무시되거나 교회 리더십, 신학적 반성 및 자급에 마땅한 중요성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결과는 즉시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10-20년 후 매우 확실하게 교회 리더십, 교회 선교의 전체적 특성,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대화의 수용,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대화 수용이라는 신학적 능

3) World Study Report on Theological Education 2010, WCC-EET 54.

4) World Study Report on Theological Education 18.

5) World Study Report 2010, 27.

력의 관점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미래 세대의 목회자와 교회 사역자에게 에큐메니칼 기억과 비전을 전승하는 일이 현재 그 연속성을 결코 확신하지 못하는 많은 WCC 회원 교회에 가장 우선하는 필요이다.”⁶⁾

III. 신학교육의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

WCC의 기초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WCC는 성서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임과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라서, 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공동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회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신학교육의 관심은 WCC 헌법에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특정 문화적 맥락에 뿌리를 둔 공동체의 삶의 비전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세계적인 의식의 성장을 고취시키는 것”(WCC 헌장 III)이 WCC의 주요 목적과 기능 중 하나로 정의된다. 처음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독교교육의 이해에 일반적으로 심오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미래 목회자와 성직자를 위한 목회 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만일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하나 됨과 여러 다른 교단의 교회들과 고백 전통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시적인 일치를 향상시키고 공동의 증언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불일치 속에서 자신의 교육 자료와 발행물을 통해 자매교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표출시킨 스캔들은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 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신학교육에서 교회일치를 추구하고 강화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로서의 교회를 긍정하는 데 함께하는 모든 교회를 위한 복음의 명령이다(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381]).

21세기 기독교가 직면한 문제를 위하여 현재 에큐메니칼 교육의 배경과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천 과정에 주목하는 신학적 훈련과 기독교교육의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오늘날의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문의를 받는다.⁷⁾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은 다음과

6) World Study Report 2010, 32.

7) WCC Document *Magna Charta on Ecumenical Formation in Theological Education*, 2010: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education-and-ecu>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교단 간 혹은 비교단 신학교육기관 및 신학교육 프로그램의 후원(의도적으로 IMC의 신학교육기금[TEF]에 의해 이미 후원받고 있는)

각 지역 신학교나 교수진에게 에큐메니즘과 세계 기독교에 관한 독특한 강좌 및 커리큘럼 모델의 소개, 그리고 에큐메니즘과 교회의 증인에 대한 중요한 문제(예를 들어 HIV/AIDS, 장애 문제, 생태/정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한 관련 교수자료의 개발

- 신학교육 안에서의 종교 간 학습(interfaith-learning)을 위한 자료의 포함
-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공동 증인의 필요에 따른 신학교육과정의 현장화
- 신학교육 과목의 보강과 여성, 어린이의 관점에서 본 문제의 적절한 포함

우리는 다급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WCC 회원 교회의 공식, 그리고 비공식 신학교육 프로그램 안에 에큐메니칼 훈련양성 과정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도 없다. 만약 신학교육이 인류 전체에 대한 선교와 봉사 안에서 갱신된 교회의 에큐메니칼 비전에 의해 인도받지 못한다면, 에큐메니칼 비전과 헌신을 21세기로 전달할 신세대의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 신학교사 들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될 것이며, 벌써 많은 회원 교회에서 관찰될 수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에큐메니칼 신학적 담론에 관한 소수의 전문가들과 대다수 목회자 사이의 격차와 소외가 확대될 것이다.

신학교육에 관하여 WCC가 이전의 경우에 언급한 내용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교회와 젊은 세대 앞에서 상호 대화와 상호 인정, 화해를 통한 교회 간의 분열을 치유할 필요성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추구를 공유하는 것을 연결하는 가시적 일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에 관련된 사람들은 교육과정의 모든 부분에 에큐메니칼 차원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원의 공유, 에큐메니칼 대학, 연구소, 과정이나 연맹의 설립, 다른 전통의 학생과 교수의 교환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menical-formation/ecumenical-theological-education-ete/wcc-programme-on-ecumenical-theological-education/magna-charta-on-ecumenical-theological-education-in-the-21st-century-ete-reference-document.html](http://www.wcc-education.org/formation/ecumenical-theological-education-ete/wcc-programme-on-ecumenical-theological-education/magna-charta-on-ecumenical-theological-education-in-the-21st-century-ete-reference-document.html)을 보라.

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⁸⁾

21세기 초 지금 우리는 만일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계 기독교의 갱신과 회심을 위한 중요한 세력으로 남으려면 에큐메니칼 교육과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을 위한 새로운 중요한 헌신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비전에 관하여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서 있다. 시장과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급속하게 세계화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적·인종적·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근본주의를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역반응을 일으켜 왔다는 사실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로 에큐메니칼 운동과 에큐메니칼 증인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우선순위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은 단순히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적인 표시”(밴쿠버, 1983)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초에 가장 중요한 우선해야 할 일이며 새로운 긴급한 사항이기도 하다.

IV. 21세기 신학교육의 주요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

에든버러 신학교육 연구 보고서(2010)는 21세기에 맞게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학교육과 선교사훈련을 재구성하고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전적인 과제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⁹⁾

- a) 북반구와 남반구, 그리고 몇몇 지역 사이의 신학교육 자원의 이용 가능성의 불균형
- b) 일반적으로 남반구 지역의 고등교육 학생 수의 엄청난 증가, 특히 신학 연구 과정의 입학 지원자의 증가
- c) 신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오순절교회의 관심 증가

8) Message of the World Conference of WCC on Theological Education in Oslo 1996.

9) Daryl Balia and Kirsteen Kim, Edinburgh 2010 Vol II, *Witnessing to Christ Today, Section on Theological Education and Formation*, Edinburgh 2010, 148-174; Kirsteen Kim and Andrew Anderson, *Mission Today and Tomorrow, Final Report on the Session on Theological Education and Formation*, Regnum Edinburgh 2010 Series, Oxford 2011, 158-165을 보라.

- d) 신학교육, 신학적 리더십과 교회 사역의 경우 여성들을 위한 더 많은 영역을 만들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
- e) 서로 다른 콘텍스트와 교단 배경, 신학 방향을 가진 신학교 간의 상호 인정과 공동 자격 기준의 부족
- f) 국제신학교육 기관들의 교단적 분열과 분화
- g) 신학교육의 고등과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 및 보조금의 심각한 부족과 신학교육 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는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증가
- h) 신학교육의 구조적인 상황 변화(교회와 관련된 신학교에서 국립 종교학과로의 이동)
- i) 세계적인 이주민 증가로 인한 신학교육 과정의 다양한 변화가 주는 근본적인 의미와 대책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신학교육 프로젝트¹⁰⁾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의 33%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신학교와 신학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에든버러 2010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신학교육이 발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독교가 변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넘어, 대신 남반구의 성장하는 카리스마적인 갱신운동과 북반구의 갱신교회에 생명을 주고, 갱신하며, 참여적인, 그리고 적절한 혁신적인 신학교육 형태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21세기 세계 기독교의 모든 다양한 흐름의 본래의 모습과 진정성이 유지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다. 21세기의 신학교육과 에큐메니칼 훈련양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보다 집중적인 협력과 강화된 기구이다.

V. 고등교육 기관에서 기독교 신학의 역할과 연관성

WCC는 기독교 신학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대학 정책과 고등교육 기관의 영역의 어떤 동향과 변화에 대해 교회들에게 경고한다. 일반 대학 상황에서 '신학'

10) <https://www.research.net/s/globalsurveyontheologicaleducation>을 보라.

(교과전통과 묶여 있는 독특한 학문)이라는 그럴 듯함과 합법성이 점점 여러 곳에서 의문시되고 있다. 요즘은 점점 신학부에서 국립대학의 종교학과로 바뀌는 추세이다. 영국, 스칸디나비아와 독일에서 실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신학적 연구 프로젝트와 교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종교학 분야의 연구와 교수 자리가 늘고 있다. 매우 비슷한 변화와 동향이 아시아 국가들과 분명 미국 상황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미미한 확대—보고된다.

따라서 교회는 일반 대학 안에서의 신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점점 교단 신학교부터 대학의 종교학부로 이동하여 공부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많은 신학교가 문을 닫을 위험이 있고 목회자 양성 차원에서 그 기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다양한 기독교 전통 간의 국제 연대에서 분리될 위험이 있다. 또한 교과 소속 신학교들이 폐쇄되어 오거나 위협받아 오고 있기도 하다. 대학들이 점점 더 신학교육을 철학과와 종교학과 밑으로 통합하려는 경향이 증가됨에 따라 교회는 자신들의 교단에 맞는 훈련센터를 찾아야 하는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는 대학 상황 안에서의 신학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2010년 7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열린 제3차 유럽 신학교수협회의의 주장에 동조한다.

“종교학으로의 이동은 부분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이며, 부분적으로는 유럽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전통적인 신학 과목 교수의 감소이다. 우리는 신학과 종교학이 대학교에서 서로 보완하는 과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유럽 대학교 안에서의 신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학 교수, 교회 지도자, 그리고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이 인문학 (그리고 심지어 과학) 안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 설립 초부터 대학교 신학의 풍부한 역사, 유럽과 세계 정치에서의 확대되는 종교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의 궁극적으로 비신앙적인 세계관을 내세우는 포스트모던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포함한다.”¹¹⁾

11) THE 3RD CONSULTATION OF THEOLOGICAL FACULTIES IN EUROPE 7TH-10TH JULY

VI. 양질의 신학교육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확신

중앙위원회는 여기에 기반을 두고 발전되어온 신학적 관점과 신학교육의 질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대화모임을 환영한다.¹²⁾ 교회들에게 더 많은 일치와 공동 협력을 말하는 것이 WCC의 역할이다. 신학교육의 영역에서 교단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일치에 대한 헌신과 공동의 자격기준에 대한 헌신은 필연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점점 더 양질의 기준설정이 지역 신학교 연합회의의 중요한 안건이 되어왔다. WCC-EET에서 개발되어온 신학교육의 질에 대한 공동헌장의 초안¹³⁾에는 회원 교회들의 대표들, 복음주의, 오순절, 로마가톨릭 파트너들과 함께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권한다. 중앙위원회는 신학적 중요성을 가진 신학교육의 양질의 영역에서 공동된 수궁이 있어야만 한다고 확증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수궁할 수 있다.

-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 읽기와 공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진 문화적 상황에서 번역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참여하는 모든 신학교육의 긴요한 일차 자료요 기반이다. 따라서 성서의 상징들, 내러티브, 이미지들, 그리고 실물 같은 풍성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 다양한 교과전통의 기독교를 관통하고 동시에 비판적 이성을 뛰어넘는 신학적 탐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 세계 기독교는 서로 다른 현장화된 신학교육의 다양한 틀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에든버러 연구보고서(2010)가 제안하는 과제, 곧 각기의 토속언어와 문화 속

2010, GRAZ, AUSTRIA “Jeopardised or indemand? Academic Theology in Europe between Education, Science and Research”, http://www.uni-graz.at/grazerprozess/tagung2010/Final_Statement_2010_en.pdf을 보라.

12)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Quality in Theological education, WOCATI, Johannesburg June 2011, <http://wocati.org/index.php?id=1863>을 보라.

13)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education-and-ecumenical-formation/ecumenical-theological-education-ete/wcc-programme-on-ecumenical-theological-education/towards-a-common-charter-on-quality-in-theological-education-dietrich-werner.html>을 보라.

에서 이루어지는 신학교육의 빈도가 적고 내용도 빈약하다.

- 비록 여러 가지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의해 조건 지어지지만, 교회, 기독교 선교, 그리고 신학교육은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내적 연결은 교회 소속 신학교, 신학부 혹은 일반 대학교의 신학부 등 여러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기독교 선교와 신학교육 사이의 극히 중요한 상호관계가 구체적으로 실천에 이르려면 메시지 번역이 근본적인 과제라는 점을 모든 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지속적인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 신학교육은 언제나 기독교회들과 현실비판과 종말적 과제로 연대를 맺고 있다. 신학교육과정은 현행 교회와 교단의 현실과 정체성을 모두 재현하고 반영하지만 또한 선지자적 역할로 모든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존 교회와 세상의 행태에도 도전해야 한다.

- 신학교육은 본질적으로 모든 기독교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에큐메니칼 과업이다. 다른 교파 전통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신학교육 커리큘럼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위반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단적 분열을 장기화한다. 따라서 기독교 안의 근본주의를 포함한 종교적 근본주의의 부상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이 두 가지는 신학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증언, 봉사, 일치를 적절하고 통전적으로 이해시킴이 신학적 과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교육하는 것은 기독교 선교의 핵심이며 기독교 선교는 신학교육의 초점과 평가기준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선교는 어린이들을 향한 깊은 관심이었던 것처럼, 이 같은 사명을 지닌 21세기의 신학교육은 어린이가 오늘날 세계 그리스도인의 30%를 점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학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사역과 아동신학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학적 형성은 매우 어린 시절에 시작되고 단지 학교나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확대된 의미의 신학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기독교교육 프로그램과 신학적 형성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안에서든 중심에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대부분의 신학교육이 여전히 여성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신학교육 기관들은 어린이를 위한 건전한 남

너 양성의 역할 모델을 신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Ⅶ.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신학교육에서의 WCC 참여의 미래

WCC에 있는 각기 다른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신학교육 업무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선적 제안을 확인한다.

-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신학교육이 부산 총회 이후의 WCC의 미래 실천적 의제와 구조에서 가시적이고 분명한, 그리고 강력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WCC는 복음주의, 로마카톨릭, 오순절 같은 WCC의 비회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WCC의 조직 안에서도 주요 활동가들을 함께 모을 적절하고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에큐메니칼 훈련양성 및 신학교육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 모든 교과적 배경으로부터 벗어나 교회와 신학교육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에 있는 지역 신학교 연합 포럼의 형성과 활동은 미래에 계속되어야 하며, 협력받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WCC의 핵심 과제였던 기독교교육 영역에 WCC가 보다 가시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 WCC는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위한 에큐메니칼 훈련양성 개념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대화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현재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이해는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의 세계내적 위상이 변화함을 보면서 교회의 요구에 상응하는 분명한 교육목표들을 가지고 있는가? 교리와 교단 차원의 관심에서 생태와 종교 간 관련 문제와 주제들로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의 개념과 이해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신학교육의 강조점도 이동하고 있는가? 오늘날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과 전략적 파트너는 누구인가?

- 현재에 더 적절한 목회자 양성 형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신학생들의 등록 감소로, 신학교육 기관의 재정적 수단의 감소뿐만 아니라 운영비 증가로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공동의 정보 및 실천의 틀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파트너를 함께 불러모으는 것이 WCC의 역할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교회 상황이 실제로 미래의 신학교육에 무엇을 의미하고 함의하는지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신학교 연합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WCC는 신학교육 기관의 인정, 신학교육의 질 보증 및 인가에 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만 한다. 오늘날의 컨텍스트에서 교회는 일부 신학교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신학교에 대한 국가 인증 요구에 대해 투쟁하고 대처해야만 한다(인도네시아).

- WCC는 여러 다른 지역들의 에큐메니칼 가족인 신학교육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에 투자함으로써 신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교회를 지원해야 한다.

- 현재 정치적·경제적인 요인으로 그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곳에 교회는 건전하고 성서적인 목회자 양성과 신학교육을 위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높여 싸워야만 한다.

- 교회는 신학교육에 있어서 종교 간 공동의 협력의 장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야만 한다.

- 교회는 신학 교수 교환에 투자해야만 하고 그래서 신학교육 기관 사이의 상호 학습을 더 용이하게 해야만 한다.

- WCC의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보세이 에큐메니칼연구소와 ETE 프로그램은 신학교육과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회원 교회들의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전문지식, 협력, 공동 프로젝트 지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임시파견, 직접적인 재정 지원 모두는 미래에 이 일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ETE 분과모임의 선언문은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그리스의 크레타에서 있었던 WCC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받아들여졌고, 교회들과 신학교육 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 신학교육기관 연합뿐만 아니라 모든 WCC 회원 교회들과 교류하도록 승인되었다.

Part II
총회 준비를 위한 사전대회 자료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준비를 위한 범정교회 사전대회

관례에 따라 WCC는 총회 회집 전에 정교회 회원 교회의 대표를 소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에큐메니칼 운동, WCC의 각 위원회와 프로그램, 그리고 정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회원 교회에 가장 긴급한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보고서는 2013년 3월 WCC 실행 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다.

서언

1. WCC가 주최하고,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 대표인 바르톨로메오스(Bartholomew) 세계총대주교와 오리엔탈 정교회(Oriental Orthodox Church) 대표인 나다나엘(Nathanael of Kos and Nisyros) 총대주교가 초청하는, 범정교회 회의가 2012년 10월 11-17일에 그리스 코스 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목적은 WCC 제10차 총회의 주제를 검토하면서 총회를 준비하고, 아울러 주제에 대한 정교회의 신학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방정교회를 대표하여 겐나디오스(Dr. Gennadios of Sassima) 총대주교, 오리엔탈 정교회를 대표하여 모어 에우스타시오 마타 로함(Mor Eustathius Matta Roham) 총대주교가 공동 의장을 맡아 이 회의를 주재했다.

2. WCC가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정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하나의 관례로 유지되고 있다. 이 회의의 주요 목적은 차기 WCC 총회의 주제와 주요 부제들을 정교회의 관점에서 연구, 토론, 숙고하여 부산에 모이는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차기 및 그 이후의 WCC 총회에 우리의 기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주교, 사제, 대학교수, 남녀 평신도, 청년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참가했다. 우리는 개회식에서 나다나엘 총대주교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아울러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자들과 지역의 사제, 평신도들, 지역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호텔의 채플 개관식을 가졌다. 겐나디오스 총대주교가 회의의 목적, WCC 총회 주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 미래의 문제와 희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든 참가자를 소개한 후,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차기 부산 총회의 주제(“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와 부제에 관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3. 각 실무 토론회는 새로 개관한 채플실에서 기도로 시작되었다. 10월 13일 금요일에는 예루살렘 대주교 토르곰 마누지안이 아르메니아 주교의 서거를 발표할 때 호바짐 마누지안 주교(아르메니아 사도교회, Mother See of Holy Etchmiadzin)가 특별 기도를 해주었다. 그리스에서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현지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리스를 위해 기도했고, 경제 위기가 곧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중동지역에서 온 회의 참가자들이 이 지역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알려주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이 지역, 특히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폭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고,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아울러 생명의 하나님이 이 지역과 세계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해주시기를 바랐다.

총회 주제에 관한 신학적 성찰

4. 정교회의 영적 경험과 초기 교부 전통은 다음과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생명이며, 독생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뛰어난 모든 것이다. 피조물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공급받는다. 피조물이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만일 그 참여가 중단될 경우 피조물의 생명은 분명히 중단될 것이다. 따라서 신성한 생명은 거룩한 삼위일체,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5.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이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

간이 자유를 남용하여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졌고 그 결과 죽음이 왔다.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는 정확히 말해 이러한 관계의 파괴를 뜻한다. 이런 관점에서 관계의 파괴는 인간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나타나고 다른 창조물에게로 확장된다. 타락 후 인간은 자신, 타인,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었고, 육신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차별, 불의, 갈등, 강자의 약자 착취, 환경 문제를 유발하였다.

6.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후 인간 본성과 모든 창조세계에 미친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바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 받지 않은 것이 창조된 것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셨고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 본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창조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난, 십자가에 못 박힘, 죽음에서의 부활, 승천을 통해 이 일을 완수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일치, 의, 정의, 평화가 성취되었다. 따라서 구원의 복음은 화해의 말씀이다.

7.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친교를 가능하게 한다. 세례 성례전은 삼위일체적인 생명, 곧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성자 하나님은 생명의 원리이며, 성령 하나님은 생동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친교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유지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시작되며 교회의 성만찬 성례전을 통해 유지된다.

8. 성육신 사건에 비추어볼 때, 정의와 평화는 주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로 경험하는 것이다. 정의는 평화를 이루고, 반대로 평화는 정의를 이룬다. 따라서 정의와 평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현실이다. 이 둘은 함께 존재하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하나님과의 평화),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자기 양심과의 평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웃과의 평

화), 우리와 창조세계와의 관계(창조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자)를 나타낸다. 정의와 평화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기희생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지혜, 열정, 야망, 이기심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나타낸다.

9. 주님은 수난당하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일치, 평화, 정의를 위해 기도하셨고(요 17:21),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소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 전쟁, 불의, 자연환경의 파괴를 경험하고, 때로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10.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정의, 평화,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힘쓰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관점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 12:17)는 제3의 길을 발견함으로써 소극적인 자세와 폭력을 반드시 초월해야 한다.

11. WCC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공동 노력은 기독교 선교의 일차에 기여하고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더 신뢰하게 만들 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이런 노력은 인권을 증진하는 세속적인 단체들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인권 과제가 아니라 인간과 창조세계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을 확인하는 복음에 기초하여 이런 활동을 수행한다.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치유하고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서지고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우리의 자비, 기도, 연대가 필요하다.

12. 우리는 정교회의 교회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일치, 정의, 평화를 간구한다.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의 호칭기도에서부터 마지막 성체기도에 이르기까지 성체의례(성찬식)에는 교회와 세계의 일치를 간구하는 많은 기도가 포함되며, “평안히 가시오.”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은 신자들이 그들의 가정과 주변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룩하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13. 제10차 총회의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는 우리와 교회가 일치, 정의, 평화의 비전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도전을 준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종말론적 관점을 묘사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 2:4)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며,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엡 1:22)이다.

WCC 제9차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제10차 부산 총회로

14. 우리는 회의에서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이후의 WCC 활동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이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인식했다. 여기에는 세계금융 위기가 포함되며, 이것은 우리 교회와 WCC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국가, 지역, 국제 차원의 에큐메니칼 기구를 주목했다. WCC는 이런 기구들을 고려하여 기독교의 일치라는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다시 숙고해야 한다.

15.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정교회가 WCC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을 재검토했다. 정교회가 위원회(신앙과 직제, 세계선교와 전도, 국제 문제) 활동과 공동실무단(로마가톨릭교회, 오순절교회) 활동, 총회기획위원회, 현재 진행 중인 WCC 관리방식 재검토—WCC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한 활동—에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을 주목했다. 또한 중요하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데 두 개의 정교회 교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WCC 총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다양한 에큐메니칼 행사에 참여했다. 정교회의 여성과 청소년의 참가를 늘리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16. WCC 총무가 여러 정교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정교회와 WCC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제네바의 WCC 본부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비롯하여 정교회 파견 인사들이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것은 정교회가 WCC 본부의 모든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런 참여가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

17. 특별히 지금까지 개최된 여러 차례의 주요 정교회 국제회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일부 회의는 주최하는 교회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재정 후원을 받았다.

18. 2010년 11월 9-12일에 루마니아 시비우(Sibiu)에서 제1차 정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는 “정교회의 교회생활과 신학교육에서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다루었다. 이 회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특히 교수와 학생들이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세계에서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 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에 관하여 강조했다.

19. 2011년 3월 2-9일에 사이프러스의 아이야 나파(Aghia Napa)에서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제2차 회의에서는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보고서인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한 정교회의 공동 응답을 준비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보고서에 제기된 다양한 종말론적 문제와 과제를 다루었고, 보고서의 내용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제안했다. 그 결과, 다양한 제안이 일치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에 포함되어 부산 총회에서 발표될 것이다.

20. 2009년 7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2009년 9월 그리스 레로스, 2010년 10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각각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11년 자메이카 킹

스틴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의에 파견할 정교회 대표를 뽑고,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정교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WCC 제10차 부산 총회와 그 이후 총회에 거는 기대

21. 정교회는 우리의 긴급한 현안과 도전 과제, 아울러 기독교 교회가 오늘날 세계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를 알고 있다.

22. 정교회—동방정교회와 오리엔탈 정교회 모두—는 WCC가 기독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과제에 더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종종 에큐메니칼 운동이 위기이며, 일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혹은 일치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듣는다. 크게 보면, 이것은 가시적인 일치에 대한 생각이 정교회를 비롯한 많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40년 동안 회원 교회에서 일어난 발전의 결과라고 본다(가령, 여성의 성직 서품,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등). 회원 교회들 간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 WCC 회원이 아닌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점차 더 많이 참여하고, 아울러 선교의 일치에 대한 종말론적 숙고와 새로운 이해를 논의의 주제로 삼는 것은 특히 이런 교회들이 WCC 회원 자격을 신청할 경우 일치를 향한 노력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23.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초기 교회의 신학적·도덕적 가르침과 실천으로 돌아가서, 성서와 윤리적 가치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부들의 유산을 다시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공통의 토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WCC 회원 교회가 발전하고 전체 에큐메니칼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이러한 접근방법을 계속 시도하기를 바란다.

24. 부산 총회와 그 이후 총회에서 우리는 교회의 유대 정신 아래 함께 만나서 토론할 것이다. 이때 합의 절차를 준수하고 일치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원 교회의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에는 특히 더 그렇다.

25.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우리는 많은 정책 성명서와 다른 문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WCC에 참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

리는 정교회와 WCC가 이런 성명서(특히 토론토 성명서, CUV에 관한 정책 성명서, 정교회의 WCC 참여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에큐메니칼 훈련양성(ecumenical formation)을 진지하게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26.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정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의 신비에 두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인권 유린, 테러 행위, 박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지역의 상황을 우려한다. 우리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들 지역과 아울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기도한다. 아울러 민족자결권이 널리 준수되고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27. 우리는 모든 회원 교회와 함께 세계의 평화와 화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종교 간 대화를—이제까지보다 더—계속 촉진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종교가 위험한 무질서의 도구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롭고 효과적인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존중과 근본적인 영적 가치의 진흥 없이는 평화와 화해가—특히 청소년 사이에서—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WCC가 평화활동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28. 우리는 WCC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강화하려는 교회의 활동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종주의를 비판한다. 우리는 개종주의가 선교에서 공동의 증언과 일치에 이룩하는 데 주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정교회 곧 동방 정교회와 오리엔탈 정교회는 역동적인 신학과, 고난과 빈곤 현장의 살아 있는 증언을 통해 WCC의 선교 과제에 중대하게 기여해왔다. 아울러 정교회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더 세속적으로 “발전된” 지역뿐만 아니라 갈등과 핍박이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가 놀랍도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9. 우리는 자연과 환경 보호에 관한 메시지를 널리 확산해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WCC가 생태적 정의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활동

을 지속하고 더 많은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볼 것을 촉구한다. 모든 인류가 세계의 환경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볼 책임이 있다. 자원 고갈, 환경오염, 세계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긴급하게 함께 노력하여 생명의 다양성과 질을 보호해야 한다. 창조세계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창 2:15)에 따라 정교회는 WCC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30. 우리는 WCC 총무가 실무그룹을 만들어 차기 총회에 제시할 일치에 관한 성명서를 제안하려는 계획에 감사드린다. 이 문서는 교회의 전면적이고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 교회들 간의 유대감이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강조할 것이다. 일치에 관한 성명서의 초안은 우리 모임에 제출되었고, 우리는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다. 우리는 다양성이 분열과 불일치를 초래하는 경우에 그것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창조세계의 일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성명서가 정교회의 창조신학과 생태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성명서가 교회 관련 언어를 더 명확하게 사용하고, 풍부한 신학적 내용을 더 많이 언급하며, 우리를 분리시키는 교리적 차이를 더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31.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06:3).

원주민 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총회에 앞서 원주민 대표들에게 총회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에 대한 신학적 검토를 요청했다. 2012년 9월 17-19일에 아오(Ao), 창 나가(Chang Naga), 아이마라(Aymara), 이고로트(Igorot), 마오리(Maori), 마야(Maya), 미조(Mizo), 케추아(Quecha), 산탈(Santal), 터틀 아일랜드 부족(Turtle Island people)의 대표들이 대만 후알리엔 여산신학대학교에 모였다. 다음은 이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총회 주제를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독교 전통에서의 이원론과 승리주의

많은 기독교 전통은 히브리 사상과 그리스 사상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원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한 존재로 상상하게 되었다. 전지전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이 세상의 삶의 영역을 초월하여 저 위에 계신다.

영지주의자처럼 우리는 이런 생명의 하나님이 물질세계와 관련이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세상은 물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악하고 죄에 물들어 있어 파괴될 운명이다. 거룩한 하나님은 타락한 물질적 세상과 분리되어 접촉하지 않는다.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은 이런 이해를 통해 형성되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를테면, 흔히 하나님을 능력과 완전함의 측면, 곧 통치자, 주, 왕, 전능자, 아버지, 주인, 용사로 인식한다. 이런 비유들은 모두 정복과 성공 지향적인 이미지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

시며, 사람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위로자와 해방자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의지하라고 가르쳐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승리주의적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은 기독교를 통치자, 엘리트, 사회의 지배계층을 위한 종교로 만들었다. 원주민들은 그런 하나님이 신자를 비롯하여 어떤 사람도 해방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힘에 의한 피해자들, 가령 원주민,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Dalit), 여성, 장애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람들, 그 이외 다른 차별을 받은 공동체를 해방시킬 수 없다.

원주민들은 앞서 묘사했듯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외부 통치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법을 이 세상에 시행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거부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먹고 마시고 말씀하신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 곧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간의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안에서 활동하시고 사신다. 우리는 어머니 지구를 파괴함으로써 인간 공동체뿐만 아니라 창조주에게도 상처를 입힌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손상되면 하나님 역시 고통당하신다. 하나님은 취약한 창조세계와 손상당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신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다른 인간, 창조세계 전체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더는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체적이고, 볼 수 있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열기와 먼지, 온갖 소란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3:16),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요 1:14)고 단언한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현설적(Docetic) 존재나 영지주의적(Gnostic)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죄가 있는 육신

이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생명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세상 중심적인 생명관은 성령이 극히 작은 모든 피조물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 세상에서 성령이 접촉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루아흐(ruah), 곧 바람으로 비유된다. 성령은 모든 피조물에 거주하며 생명을 준다. 성령은 실제로 돌과 나무에도 존재한다. 성령은 만물을 살게 한다.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억압당하는 공동체가 정의를 위해 저항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요약하면, 성령의 현존은 만물(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을 살게 하고 역동성을 갖게 한다.

만일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길 원한다면 생명을 힘, 번영, 좋은 건강, 치유, 완전함, 성공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힘, 축복, 돈, 완전함, 성공의 견지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현존을 평가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 맞게 하나님을 길들이고 복음을 잘라내는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 앞에서 으스스대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완전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곧 생명, 생명은 곧 땅

다른 위대한 세계종교와 달리, 원주민의 종교적 전통은 창시자, 개혁자, 인도자도 없고 또한 사람들은 위대한 영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지도 않는다. 이것은 북미와 아시아의 수많은 원주민의 전통이며 아울러 마야의 전통이기도 하다. 원주민들은 땅의 계절 순환에 따라 노래하고 춤춘다. 그들은 생명의 표출과 풍성함을 경축한다.

다양한 토착 영성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영성의 신앙체계, 종교의식이나 의례, 축제, 춤이 땅을 중심으로 땅에 깊이 뿌리박은 공동체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은 땅/공간과의 관계 밖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나가랜드(인도)의 아오(Ao)족과 산탐(Santam)족은 그들의 최고의 존재를 리야

바(Lijaba)라고 부른다. 리(Li)는 “땅”, 야바(jaba)는 “실제적인”이라는 뜻이다. 곧 최고의 존재가 “실제적인 땅”이라는 의미이다. 다른 공동체는 최고의 존재를 리자바(Lizaba)라고 한다. 리(Li)는 “땅”, 자바(zaba)는 “들어간다”를 뜻한다. 따라서 리자바는 “들어가는 자” 또는 “땅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창 나가(Chang Naga)족 역시 최고의 존재를 무흐가우(Mühghaü)라고 부른다. 무흐(Müh)는 “하늘”, 가우(ghaü)는 땅을 뜻한다. 마야의 까치(kaqchikel)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지면에 존재하신다(ru K'ux rubach'ulef).

많은 원주민 공동체는 하나님이 씨앗과 함께 땅에 들어갔다가 자라나서 열매 맺어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신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어난 꽃과 열매는 창조자의 현존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곧 생명”이다. 왜냐하면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1-3).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생명의 하나님”을 반드시 땅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땅과 생명의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다.

원주민의 신학은 하나님을 땅에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초월과 거룩함을 주장하는 모든 개념을 거부한다. 그러한 하나님 개념은 성서의 진정한 메시지와 모순된다. 성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단언한다(요 1장 참조). 예수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현존—우리의 분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있는 현존—을 느끼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다.

땅과 평화

정의와 평화는 번영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인간의 해방은 땅과 그에 속한 자원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는다면 헛될 것이다. 땅 없는 평화(shalom)는 평화가 아니며, 노예상태와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땅과 자원은 모든 존재를 유지하고 자라게 하며 정체성과 개성을 부여한다. 땅과 자원은 다른 정의의 문제들과 나란히 함께 놓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정의의 문

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 생존, 정체성의 기초이다. 이것은 빈곤, 전쟁, 억압, 인종 갈등, 정체성 문제가 창조세계/땅의 보존과 관련시키지 않고는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창조세계에 대한 올바른 입장

원주민들의 종교는 땅을 중심에 둔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 의식이나 의례, 축제, 춤 등은 모두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창조세계/땅에 대한 정의는 평화, 인간 존엄, 온전한 생명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창조세계를 제대로 다루는 것이 신학의 출발점이다. 창조세계/땅의 조화를 위한 전념과 헌신은 사랑, 양육, 돌봄, 수용으로 나타난다. 창조세계의 전체성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방법론적 우선순위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에큐메니칼 비전을 재정립하도록 도전한다.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언하려면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저항을 해야 한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활동이나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의하고 억압적인 사회제도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불의한 사회구조를 대체하고 피해자를 위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에큐메니칼 운동의 증언이 우리 시대에 현실적이고 신뢰를 획득하려면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회 구조 안에 세우고, 피해자를 해방하기 위한 가치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진정한 교회

원주민들은, 진정한 교회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억압자의 대리자가 될 뿐이다. 교회는 사랑과 평화를 소극적인 메시지로 선포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정의를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일도 포함된다.

사람들의 운동을 외면하거나, 정의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꺾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성서의 하나님은 해방자 하나님이요, 해방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모든 형태의 억압하는 힘에 대한 투쟁을 요구한다. 생명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교회는 충만한 생명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Part III
각종 위원회 보고서

로마가톨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간 신구교공동사업기구

제9차 보고서 요약

이 문서는 신구교공동사업기구(JWG)가 작성한 방대한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무단의 관심과 활동을 엮었다. 공동실무단의 활동이 15년째 이어져 오면서, 최근의 관심사들은 에큐메니칼 사업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라는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작업, 에큐메니즘의 영적인 뿌리, 청년들의 교회참여, 그리고 이민자 문제와 연관해서 새롭게 출현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대해 왔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수용하기: 2007-2012, 제9차 보고서』(Receiving One Another in the Name of Christ: Ninth Report, 2007-2012)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출판되었다.

I. 서론

신구교공동사업기구(Joint Working Group, JWG)는 그 모교단 기구들 즉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PCPCU)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간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기구였다.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일치에 관한 교황령』(*Decree on Ecumenism*)을 따라, 1965년 PCPCU(추후 기독교적 일치를 위한 사무국[Secretariat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과 WCC에 의해 공동으로 JWG가 설립되었다. 그 이래로 공동실무단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로마가톨릭교회와 WCC 모두 교회의 가시적 통일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는 그 모교단 기구들이 그들 간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들을 토론하는 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그 대표자

들이 그들의 교회들이 겪는 경험을 공유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공동개입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한다.

JWG는 대륙과 지역의 반응을 청취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실무진으로 기능해왔다. 2006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9차 WCC 총회부터 201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총회까지의 기간 동안, 각 모체 기구는 다양한 목회적 경험과 에큐메니칼 운동 경험을 갖춘 세계 여러 대륙별 출신의 18명을 JWG의 구성원으로 임명하였다. 공동실무단은 두 명의 공동의장의 사회로 총 다섯 차례 전체회의를 가졌다. 공동의장들, 모체 기관의 대표자들, 공동사무총장들, 신앙과 직제 담당자와 WCC 선교팀의 RC 고문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1년에 2회 모임을 갖는다. 이사진은 각 총회들 사이 있었던 JWG의 활동을 감독하고, 총회를 위한 의제와 내용을 준비한다.

21세기 초엽에 변화하고 있는 교회적 전망과 가시적 일치와 세계를 향한 공동의 증언을 모색하는 가운데 교회가 대면하고 있는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미 공동실무단은 2008년 제네바 총회에서 모체 기구들(즉 PCPCU와 WCC)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정에서 교회들의 친교를 심화시키는 데 공통 관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결국 에큐메니칼을 위한 대화의 열매들을 발판으로, 청년들을 이끌어들이고, 지역 교회들과 공동체의 거짓된 자기-중심성에 도전하는 이주자들의 현존성으로부터 동기를 얻기 때문이다. 공부와 성찰을 위한 주제들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 바로 이것이 반영되었다. 즉 에큐메니즘의 수용과 영성적 뿌리¹⁾에 대한 연구, 그리고 청년에 대한 성찰. 공동실무단은 또한 근본 원인들을 성찰하고, 이주민이 사람들과 공동체와 교회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1) H. E. Cardinal Walter Kasper의 두 책, *Harvesting the Fruits: Basic Aspects of Christian Faith in Ecumenical dialogue*(London/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9)와 *A Handbook of Spiritual Ecumenism*, 2006년 초판(New York: New City Press, 2007)을 참조하라.

II. 신뢰관계의 심화

JWG는 두 모체 기구들 간의 협력관계를 조성해왔을 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을 향한 일관된 운동의 흐름 속에서 다른 교회들과 세계교회 협력자들과 신뢰와 협동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교회의 주변 환경 속에서는 필수적인데, 특별히 오순절교단(들)과 성령운동 교회들의 성장, 최근 수십 년간 일어난 심오한 지정학적 변화, 기후변화와 재정 위기가 가져오는 참혹한 귀결, 개인의 윤리와 가치와 관련한 갈등, 종교적으로 다른 공동체 내의, 그리고 그들 간의 폭력, 갈등 상황 속에서 점증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 이상의 도전은 교회들이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향한 노력과 공통의 증언에 보다 에큐메니칼 헌신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한다. JWG로서 우리의 모든 노력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향해 의지하시는 일치는 지금까지 핵심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로마가톨릭교회와 WCC 회원 교회들은 복음주의자들, 즉 오순절 성령운동 교단들과 관계를 조성해왔는데, 비단 글로벌기독교포럼(Global Christian Forum)에서의 협력을 통해서뿐 아니라 여러 많은 다른 구상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20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WCC의 축매로 오순절교단과 함께하는 공동자문단 참여, 교파별 세계연합체(Christian World Communions, CWCs)의 사무총장들의 총회 협조, CWCs와 WCC 간 공동위원회, 그리고 『다종교 세계에서 기독교의 증언: 행동지침』(*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²⁾이라는 제목의 문서 출판 등이 있었다. 특별히 마지막의 문서는 교황청 종교 간 대화촉진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PCID)와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과 함께 WCC가 공개하였다.

JWG에 의해 조성된 양질의 관계는 WCC로 하여금 CWCs와 소중한 협력을 강

2) http://www.oikoumene.org/fileadmin/files/wcc-main/2011pdfs/ChristianWitness_recommendations.pdf를 보라.

화하고, 그리고 21세기 에큐메니즘을 성찰하고 다가오는 2013년 WCC 제10차 부산 총회를 준비하면서 회원 여부를 넘어 에큐메니칼 운동의 협력자들과 교회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그 양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WCC 회원 여부를 떠나 광범위한 지향성을 지닌 교회들과 협력자들을 정회원으로 포함하는 위원회들이 구성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WCC는 신앙과 직제위원회와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안에서 로마가톨릭교회와 아올러 오순절교단들과 탁월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2007-2012 JWG의 활동

JWG의 “에큐메니칼 순례”는 이 기간 동안 다마스쿠스와 몰타와 로마를 지나 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랐다. 이 JWG의 정신과 활동을 요약하는 데에 로마서 15:7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 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때의 시간은 언제나 공동기도와 성서 읽기, 그리고 축하행사에 근거하여 함께 공동 작업을 위한 공유기반으로서 에큐메니즘의 영적인 뿌리를 의식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주었다.

JWG의 개인들과 모체 기구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은 모든 모임을 중요하고 보람차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었다. 그 나눔은 모체 기구들과 관련된, 그리고 국내, 국외,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연관된 발전 상황을 검토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환은 신뢰 구축을 촉진했다. 또한 참여자들이 상호 존중의식을 가지고 난감한 이슈들을 제기할 수 있는 관계의 질을 조성하도록 촉진했다. 그리고 통일된 에큐메니칼 운동의 융성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촉진했다. 보다 작은 규모의 JWG 임원진은 정보 교환과 공통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협력 촉진에 지속적으로 매우 유용한 도구였다.

에큐메니칼을 위한 대화의 결과들을 받아보고, 그를 통해 에큐메니즘에 대한 참여를 새롭게 촉진하는 일의 중요성이 여러모로 JWG 구성원들과 모체 기구들의 보고서에서 두드러졌다. PCPCU 소속 주교들이 로마로 사도좌 정기방문을 수행하는 동안 이루어진 만남은 바로 그러한 예들 중 하나가 되는데, 이는 과거에 진척된 발

전들을 주목하고, 에큐메니칼을 향한 헌신을 다시금 불 붙일 중요한 기회임을 예증했다. 마찬가지로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청년들의 참여 문제와 연관된 물음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포함되었다.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대표자들의 관찰을 통해, 공동의장들의 보고서들 속에서 이제 “이주민” 문제는 핵심 사안이 되었다. 변화하는 교회의 전망과 글로벌기독교포럼에서의 협력 문제는 모든 모임에서 매번 토의되었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의 농축된 경험과 종교적인 동기로부터 야기한 폭력의 난감한 문제들이 이 나눔의 시간에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제8차 보고서에 제시된 이전 JWG의 제안들에 응답하여, 실무단의 영적 생활과 그 구성원들의 나눔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번 JWG는 그 자체로 고유한 지체라는 관점에서 에큐메니즘의 영적 뿌리와 수용의 이슈들에 특별한 기여를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의 두 문구는 로마서 15:7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한 진심어린 응답을 서로 함께 풍성케 해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JWG 제9차 보고서의 모토로 선택되었다.

이전 실무단의 권한과 비교하여, 이번 JWG는 이민과 청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모색하던 두 하위 그룹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이 두 사안은 모든 교회에 상당한 도전이 된다. 이주민 문제에 대한 토론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서 청년의 역할에 공을 들인 그룹은 이 보고서의 문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부록으로 포함되었다.

IV. 연구 문서들

수용: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을 위한 핵심(부록 A)

현재의 JWG는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을 태동시킨 사건, 즉 1910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 100주년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50주년을 기념하던 시기부터 만남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에큐메니즘 수용에 관한 연구안에 반영되어 있다.

이 연구는 그외 결론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치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에큐메니즘 수용”이라는 제목의 1부는 먼저 교회의 삶 속에서 수용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기술하고, 수용과 연관된 일단의 신학적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런 다음 에큐

메니칼적 수용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시작한다. 이 부분은 교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그 결과, 즉 “에큐메니즘 한 세기의 성과들”을 교회의 삶 속으로 계속해서 수용하고, 이 에큐메니칼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이 성과들을 증축해가도록 교회들을 초대하면서 진행된다. 1부의 마지막 장은 JWG가 이미 과거에 에큐메니즘 수용에 무척이나 주의를 기울여왔음을 회고함으로써 추후 전개될 토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만, 100주년은 에큐메니즘 수용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 세기가 교회들을 위해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왔던 방식을 보다 심도 있게 성찰할 소중한 기회이다. 전체 5부 모두 “요점과 권고사항 체크하기”로 마치는데, 이 부분은 교회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2부는 에큐메니즘 수용이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을 기술한다. 수용의 과정에 대한 성찰로 시작해서 2부의 나머지 부분은 15개 교파별 세계연합체(CWC)의 경험과 (혹은) 정책에 근거한 에큐메니즘 수용의 방식을 간략하게 발표한다. 다양한 접근법들은 곧 교회론의 차이를 반영하고, 에큐메니즘 수용의 복잡성을 묘사해 준다.

3부는 가장 긴 부분으로서 “과거의 분열 극복하기: 화해를 촉진하는 수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3부는 에큐메니즘 수용을 통하여 교회들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방식을 그려준다. 3부는 1910년 에든버러 이후 에큐메니즘의 한 세기 동안 발전되어온 새로운 에큐메니칼 상황에 대해 논평하면서 시작하는데, 오랫동안 분리되어 온 그리스도인이 수세기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점차 공통으로 지켜온 신앙의 정도를 인식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상황을 말한다. 이 새로운 상황의 도래와 더불어 교회들은 대화에 참여하고, 과거 분열의 원인을 대면할 수 있었다. 3부는 분열의 세 개의 역사적 영역을 에큐메니즘의 관점에서 제시되어 온 방식과 화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취해졌던 방식을 기술한다. (분열의) 첫 번째 영역은 특별히 칼케돈 공의회(451) 이후 5세기에 일어난 분열에 주목한다. 두 번째 영역은 1054년 이래로 동방기독교와 서방기독교 간의 분열에 주목한다. 세 번째 영역은 16세기와 그 이래로 일어난 서방기독교의 분열에 주목하는데, 이는 가톨릭교회로부터 개혁신교회들의 분립뿐만 아니라 개혁신교회 자신들 간의 분열에 포함한다. 비록 온전히 가시적인 일치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하기 위한 중요

한 발걸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여기서 주어진다. 3부의 마지막 부분은 WCC와 PCPCU가 수용의 행위 주체로 활동한 길들을 보여준다.

4부는 에큐메니즘의 수용이 하나의 투쟁이었음을 보여준다. 2부가 구체적인 수용과정의 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면, 4부는 왜 수용과정이 하나의 투쟁일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준다.

5부는 “에큐메니칼 훈련양성: 에큐메니즘 수용의 핵심”을 제시한다. 제3차 JWG 보고서는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은 때로 이전의 일들과 WCC의 설립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에 보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진술했다.³⁾ 현재 연구 문서는 그러한 변화들을 문서화했고, 과거에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여주고, 에큐메니즘의 수용이 화해를 촉진하고 알리는 데 도움을 준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의 5부는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에큐메니즘의 수용 간의 연결고리를 토론하고,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에 대한 JWG의 계속적인 관심을 추적하고, 에큐메니칼 운동 구성의 일반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그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개괄한다.

결론인 6부는 에큐메니즘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온 것을 인식하고, 에큐메니즘의 수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촉구하며,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들의 헌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교회들을 향한 호소”이다.

성령으로 새롭게: 에큐메니즘의 영성적 뿌리(부록 B)

우리 주님의 기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요 17:21)에 응답하여, 그리고 삶의 왜신과 마음의 회개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동기를 부여받아, JWG는 에큐메니즘의 영적인 뿌리에 대하여 새롭게 성찰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그 목표는 이중적이었다. 즉 에큐메니칼 운동을 시초부터 추동해온 영적 원동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지시키는 것과 일단의 실천적 안들을 추천함으로써 교회들이 이 영적인 뿌리를 양육할 수 있는 신선한 방식을 숙고하는 것이다.

3) Joint Working Group between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Eighth report 1999–2005(2005) (Geneva: WCC Publications), 29.

서론 다음의 본문은 8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기본 용어, 성서적 토대, 기도와 예전 실천의 의미, 성인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예증들, 변혁적 대면의 능력, 모교단 기구들에 제시할 대안을 갖고 있는 교회들의 실천적 기회, 결론적 요약, 그리고 계속적 탐독을 위해 제시된 자료 등이다.

(일반 문화가 대략 명료하지 않게 사용하는 단어인) “영성”과 “에큐메니즘”의 용어를 정의한 후, 이 연구는 영성적 에큐메니즘을 위한 신학적 근거를 탐구하고, 이 영적인 뿌리를 양육하는 경건과 기도와 예배의 실천을 고려하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인들이 보여주는 모범과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과의 변혁적 대면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가를 조망하고, 이 영적인 토대가 지역적 상황들 속에서 보다 온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생각을 제공한다.

영성적 에큐메니즘의 신학적 근거를 다루는 장은 기도를 주요 조직원리로 사용함으로써 발전되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는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개인적 경건과 예전 모두에서 일치를 위한 기도의 활용을 탐구하고, 일치와 다양성을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는 두 개의 상호 연관된 은혜로 간주한다. 이 장은 일치가 은혜(gift)이자 과제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비전을 향한 희망을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지속하며 살아가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기도와 예전적 실천을 위한 함축성을 다루는 장은,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과 바로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맺어온 열매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찬양한다. 이 장은 특별히 에큐메니칼을 위한 연속기도회의 활용과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과 기독교교회들이 공유하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공동기도문의 실천을 살펴본다.

본문은 순교자들과 성인들과 살아 있는 증인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일치를 향한 원동력의 예들을 제시하고, 순교자들의 증언이 일치를 위한 힘이 될 방식을 궁리하는 독창력을 조명한다. 이 주제는 보세수도회(Monastery of Bose)와 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협력 자문을 통해 발전되었다.

“변혁적 대면의 힘”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이 연구는 다른 신앙전통의 그리스도인

과의 대면은 기독교적 일치에의 추구를 향한 심화된 헌신을 추동했던 영감이었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장은 에큐메니즘의 영적인 뿌리가 보다 온전히 현현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할 실천적인 권고사항을 교회들에게 제시한다. 본문은 5개의 범주로 묶여 있다. (1) 함께 기도할 기회—참여자들이 기독교적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 동안 서로와 관계할 수 있는 방식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에큐메니칼을 위한 성서 연구를 독려하고, 일치를 위한 기도들이 예배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에 집중하기, (2) 에큐메니즘을 증언할 기회—에큐메니칼 운동에 인간적인 모습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방문들을 활용하고, 에큐메니칼 운동 지도자들의 증언 능력을 인정하고, 에큐메니즘에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했던 청년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노출될 기회를 찾아주기, (3) 에큐메니칼 환대(hospitality)를 베풀 기회—에큐메니칼 환대를 보여주기 위한 예비적 계획을 주목함으로써, 그리고 에큐메니즘의 영적인 근원들을 주목하면서,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을 교육 여행에 참여시키려는 의도적 노력을 고려하는 통과예례들, (4)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기회—성경공부 나눔을 통해 공동의 미션 프로젝트들과 그 외 공동체 참여 계획을 근거하는 에큐메니즘의 원동력을 주의깊게 주시하기, (5) 에큐메니즘 교육을 위한 기회—학술직 직원들로 하여금 의도적이고 명시적으로 에큐메니즘의 영적인 뿌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독려하기. 교육 여행은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을 대화와 영적 은혜 교환의 축진을 목적하는 만남에 참여시킬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JWG의 권고를 가리키는 별도의 지적이 필요하다.

청년들에 대한 성찰: 청년의 삶 속에서의 교회,

교회의 삶 속에서의 청년(부록 C)

교회는 청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들의 교회 참여는 교회의 생명력에 본질적인 요소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의 부재는 교회의 생명력을 위협한다.

청년들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문 중 하나이고 또한 자신들의 삶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적합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교회는 그들의 경험과 신앙의 풍성함을 이해하기 위해 청년들과 더불어 토론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점증하는 지구

적 사회의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JWG는 이 압박감의 귀결과 그것들이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좌절감을 교회들이 인식하도록 권면한다. 청년들은 확산되는 정보와 통신기술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 이것들은 그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때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그들의 관계, 관심, 우선순위, 열정, 그리고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또한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동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교회와 사회를 위해 일할 동기와 지구적 연대감을 형성해주시기도 한다. 게다가 청년들은 개인적·영적경험과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들은 교구와 회중과 청년 조직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일부 청년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열망과 표현 양식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그래서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무를 수도 있다. 이는 교회생활에 대한 거북함과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JWG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복잡한 실재를 이해하고 응답하며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귀속감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양육하는 핵심으로서 그 청년들의 욕구와 기대에 교회가 열려 있기를 요청한다.

기독교적 일치를 촉진하려는 청년들의 행동은 에큐메니즘의 역사를 통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JWG는 교회들이 에큐메니즘의 활동에 청년들을 참여시킬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청년에 대한 교회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도록 요청한다. 기독교적 일치를 촉진하는 활동에서 청년들을 인정하여, 그들을 수동적 수혜자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동역자로 간주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로 그 때문에 JWG는 다른 장소들과 교회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원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의 채널을 열었다. “청년을 위한 자원들”(Resources for Youth)이 검토한 영역은 다음의 세 부분이다. (1) 믿음(신앙), (2) 교회에 대한 귀속감(세례), (3) 자신의 신앙대로 살기(제자도). 각 영역은 세 가지 다른 관점을 통해 다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 초대 그리스도인의 증언,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이 자원 소재들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기독교 학생 그룹들과 교구 및 회중 그룹들 가운데서 시험을 거쳤다. 수집된 답변들은 청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역할을 고심하고, 기독교 전통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교회의 역할을 분석하고,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과의 상호작용을 숙고한다. 공동실무단은 교회들이 그들 자신의 기독교 전통에 대한 청년들의 성찰을 살펴보는데 그 도구를 출발점으로 활용하기를 독려한다. 청년들은 교회가 현대 세계에서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 세계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답변들은 청년들이 기독교의 다른 전통에 개방적이지만 기독교적 일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JWG는 청년들이 에큐메니칼을 위한 협력 전략에 보다 의식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교회가 숙고하기를 촉구한다.

미래 전망(2013-20)

JWG를 통해 형성된 모교단 기구들의 조직력 있고 지속력 있는 협력 형식이 구축한 신뢰는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하는 일관성과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위한 지속적인 탐색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 JWG는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교환공간으로서 모교단 기구들의 삶과 활동이 담지한 다른 측면들 간의 협동을 가능케 하고, 그 모교단 기구들과 보다 광범위한 에큐메니칼 운동 모두에서 일어난 발전을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와 우정이 나누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공통의 도전들과 민감한 이슈들을 제기해왔다. 이 협력이 지속됨으로써, WCC와 로마교황청 산하 연관 기구들의 상이한 프로그램 영역들 사이의 관계가 이 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발전되었다.

이상의 모든 기능은 그룹의 크기와 권한기에 상관없이 앞으로의 모든 JWG 활동에 핵심적인 것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2012년 WCC 중앙위원회 모임과 다가오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WCC 관리 그룹은 보다 작은 구성과 동시에 보다 유연한 조직들을 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WCC 산하 모든 관련 위원회와 자문단을 크기와 모임의 빈도수와 활동 방법과 관련하여 평가하고 있다. 모교단 기구들은 이 문제를 더 토론하여, 공동으로 미래적 제안을 개발하고 찾아낼 것이다.

이 임기 동안에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며, 공동실무단은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1. JWG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루어진 협의로부터 얻게 된 일단의 통찰은 현재 임기 이후에도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차기 JWG의 첫 두 본회의가

다시 로마와 제네바에서 열린다면 분명 장점이 있을 것이다. JWG 모든 구성원이 두 개의 모교단 기구들에 대해 상세하고 적절한 지식을 갖춘다면, 실무단의 업무와 잠재력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갖추게 될 것이다.

2. 후속 행사를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제안이 “에큐메니즘의 영성적 뿌리”를 탐구한 연구 그룹으로부터 올라왔다. WCC 이스라엘에큐메니칼포럼과 이주민과 난민문제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Migrants and Itinerant People)와 더불어 성지순례하는 시범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실무단은 추천한다.

JWG는 이민 문제에 대한 토론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교회에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모교단 기구들 간 협력을 증진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

차기 JWG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 지구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상황에 대해 함께 협력하여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고민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공동실무단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맥박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에큐메니칼 관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예측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들이 진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차기 임기의 실무단은 JWG의 핵심 권한에 부응하여 다른 창조적인 가능성을 모색해보기를 권한다. 이것은 “새로운 절차와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모교단 기구들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실무단을 강화시킬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물음은 여태껏 이루어진 작업에 근거하지만, 그 외 다른 과제들을 가리키기도 할 것이다.

JWG는 수용의 행위주체로서, 그리고 에큐메니즘의 영성적 뿌리내림의 촉진자로서 어떻게 보다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주어진 지역에 이주민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의 현존이 어떻게 변화하는 교회적 전망의 맥락 속에서 에큐메니칼 관계를 심화시킬 풍성한 기회가 될 수 있는가?

JWG는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이, 예를 들어 대학에서 그리고 세계 청년의 날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다 더 성숙한 에큐메니칼 협력을 지속적으로 장려해낼 수 있을 것인가?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육성하기 위해 모교단 기구들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

까?

에큐메니칼 운동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강화해낼 보다 효과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오순절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간 공동자문단 보고서

공동자문단 보고서는 2007~12년 자문단의 활동을 회고한다. 이 보고서는 WCC의 친교와 전 세계 오순절교회들 간의 대화를 강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통해 부산 총회를 준비하는 자료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이 보고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신학적 신념들을 증언하려는 공동자문단 구성원들의 노력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각기 다른 전통에 속한 자문단 구성원들의 신학적 성찰을 담지하고 있다. 이는 어느 특정 교회 전통의 권위주의적인 선포가 아니며, 교리적 쟁점에 대한 고백적 합의도 아니다. 이 보고서는 공동자문단의 활동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작성되었다.

1. 공동자문단 이야기

오순절 신앙인들과 WCC 간 공동자문단(Joint Consultative Group, JCG)은 기존 관계들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관계들을 창출하며,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쟁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다른 형태의 참여방식을 검토하며, 협조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1998년 하라레 총회에서 설립되었다.

2000년부터 2005년에 일어난 공동자문단의 1차 토론 회기는 2006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 보고되었다. 그 재임기간 초기부터 공동자문단은 다음의 것들을 추구했다.

-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길 모색하기
- 상호적인 활동과 배움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찾아보기
- 기독교적 증언의 체험 서로 공유하기

-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대면한 도전 토론하기
- 각자의 교회들과 더불어 배운 것 나누기
- 성령 안에서 우리의 공동적 삶에 대한 확증으로 나아가기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는 공동자문단의 보고와 권고를 받았고, 공동자문단의 유지를 지지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오순절교회의 가시적 공헌을 인정하고, 교회일치운동이 오순절교회와의 상호적인 배움과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¹⁾ 인식하게 되었다. 공동자문단의 제2차 토론회기는 두 공동의장의 지도력 하에서 2007년 발족되었다. 오순절교회 구성원들의 대표 세실 로벡 박사/목사와 WCC 구성원들의 대표 제니퍼 리스 목사가 그들이 다. 동등한 규모의 두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기존 구성원들과 신입 구성원들 모두를 포함한다(부록 1).

2. 포르토 알레그레로부터 부산까지

공동자문단은 2007-12년 사이 매년 모임을 가지면서, 제1차 대화 시기에 발전시킨 관계들과 어렵게 구축한 신뢰를 넓혀갔다. 각 모임은 대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또한—오순절교회들과 WCC 산하 교회들 모두—대화와 친교와 기도를 통해 지역 교회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민족 교회들과 지역 회중들과 접촉하는 데도 기여했다.

2007년 공동자문단은 스위스 바르의 포콜라레 센터에서 만났는데, 이 만남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이 독보적인 카리스마적 공동체가 의미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모임은 공동자문단의 역사와 활동에 새로운 일군의 구성원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카리스마와 성례전이라는 교회의 은사에 관해 토론할 여지를 제공하였다.

2007-12년에 의사일정으로 설정된 공동자문단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확증된 교회의 지표—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에 대한 연구에

1) Report of the Policy Reference Committee, “God in your grace...Official Report of the Nin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Geneva, 2007, 281.

근거하여 교회의 본성과 사명에 관한 신학적 대화를 지속했다.

2008년 공동자문단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만나 교회의 “하나 됨”을 토론했다. 그 모임은 정교회 소피아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고, 핀란드교회협의회, 핀란드복음주의루터교단, 핀란드정교회, 그리고 핀란드오순절운동이 만나 토론할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2009년 공동자문단은 홍콩에서 만나 교회의 “거룩함”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이 모임에는 홍콩기독교협의회, 중국그리스도교회홍콩협의회, 그리고 홍콩오순절성결교회가 자리를 함께 했다.

2010년 공동자문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세이 에큐메니칼연구소에서의 만남은 보세이연구소의 학생들과 교수진들, 참베시 정교회센터,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WCC 지도부와 교감을 나눌 기회를 제공했다.

2011년 공동자문단은 라트비아, 리가에서 만나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 토론했다. 공동자문단 모임은 유럽오순절카리스마연구협회와 동시에 모임을 가졌고 그래서 라트비아복음주의루터교회, 오순절교회, 그리고 연합성서학회를 만날 기회를 가졌다.

2012년 공동자문단은 보세이 에큐메니칼연구소로 돌아와서 부산 총회 때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3. 공동자문단이 대화를 통해 배운 교훈

공동자문단은 WCC 회원 교회들과 오순절교회가 대화와 공동기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기회를 보다 더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다. 공동자문단은 2차에 걸친 토론회기 동안 노력의 결실을 가능케 한 방법론의 경험을 증언하여, 이를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라도 제공할 것이다.

에큐메니칼 대화는 시초부터 다음과 같은 헌신으로 인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특별히 대화의 양편이,

- 매일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면서 함께 일을 준비했다.
- 대화의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허락받았다.

• 대화 자리에서 자신의 교단을 진정성 있고 사려 깊게 대표할 인물들로 대화팀을 구성했다.

• 자신의 전통이 고수하는 입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고부동하고, 자각적이며, 박식하고, 헌신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호 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능할 만큼 대화 상대자들의 새로운 통찰과 가르침에 개방적인 사람들을 배정했다.

• 대화의 과정을 원활히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재능과 전체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될 모든 참여자들을 폭넓게 품을 포용력을 갖춘 사람들을 요청했다.

대화는 어떻게 함께 일할지를 두고 노력하는 파트너들로 인해 효과를 보았다. (대화의) 양편이 대화 자리에 가져올 토론거리에 대해서 겸손과 정직과 관대한 태도를 공유하고 복음에 대한 개인적 신앙심을 동반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다. 일단 그러한 헌신이 있게 되면, 대화의 결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열매를 맺었다. 참여자들이,

- 서로에 대한 전제와 고정관념과 우려를 제쳐둘 때
- 상호관계성의 정신으로 함께 목표를 설정할 때. 그래서 함께 소비한 시간이 요구하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상호 동의 가능한 방법론을 발전시켰을 때
-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전통의 편을 들 의도가 보이는 일방적인 행동에 저항했을 때
- 자기 자신의 전통이 담지한 약점을 인식하려 하지 않은 채, 그것을 이상화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했을 때
- 대화 상대자들의 장점들을 고려해보지 않은 채 그의 약점을 표현하고픈 유혹에 저항했을 때
-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이 다하는 한 최선으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통이 담지한 폭과 깊이와 내적 차이와 뉘앙스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대표하고자 할 때

보람찬 에큐메니칼 대화는 모든 참여자의 인격적 헌신과 개방적 태도를 요구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대화는 참여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 대화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수적이

라고 느꼈다.

• 모든 참여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서로를 경청하고 기도해주는 일

- 배움과 가르침 속에서 함께 공유하는 일
- 대화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과제를 책임지는 일
- 다른 참여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최선의 관심을 가져주는 일

에큐메니칼 대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대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삶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측했다.

• 대화를 통해 배운 것들을 자신들의 삶과 자신이 속한 교단의 활동으로 가져가기

- 자신의 (신앙적) 기반 내에서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 정직하고 솔직하게 설명된 다른 전통에 관하여 사랑으로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 정직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대화 시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성과를 교단의 담당자들에게 보고하기

• 가능한 많은 청중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대화 결과를 가급적 분명한 언어로 소통하기

• 그 대화로부터 제시되는 새로운 가능성과 은혜를 기꺼워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향한 추구에 대화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기

4. 공동자문단이 이루고자 한 것

공동자문단의 기본 목표는 (1) 공동자문단 구성원들에게 에큐메니칼 대화의 특정 모델과 상황(공동자문단 모델)을 소개하고, (2) 공동자문단 구성원들이 각자의 교회에 속한 다른 신앙인들에게 기독교 전통을 가로질러 대화하는 다른 방식을 소개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격적 성장과 상호적 용기를 복돋워줄 여지를 허용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공동자문단은 WCC와 오순절교회가 동수의 인원으로 참여하여 구성되는데, 여

기에는 세계 각지의 목사들과 교수들과 교회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포함되었다. 그중 일부는 경험 있는 에큐메니칼 활동가들이었고, 일부는 에큐메니칼 대화를 처음으로 접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교회의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화였다. 이것은 단지 WCC 회원들과 오순절 교인들 간의 대화만이 아니라 WCC 내적 대화이자 오순절교회 내적 대화의 경험이었다.

아주 근원적인 다양성 때문에 공동자문단은 모든 사람의 재능이 잘 드러나도록 대화하는 방식을 찾아야만 했다. 자문단은 신속히 학제간 접근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적 증언들과 기도, 그리고 성경공부와 신학적 대화에 더하여 토론 주제의 전개를 돕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지역 교회들과의 연대를 포함하였다.

공동자문단은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일어나는 국제적·국가적·지역적 발전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지교환국으로 기능하여, WCC 회원 교회들과 오순절교회들 간의 대화를 위한 여러 중요한 기회를 창출해내는 데 이바지했다.

학제간 접근방식을 통해 자문단의 구성원들은 공통의 신앙이 담지한 여러 핵심들을 기꺼이 나누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학적·역사적·경험적 차이가 야기하는 긴장을 처리해나가야 하기도 했다.

5. 공유 자원에 기반한 대화

토론을 위한 주제의 선정과 방식은 신학적 문제들과 교회적 입장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공유 자원들에 보다 더 의존하였다.

자문단의 모든 구성원이 공통으로 간직하고 있던 한 가지는 바로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과 믿음이었다. 이는 특별히 활동의 여정 시초에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개인적 증언들을 나눔으로써 공고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심화된 나눔을 통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 아울러 각 구성원의 전통에 따른 찬양과 기도와 이야기들을 매일 함께 사용하여 기도하면서 이 공통의 신앙이 자라나기도 했다.

공동자문단은 각 구성원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한 주제를 토론하기로 선정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이다. 더 나아가 고대의 공통된 확증, 즉 니케아-콘스탄티

노플 신조(부록 2)에서 공언되었듯이, 교회는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거룩하며 사도적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로 결정했다.

교회에 관하여 말하면서 공동자문단은 이해를 위한 공통의 근원을 모색하였다. 즉 성서이다. 토론 중에 교회의 지표에 적합한 성서 문구들을 공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만큼이나 신학적 입장을 다룬 글들을 토론하는 데 공을 들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의 이야기가 교회에 관한 공통의 확증을 도출해내기 위해 토론을 이끌어가도록 도움을 주었다(부록 3).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주기도를 고백했고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우리의 공통의 신앙을 공유하였다.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서로를 초대하여 우리의 신앙적 여정을 나누고 함께하도록 했다.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언어로서 성서를 성찰했다.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전통들의 신학적 역사적 기술을 숙고했다.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났던 교회들을 격려했고, 격려받았다.

6. 교회에 관한 우리의 토론에 대한 단상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라고 천명한다. 이 고백 문항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표”로 언급된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교회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참된 것(들)이라고 믿는 바이다. (신조의) 천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유된 신앙의 원천으로서, 신실한 자들을 함께 단결시켜 준다.

교회는 하나이다. 신조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천명한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과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을 확증한다. 이것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본성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반영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자신들의 형제에 경험을 심화시키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천명하는 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일치를 확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교회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삼위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거기에는 오직 한 교회, 하나님의 한 백성, 그리스도의 한 지체, 한 복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성례가 있을 뿐이다. 니케아 신조처럼 초대교회의 이 신앙의 확증은 하나로서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엡 4:4-6)을 제시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 됨 혹은 일치하는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 하나 됨은 나눔으로, 형제애로, 교제로, 그리고 (예를 들어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성례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기도로, 공통 예배식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표현될 수도 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이면서 행위의 실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역의 교회들이 교회의 하나 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일치를 가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가는지, 그 교회들이 이 교회의 지표를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 차이들은 역사를 통하여 출현하기도 했고, 신학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고 (각자의) 다른 교회론으로 인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치는 하나의 은혜로서, 또 하나의 소명으로서 이해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의 신앙에 기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신앙을 선포하려는 공통의 목적으로 나아간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는 주장은 신앙을 통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신조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가능한 것이다(신조의 어원인 credo는 “나는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신앙적 주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kadosh/hagios) 계시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시대와 지역들의 피조물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참여하는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분에 의해 자유롭게 교통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교회는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함을 교회에 교통하시기 때문이다.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골 1:22)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엡 5:26-27)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고

전 3:16-17),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유지된다. 우리 모두는 이 기본 진리에 대해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우리 가운데 차이가 드러나는 곳은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 사이에서 우리가 각자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지점이다. 줄곧 묻는 물음은 바로 이것이다. 만일 교회가 “타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면”(엡 5:27), 우리는 성인들의 죄를 어떻게 기술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벧전 1:13-21), 즉 우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엡 4:1-3)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인적 거룩함의 기준은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분별과 훈련의 여지가 거룩한 공동체의 삶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하나의 전체로서”, 그리고 “보편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kath'holou*로부터 유래하는 보편성(catholicity)의 지표는 전체성, 전일성, 통전성, 완전, 그리고—교회와 관련하여—보편성과 에큐메니칼의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어원적 근거를 전제로 할 때, 보편성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하고 기리며 또한 이단과 분열에 직면하여 참 신앙을 확증한다.

보편성은 아울러 공동자문단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교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교회의 임무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동자문단은 이 지표가 하나님의 선교에 연관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보편성과 관련하여 교회의 선교에 관한 다른 관점이 표면을 뒤덮고 있었다. 오순절 전통과 개신교 전통과 정교회 전통은 온전함과 통전성에 대한 각자 자신의 내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보편성의 지표를 성찰하는 모임의 결론을 내리는 자리에서 공동자문단은 유대감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은 확증을 도출해냈다.

“우리는 보편성이 시공간의 보편성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선물(은사)임을 확증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나이나 사회적 조건이나 성(gender)이나 인종이나 능력과 같은 특별성을 포괄하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신앙을 고수해온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교회는 그의 보편성 속에서 예배를 통한 그의 삶과 하나님의 선교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며, 모든 피조물의 성화를 위한 정의와 공화를 추구하고, “평화의 연대 속에서 성령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

한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응답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의존 가운데서만 가능할 따름이다.”

오순절 교인들은 생명을 온전히 주신다(요 10:10)는 주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보편성을 “온전한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이다. WCC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말하는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편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체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동자문단은 재확인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체현하고 보편성의 소명을 다하면서, “상호 책임감”으로 서로를 부르는 교회들의 친교로서 존재함을 인정한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때, 우리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보내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시는 성부,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부가 그를 보내셨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하게 된 진리를 증언하도록 (martyria)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사도성에 대한 주장을 근거를 둔다. 그 진리는 그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현현하였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의 운반자들이다. 이 공통의 소명을 살아내는 것은 곧 말과 행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통의 교제 속에서 현현한다. 예수는 여전히 독특한 방식으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셔서 진리의 메시지를 짊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딤후 2:2)을 지키시며, 그것을 다음 세대의 신실한 자들(딤후 2:2) 곧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지켜져야 할 메시지는 먼저 예수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 체현되었지만, 또한 고린도전서 12:3(“예수는 주님이시다!”)과 고린도전서 15:1-11(가장 중요한 것들)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확증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그 사도(바울)의 확증은 이 진리가 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성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면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전체 교회와 연속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 처음으로 주어진 확증(유 1:3)은 사도들이 그들의 손을 얹고, 감독들(bishops)로 성별하여 임명

한 이들에게 맡겨졌고, 이제 그들은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의) 확증을 전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기본적 가르침이 “신앙의 규범”이 되었다. 그 가르침은 쓰여진 문서 형태로 각 세대를 따라 전해진 “신앙의 유산”의 본질을 체현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신앙의 규범”의 본질은 신조 속에 간직되었고, 이제 많은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서와 신조와 “전통”으로 이해되는 교회의 계속적인 가르침은 사도적 확증의 내용과 맥락을 제공한다. 목회란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교회와 그 구성원들의 예전 혹은 예배와 실천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기본적 진리에 동의한다고 여겨진다.

우리 가운데 차이가 드러나는 자리는 우리의 분리된 역사에 기인한다. 이 신앙의 유산의 전달이 어떻게 수호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목회의 성례전적 혹은 말씀의 은사적 특성에 대해서,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부여되는 제한에 대해서, “신앙의 유산”을 보장할 때 계승의 역할에 대해서 혹은 계승의 중단 없는 연속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에 대한 혹은 성령의 열매(갈 5:22-23)와 은사(고전 12:8-10)가 증거할 사도적 삶의 자리와 의미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나 해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교회에 주어져 온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선포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이 차이들은 공동자문단의 WCC 구성원과 오순절교단 구성원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WCC 회원 교회와 오순절교회 자체 내에도 기존하는 차이이다.

오순절 교인들은 시초부터 사도적 신앙의 선포에 헌신해왔다. 많은 오순절교단들은 (예를 들어 사도적 신앙사역이라는 명칭에서처럼) 자신들의 이름에 “사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도적 신앙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더하여, 오순절 교인들은 교회의 사도성이란 사도적 삶(행 4장), 사도적 활동(요 14:12), 영적인 은사들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들”(행 2:4) 속에 현현한 사도적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7. 예상치 못한 성과

공동자문단은 WCC 회원교회와 오순절교회가 대화로 나오도록 권면하는 일에

관해서라면 인내가 미덕임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인내가 요구되긴 하지만, 상당수의 예상치 못한 결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지난 수년간 공동자문단이 수확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기도 했다. 비록 공동자문단이 이 열매들을 심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자문단의 구성원들은 각 열매가 대화와 공통의 증언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증가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열매들을 양육하는 데 기여했다.

- 2010년 WCC 총무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인 오순절교회 세계총회에서 인사 말을 전했다. 그리고 2013년 개최될 오순절 세계총회와 WCC 총회에 초청 교환이 잇따랐다. 이 수준에서 대화의 인정과 권면은 서로를 향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새로운 양자간 대화가 침례교인들과 오순절 교인들 사이에, 정교회 세계총대주교(콘스탄티노플)와 오순절 교인들 사이에 출현하였다. 로마가톨릭과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 교인들과 오순절 교인들과의 기존 대화에 더하여, 이 새로운 대화는 교회 전통들 사이에 보다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징조이다. 그에 더하여 풀뿌리적 기초 차원에서 교회에 미치는 많은 지역적, 국가적 대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서를 읽고, 공통의 부제 작업에 참여하기 위한 포럼이 있다. 이 대화들에 대한 헌신이 상호적 이해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 글로벌기독교포럼은 가톨릭과 정교회와 국교회와 개신교와 복음주의 및 오순절 전통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글로벌기독교포럼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는 많은 새로운 관계들을 육성해내었고, 가장 광의의 관계들을 심화시켜 내도록 계속 기여하고 있다.

- 대한민국 부산에서 WCC 제10차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초청은 한국 내 WCC 회원 교회들만이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교회를 포함한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모든 회원 교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 초청은 관계성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8. 회원 증언

수년 간에 걸친 공동자문단의 방법론에 대한 개인적 증언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공동자문단의 구성원들은 자문단 활동의 여정 말미에 다음 세 질문에 응답하

도록 요청받았다.

- 우리의 함께 작업하는 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 우리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받게 되었는가?
- 우리의 공동 작업과정을 통해서 분명해진 교회를 향한 도전은 무엇인가?

이 물음들에 대한 응답은 다양했지만, 그 증언들은 긍정적 의미로 도발적이었고, 이 미덕—즉 상호 간 사랑의 인격적 관계의 발전은 교회 간 에큐메니칼 대화가 의존하는 상호적 이해의 확실한 토대를 제공한다—에 대한 압도적인 만장일치의 축하와 교회 간 에큐메니칼 대화들이 생산하는 상호적 이해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사랑 속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성장한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 가운데 성장할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는 공통의 희망을 지향하며 변화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

9. 권고

부산 총회라는 기회를 맞이하여, 공동자문단은 WCC 회원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준비하였다.

WCC 회원교회들과 오순절교회는 함께 성서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교회들은 함께 그 신자들의 일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도록 부름받았고, 그래서 세계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최근 수년간 공동자문단은 세계 속에서 공통의 증언과 교회들 간에 보다 깊이 있는 상호 이해를 위해 지속되어야 할 장래성 있는 결과들을 일구어 왔음을 또한 인식하면서,

권고1. 공동자문단은 WCC 회원교회들과 그 회원이 아닌 오순절교회들 간의 대화를 장려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A. 세계교회협의회 활동에 참여

권고2. WCC는 회원 교회들의 친교가 오순절운동과 조우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오순절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과 신학자들을 품어 나가야 할 것이다.

권고3.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운동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동자문단은 오순절주의자들의 WCC 위원회, 즉 신앙과 직제위원회, 선교와 복음주의 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등에 참여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4. 신학교육과 에큐메니칼 훈련양성, 그리고 청년 사업 분야에서, 예를 들어 신학교육 네트워크(ETE와 WOCATI)와 보세이 에큐메니칼연구소, 청년위원회(ECHOS)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가질 것을 자문단은 권고한다.

권고5. 공동자문단같은 기구가 WCC 회원 교회들과 오순절교회들 간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공식적) 대화와 (비공식적) 대화, 그리고 만남을 주시하기 위한 기반으로 유지될 것을 본 자문단은 권고한다.

권고6. WCC 회원인 오순절교회가 있음을 의식하면서, WCC가 오순절 측의 대화상대자들의 자문을 유념하면서 이 만남과 대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고민할 것을 자문단은 권고한다.

권고7. 우리와 팀들이 만들어가는 다양성과 각 참여자가 할 수 있는 기여의 가치를 인식하며, 우리는 공동자문단 내 오순절 동역자들을 따라 WCC가 균형 있는 참여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 노력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B. 오순절 교인들 간의 대화

오순절운동은 다양하고 세계적이며 성장하는 중에 있다. 공동자문단은 오순절 교회세계연대(Pentecostal World Fellowship, PWF)가 교회들 간의 신학적 교류를 계속해서 보증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C. 국가적·대륙적·지구적 차원에서 대화와 토론과 만남

WCC와 PWF가 지구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교회들 간의, 그리고 세계 공의회들 간의, 더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대화를 장려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WCC 회원 교회들과 오순절교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화에 참여한 자리에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권고8. 세계 전역의 교회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대륙별 차원에서 대화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의 신앙과 공통의 증언을 표현할 새로운 방식을 찾기를 촉구하도록 자문단은 권하는 바이다.

교파별 세계연합체와 오순절교회 사이의 양자간 토론과 대화가 신학적 토론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권고9. 지구촌 교회 전통이 보다 깊은 상호적 이해로 나아가는 대화와 나눔을 계속하여, 교회들 사이에 기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열을 치유하는 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자문단은 권하는 바이다.

권고10. 글로벌기독교포럼이 교회전통을 대표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한데 데려와 포럼을 통해 관계를 맺어나가도록 하여 에큐메니칼 만남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기회를 교회에 열어가도록 도와주었음을 인식하면서, 공동자문단은 이러한 노력이 장려될 것을 권하는 바이다.

부록 1

공동자문단 참가자

세계교회협의회(WCC) 참가자

제니퍼 리이스 목사(Rev. Jennifer S. Leath, 2007-2012), 공동의장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 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리슬리 앤더슨 박사(Rev. Dr Lesley Anderson, 2007, 2009-2012)

카리브해 미국인 감리교회(Methodist Church in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ns)

카이리아키 아브찌 여사(Ms Kyriaki Avtzi, 2008)

- 정교회 세계총대주교(콘스탄티노플)(Ecumenical Patriarchate)
 Father Ioan Chirlá(2007-2012) 로마정교회
 폴 구드리프 박사(Rev. Dr Paul Goodliff, 2007-2012)
 대영제국 침례교연합(Baptist Union of Great Britain)
 마르후트 하파캥가스 목사(Rev. Marjut Haapakangas, 2010-2012)
 핀란드복음주의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Finland)
 투이자 에리나 만스트룀 목사(Rev. Tuija Elina Mannström, 2007-2008)
 핀란드복음주의루터교회
 콘스탄티노스 케나니디스 박사(Dr Konstantinos Kenanidis, 2009-2012)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
 마리나 코로보푸로 교수(Prof. Dr Marina Kolovopoulou, 2007-2012)
 그리스교회(Church of Greece)
 세파스 오메뇨 박사(Rev. Dr Cephas Omenyo, 2007-2012)
 가나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Ghana)
 크산티아 모르피 박사(Dr Xanthia Morfi, 2011)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
 라라 뮐러 목사(Rev Lāra Müller, 2007-2011)
 브라질루터교백복음교회(Evangelical Church of the Lutheran Confession in Brazil)
 에릭 소 목사(Rev Eric S. Y. So, 2007-2009, 2011)
 중국그리스도교회 홍콩교회협의회(Hong Kong Council of the Church of Christ in China)
 테오크세니 수녀원장(Sr Mother Superior Theoxeni, 2007)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

오순절교회 참가자

- 세실 로벡 박사(Rev. Dr Cecil M. Robeck, 2007-2009, 2011-2012), 공동의장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자피 지미 라푸르타 박사(Rev. Dr Japie Jimmy LaPoorta, 2007-2012), 2010년
 공동의장
 남아프리카 사도신앙선교회(Apostolic Faith Mission of South Africa)
 킴벌리 어빈 알렉산더 박사(Dr Kimberly Ervin Alexander, 2008-2012)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 미구엘 알바레즈 박사(Dr Miguel Alvarez, 2010-2012)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 테레사 채 박사(Rev. Dr Teresa Chai, 2008-2012)
하나님의 성회(Asseblies of God)
- 해롤드 헌터 박사(Rev. Dr Harold D. Hunter, 2007-2012)
국제오순절성결교회(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
- 베리-마티 캐르카이넨 박사(Rev. Dr Veli-Matti Kärkkäinen, 2007-2012)
핀란드오순절운동(Finnish Pentecostal Movement)
- 코니 카스텐-반 더 브루게 목사(Rev. Connie Karsten-van der Brugge, 2008-2012)
연합오순절복음교회(United Pentecostal and Evangelical Churches)
- 장-다니엘 플뤼스 박사(Dr Jean-Daniel Plüss, 2010-2012)
스위스오순절선교회(Swiss Pentecostal Mission)
- 폴슨 푸리코틸 박사(Dr Paulson Pulikottil, 2007-2012)
인도오순절교회(Indian Pentecostal Church)
- 스티븐 세이프왈리 감독(Bishop Stephen Safwali, 2007-2012)
안디옥성서교회(Antioch Bible Church)
- 프레더릭 웨어 박사(Rev. Dr Frederick Ware, 2009)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in Christ)
- WCC 청년위원회(ECHOS) 소속 참관자
- 코니 호 얀 어 박사(Dr Connie Ho Yan Au, 2009)
- 니코스 코스미디스(Mr Nikos Kosmidis, 2008)

부록 2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¹⁾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곧 성부이자 전능자요 하늘과 땅,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1) Em tua graça-resources for praise and prayer, Ninth Assembly,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2006; 번역된 신조문들이 다양해서, 영어 본문을 직역하였다.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를 믿는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곧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피조된 것이 아니라 출생하신, 그래서 성부와 한 존재, 한 분이신 주님을 믿는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피조되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육신하시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묻히셨다.

3일 만에 성서에 따라 다시 일어나사,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분은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종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부로부터 나오신 주님이시자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분은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한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도래할 세계의 삶을 바라본다. 아멘.

부록 3

교회의 지표들을 토론하는 데 자문단이 사용한 성서 본문

교회는 하나이다

- 사도행전 2:42-47, 4:32-35
- 사도행전 15장
- 에베소서 4:1-16
- 빌립보서 1:3-11

교회는 거룩하다

- 히브리서 12:1-5
- 이사야 6:1-13
- 레위기 19:1-37
- 베드로전서 2:1-10
- 사도행전 10:9-20, 34-48

교회는 보편적이다

- 룻기 1:15-17, 4:13-17
- 사도행전 11:27-30
- 요한복음 15:1-17
- 요한계시록 7:9-17
- 빌립보서 3:12-16

교회는 사도적이다

- 요한복음 20:21, 누가복음 10:1-20
- 민수기 11:16-17, 23-30
- 고린도전서 15:1-11, 고린도후서 11:5-30
- 디모데후서 1:6-7, 디도서 1:5-9

- 사도행전 2:42-47
- 빌립보서 4:2-9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파별 세계연합체 간 공동자문위원회 2007-2012 보고서

이하의 내용은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교파별 세계연합체(Christian World Communions, CWCs) 간 공동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이다. 보고서 초안은 WCC 중앙위원회(2012년 8월)와 CWCs(2012년 10월)의 총무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의견교환을 위해 공유되었다. 공동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참조하고 WCC와 CWCs로부터 얻은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된 이 최종 보고서는 2013년 부산 총회에 제출된다.

1. 서론

WCC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는 WCC와 교파별 세계연합체(CWCs) 간의 공동자문위원회를 2006년 시작하였다.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CWCs와의 특별한 역할과 위상”을 확증하고 “WCC는 CWCs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건해졌다.”고 설득하면서, 총회는 “회원의 중첩과 프로그램들의 조정 문제, WCC와 CWCs 사이에 가능한 다른 공동의 노력들이 담지한 중요성과 함축성들을 탐구”할 것을 “[...]그리고] CWCs와 고백적 전통의 교회들이 협의를 목적으로 (혹은) 전체 의제 일정을 위해 만날 수 있는 확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WCC 총회들의 구조적 실행가능성을 탐구”할 것을 제안하였다(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정책참조위원회 보고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자문위원회는 2006년 구성되었는데, 구성원의 절반은 WCC 중앙위원회가, 나머지 절반은 CWCs가 지명하는 인물로 이루어졌다.

대주교 나렉 알레메지안 박사(아르메니안 사도교회[실리시아])와 목사인 로버트

월쉬 박사(제자 에큐메니칼 자문위원회)가 각각 WCC와 CWCs를 대표하여 공동자문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했다. 공동자문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제네바에서 만났는데, 본의 아니게 CWCs 총무회의의 운영위원회와 겹쳤다.

2. 공동자문위원회의 활동

a.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공동자문위원회의 회고적 성찰

공동자문위원회의 지난 6년간의 활동을 통해 나타난 근본적인 확증은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공통적 이해라는 상호적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곧 가시적 일치와 공통의 증언을 향한 탐색의 교회적 본성과 교회를 섬기는 데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동역자를 위한 필요를 확고히 주장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육성해나가는 데에 공의회적 파트너와 고백적인 에큐메니칼 동역자 간의 관계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때로 이 관계가 결끄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보다 협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¹⁾

b. 종교 간 대화—새로운 계획과 접근방법

공동자문위원회는 종교간 대화에서 새로운 계획에 협동적으로 호응하도록 WCC와 CWCs를 안내하는 데 기여했는데, 특별히 기독교-무슬림 간 대화와 관련하여 보다 광범위한 그리스도인의 자문을 위한 여지와 WCC를 통해 용이해진 이슬람과의 대화를 위한 공통의 기반을 조장함으로써 기여했다.²⁾

c. 양자간 대화 포럼—공유를 위한 기반

공동자문위원회는 CWCs가 후원하고,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촉진한 양자간 대화 포럼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는 양자간 대화의 통찰과 성과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고, 양자간 대화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포럼이 보다 정

1) Report of the continuation committee on ecumenism in the 21st century 참조.

2) *Current Dialogue*, no.52, July 2012 참조.

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제안들을 지지하고, 양자간 대화에 대한 접근방법을 재고하도록 CWCs를 자극하여 포럼이 교회들에게, 특별히 지구촌 남쪽의 교회들에게 보다 적절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³⁾

d. 총회들—협동적 리더십

공동자문위원회는 보다 넓은 범위의 협력자들과 함께하는 공동 총회에 대한 토론을 재구성하도록 노력하였는데, “합동 총회들”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안전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WCC 총회를 전체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요한 모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여겨졌다. 이는 WCC가 준비하는 총회에 CWCs와 그 외 에큐메니칼 협력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포함한다. 공동자문위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관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보다 온전히 총회에 참여하는 에큐메니칼 리더십의 가치, 예를 들어 산하 회원들을 치리하는 CWCs와 같은 리더십의 가치를 확신하였다.⁴⁾

e. 다른 분야들—시너지 촉진하기

공동자문위원회는 CWCs와 WCC 회원 교회들 간의 여러 공통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특별히 CWCs의 국제에큐메니칼평화회의(IEPC) 참여, WCC와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교황청 종교 간 대화촉진평의회(PCPID)가 개발한 공통 증언을 위한 지침의 준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동자문위원회는 글로벌기독교포럼(GCF)의 지도자들과 정기적인 토론회를 열어 발전들을 점검하고, CWCs와 WCC의 협력적 관점에서 조언을 제시하였다.⁵⁾

3) 2008-2012년에 있었던 제9차, 그리고 제10차 양자간 대화포럼의 보고서들을 참조할 것.

4) 2009, 2011, 그리고 2012년 WCC 중앙위원회에 대한 총회 진행자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보고서들을 참조할 것.

5) *Just Peace Companion;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참조. 아울러 글로벌기독교포럼의 보고서들을 참조할 것.

3. 공동자문위원회의 확증

공동자문위원회의 활동은 WCC와 CWCs 간의 지속적인 협력에 적합한 다수의 기본적 원리들을 확증하였다.

-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적 본성, 말하자면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역들이므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공통의 증언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교회들의 공동체적 친교로서 WCC는 회원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친교를 경험할 공간을 제공한다. 친교와 일치의 에토스는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을 소집하는 데 고유한 역할을 부여한다.

- 교회들의 공동체적 교제로서 CWCs는 공통의 신학적이고 고백적인 유산을 공유하는 한 가족으로서 회원 교회들이 교회의 교제를 경험할 공간을 제공한다. 교제의 에토스는 CWCs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과정에서 성례전적 친교를 심화시키고 교파-교회 간 대화에 참여하는 데 고유한 역할을 부여한다.

-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섬기는 공의회적 구조와 고백적 구조의 협동의 가치: WCC와 CWCs 간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보다 가시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교회의 헌신을 양육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감이 심화되어 온 데 기반하여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적대적인 관계에서 협동적인 관계로 성숙해 왔다.

- 전략적 협동을 위한 인식 영역들: WCC와 CWCs 간 협동이 특별한 적합성을 부여받는 핵심적 영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신앙전통과의 대화를 위해 공통의 기독교적 목소리를 제시하는 영역, 교회들 간의 분열을 화해시키는 신학적 대화를 추구하는 영역, 정의와 평화를 향한 공동의 증언을 추구하는 영역이 그렇다.

4. 공동자문위원회의 권면

공동자문위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적 일치와 공동의 증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교회일치운동을 육성하고 교회들의 친교를 섬기고자 하는 초점을

가지고 WCC와 CWCs 간의 관계를 재고하고 보다 광범위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왔다.

공동자문위원회는 WCC와 CWCs 사이에서 자문과 공유를 위한 유연한 작동기제를 제공해왔다. 공동자문위원회의 모임은 이미 존재하는 교파별 세계연합체 지도자들의 모임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어왔다.

이번 공동자문위원회는 WCC 총회와 CWCs 모임의 총무회의 모두에게 유사한 공동위원회를 유지하여 WCC와 CWCs 간의 상호교류와 협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그러한 (상호교류) 기제는 융통성을 가져야만 하는데, 예를 들어 상호작용을 유지할 만큼 정기적으로 만나고, 다른 사건들을 통해 연락을 유지하고, 교회 대표자들과 교단 지도자들과 그에 부합하는 에큐메니칼 스태프들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융통성을 말한다.

- 위원회는 WCC의 지도부와 핵심 임원, WCC와 보다 깊은 관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CWCs의 지도부를 포함해야 한다.

- 위원회는 책임 소재와 피드백을 위해 WCC 중앙위원회와 CWCs의 총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위원회는 계속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아가면서, 긴급한 현안들에 반응하여 소통과 협력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록 1

공동자문위원회의 모임

공동자문위원회의 모임들은 제네바에서 매년 5/6월 만나는 CWCs 총무회의의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열렸다.

공동위원회가 모인 날짜는 아래와 같다.

- 2007년 5월 10일
- 2008년 5월 14-15일
- 2009년 6월 22-23일

- 2010년 5월 19-20일
- 2011년 6월 8-9일
- 2012년 6월 6-7일

부록 2

공동자문위원회의 참가자들

세계교회협의회(WCC) 참가자들

대주교 나렉 알레메지안 박사(H.E. Dr Archbishop Nareg Alemezian, 2007-2010, 2012), 공동의장

아르메니아 사도정교회 총대교구청(실리시아)(Armenian Apostolic Church Holy See of Cilicia)

더글라스 치얼(Mr Douglas L. Chial, 2007-2012)

WCC

존 지바우 목사(Rev. Canon Dr John Gibaut, 2008-2012)

WCC

에이루나 나나다손 박사(Dr Aruna Gnanadason, 2007-2008)

WCC

미카일 군디예프 대사제(Archpriest Mikhail Gundyayev, 2007-2012)

러시아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

대수도원장 베네딕트 요안누(Archimandrate Benedict Ioannou, 2007)

정교회 세계총대주교(콘스탄티노플)(Ecumenical Patriarchate)

고르지스 레모포울로(Georges Lemopoulos, 2008-2012)

WCC

오데어 페드로소 마테우스 박사(Rev. Dr Odair Pedroso Mateus, 2007-2012)

WCC

래리 피켄스 박사(Rev. Dr Larry Pickens, 2007-2008)

미국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마틴 로브라 박사(Rev. Dr Martin Robra, 2007-2012)

WCC

교파별 세계연합체(CWC) 참가자들

로버트 월쉬 박사(Rev. Dr Robert K. Welsh, 2007; 2009-2012), 공동의장
제자 에큐메니칼 자문위원회(Disciples Ecumenical Consultative Council)

앨리슨 바넷-코완 박사(Rev. Canon Dr Alyson Barnett-Cowan, 2010-2012)
성공회연합회(Anglican Communion)

그즐버트 브야문구 추기경(Monsignor Gosbert Byamungu, 2008-2011)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그레고리 카메론 주교(Rt Rev. Gregory Cameron, 2007-2008)
성공회연합회

브라이언 파렐 주교(Bishop Brian Farrel, 2007-2012)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존 그라즈 박사(Rev. Dr John Graz, 2007-2012)
제7일 안식일 재림교 대총회(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낸시 어빙(Nancy Irving, 2007-2009, 2012)
세계퀘이커협의회(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캐스린 존슨 박사(Dr Kathlyn L. Johnson, 2008-2011)
세계루터교연맹(Lutheran World Federation)

케네쓰 키어론 성당참사회 신부(Rev. Canon Kenneth Kearon, 2009)
성공회연합회

스테픈 라르손 목사(2012)
세계루터교연맹

래리 밀러 박사(Rev. Dr Larry Miller, 2007-2008, 2010-2012)
메노나이트 세계총회(Mennonite World Conference)

이쉬마엘 노코 박사(Rev. Dr Ishmael Noko, 2007-2009)
세계루터교연맹

세트리 니요미 박사(Rev. Dr Setri Nyomi, 2008년 공동의장, 2008-2009, 2011-2012)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존 라다노 추기경(Monsignor Jon Radano, 2007)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도우위 비서 박사(Rev. Dr Douwe Visser, 2009-2010; 2012)
세계개혁교회연맹

에코스 청년위원회 보고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에코스 청년위원회(Echos Commission on Youth)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의 자문기구로서 지난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이래 그 활동과 권한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 레바논 아드마에서 모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눅 3:4).¹⁾

I. 서론

에큐메니칼 운동의 에코스 청년위원회는 레바논 아드마에서 2011년 10월 24-31일까지 제4차 모임을 가졌다. 중동 지역의 교회들과 연대하여 나아가려는 우리 교회들의 공동체적 친교를 향한 분명한 소명을 전제로, 이 위원회는 중동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특별히 레바논 지역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후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레바논의 교회와 조직을 대표하는 여러 청년 에큐메니칼 활동가들과 더불어 세계기독교학생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중동지부가 보여준 환대와 영접에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1) 에코스 청년위원회는 2007년 제네바에서 열린 첫 모임에서 그 이름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앞서 지나간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의 과거로부터의 울림(echos)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또한 이 세대 다음에 도래할 청년들을 위한 기초를 정초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미래로 보내는 울림들(echos)로서 보내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지은 이름의 성서적 전거는 미래를 향한 울림으로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 속에 드러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눅 3:4).”

우리는 또한 레바논 안텔리아스에 위치한 아르메니아 정교회 대주교좌(실리시아) (Armenian Catholicosate of Cilicia) 본부에서 모임을 갖도록 초청해준 총대주교 아람 1세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또한 “레바논의 삼목들”, 곧 신앙의 사람들을 사회적 격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의 증인들로서 크고 강하게 준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 다음은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9차 WCC 총회 이래 에코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기반하여 에코스의 계속적인 활동과 WCC의 미래 지도력을 위한 우리의 지침과 권고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다.

(주의: 우리의 내규, 자기-평가 요약, 총회 기획위원회에 드리는 권고 그리고 관리지속위원회에 제출된 에코스 보고서에 대해서는 첨부된 부록을 참조할 것.)

II. 우리의 임무

제9차 총회는 “WCC 모든 프로그램에 청년의 전적인 참여를 포함하여, WCC의 살아 있는 활동 가운데 청년의 에큐메니칼 지도력 개발의 육성을 승인했다. 청년의 목소리와 관심과 현존이 협의회 활동과 치리의 의사결정과 지도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만 한다”(프로그램지침위원회, par. 15 참조). 결과적으로 제9차 WCC 총회는 “WCC 중앙위원회가 WCC와 연관된 청년들의 다양한 역할을 조정하고 그들 간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표 단체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그러한 단체는 WCC의 활동과 의사결정에 청년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낼 공간을 창출할 것이고, WCC가 청년들과 연관된 목표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정책검토위원회, par. 14 참조).

III. 에코스에 대한 평가

우리의 평가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몇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 이하 관심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응답들과 일치한다.

1. 에코스는 (만일 있다면) 어떤 역량에서 제10차 총회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에코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의 위원회로서 지속될 것을 권고

하는 바이다.

• 에코스는 “정체성 물음들”에 대답해왔고 위원회 안에서, 그리고 위원회를 넘어서서 청년 사역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왔고, 미래 세대의 욕구에 적응할 수 있는 내규지침을 만들어왔다. 이 활동으로 인해 이 위원회의 에코스를 따르는 이들은 그들의 비전을 실현시켜 주도록 준비된 수단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의 위원회로서, 즉 WCC 산하 하부조직의 영향력을 지닌 단체로서 그 활동을 따르는 청년(들)은 그 권한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도울 하부조직의 지위를 승계할 것이다.

• 에코스는 기본적으로 WCC 회원 교회들로부터 모인 청년들의 고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WCC 내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청년 에큐메니칼 운동을 결집해냄으로써 에큐메니칼 전망의 확장이라는 고유한 비전을 촉진한다.

• 에코스는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의 고유한 형식을 촉진한다. 에코스는 실천적이고 지속력 있는 경험을 통하여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즘에서 WCC의 역할, WCC 내 청년과 다른 소외집단들에게 힘을 실어줄 변화로서 WCC와 광의의 에큐메니칼 운동 내 체제 변화를 위한 지지선언, WCC 조직의 전 차원에서 광의의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보다 많은 청년의 참여를 위한 지지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적 청년 에큐메니칼 지도자들로써 서로를 복돋워주는 등의 분야에서 위원들을 훈련한다(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은 위원들이 차례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2. 광범위한 에큐메니칼 운동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을 어떻게 보다 우선순위화할 것인가? 한편으로 현재의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WCC와 그의 고유한 예언자적 목소리의 지속적인 가치를 절감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보다 확장된 에큐메니칼 공간들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일치를 구축하는 특정한 중요한 형식들을 촉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글로벌기독교포럼과 같은) 다른 모델들을 경험해왔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에코스는 여러 파트너 중 하나로서 다른 에큐메니칼 조직들과 교회들을 포괄하는 포럼을 협력하여 촉진하는 일을 우선시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 포럼은 가상적 그리고/혹은 실제 만남을 통하여 실현될 수도 있지만, 이 포럼은 WCC 안에서, 그리고 광의의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청년들의 계속적인 활동에 본질적이다.

3. 에코스 위원회의 물리적 모임들의 가치는 무엇이고, 위원들의 정기적인 만남

과 임기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매 18개월을 주기로 하는) 물리적 만남들이 위원회의 생산력에 본질적이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았다고 해도, 필수적인 작업을 완수하는 데 상당량의 압박감과 난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활동은 보여주었다. 위원들의 숫자와 관련하여, 광의의 청년 에큐메니칼 운동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에코스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25명의 위원들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의 임기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 내규지침에 정해진 대로 유지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IV. 권고사항

201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릴 WCC 제10차 총회에서의 시행을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할 사항들: 제9차 총회의 위임명령을 염두에 두고 또한 에코스가 이 위임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룬 발전들을 숙고하면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 뒤에도 에코스의 존속을 추천하는 바이다. 에코스는 동일하게 정규적인 모임을 가지고 현재의 준칙에 따라 하나의 위원회로서 계속 기능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에코스는 광의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헌신을 특별히 강화시켜 나갈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권고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에코스의 준칙 속에 표현된 다음 목적은 위원회의 가장 긴급하고 확실한 우선순위에야 한다. 즉 “지역별, 대륙별, 지구적 에큐메니칼 기구 출신의 청년들과—WCC의 지지층 내외를 막론하고—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그리고 상호적 교환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을 확장하고 강화하기”(내규지침 참조). 특별히 광의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범주에서 다른 청년교회 지체들과 청년조직의 대표들과 더불어 (예를 들어 가상 모임을 통한) 포럼의 상호촉진을 통해 “상호 교환을 위한 공간들”이 활성화되기를 권하는 바이다.

- 내규를 통한 에코스의 구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져 보다 광의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비율이 에코스 내에서 다소 증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참여 지출경비의 25-99%까지를, 광의의 에큐메니칼 운동 출신으로 우리에게 합류하는 청년위원들에게 혹은 그들을 파송하는 기관에

게 기부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현재 에코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6명의 중앙위원회 위원들, WCC 자문 기구들 각각으로부터 1명의 위원, 최소한 1명의 가톨릭 청년과 1명의 오순절과 청년, 중요 에큐메니칼 청년 동역자들과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 중에서 2-4명,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WCC 회원교회들의 청년들로 나머지 위원들이 구성된다(Doc. No. GEN 09 Section 6[6.1][a-d] Echos By-laws 참조).

우리는 인원구성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균형이 맞추어질 것을 권하는 바이다. 2-4명의 중앙위원회 위원들, WCC 자문기구들로부터 각 1명씩, 최소 1명의 로마가톨릭, 최소 1명의 오순절교회, 최소 1명의 복음주의 계열 청년, 중요 에큐메니칼 청년 동역자들과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 중에 선발된 7명의 청년들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WCC 회원 교회의 청년들로 나머지 위원들.

- 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만날 것(을 권하는 바이다).
- (이 프로그램에 책임을 맡은 중앙부서로서 청년위원회와 더불어) 청년 프로그램의 책임이 최소 1명의 정규 임원에게 일임될 것(을 권하는 바이다).

V.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리고 WCC와 광의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보다 온전한 참여를 유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수행하도록 주어진 사역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또한 에코스가 이러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노력에 기도로, 우리의 관점과 연관된 자문으로, 확신의 문제로 우리를 품어준으로 지지와 후원을 보내준 WCC 내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한다!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지속위원회 최종 보고서

세계교회협의회, 제네바, 2012

대변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성령이시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어,
우리의 협소한 개인적·제도적 관심사들을 넘어 이끌어 가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라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분별하게 하소서.
—위원회 첫 모임의 개막 기도문 중에서

I. 위원회가 걸어갈 길

1.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지속위원회—그 회원자격과 업무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지속위원회(Continuation Committee on Ecumenism in the 21st Century, CCE21)는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이후 설치되어, 2007년 보세이에서 처음 만났다. CCE21의 형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하다. 이 위원회는 WCC에 의해 태동되었지만, WCC의 위원회는 아니다. 회원자격과 권한의 근거는 WCC 중앙위원회에 의해 보장되었지만,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소위 “구조변경과정”이라 회자되는 두 주요 회의의 결과인데, 한 번은 2003년 안테리아스(Antelias)에서, 또 다른 한 번은 2004년 샤반느-드-보기스(Chavannes-de-Bogis)에서 열렸다. 이 모임의 사이 기간 동안 강조점은 “구조조정”으로부터 “21세기 에큐메니즘”로 바뀌어졌다. 이 회담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 제출되었다. 이 두 회의 참여자들은 WCC 회원 교회들의 대표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로마가톨릭교회 대표자들과 WCC 회원과 심

의기관의 도구를 넘어 다른 교회들, 예를 들어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국내 단위 교회협의회들, 교파별 세계연합체, 국제 에큐메니칼 조직들, 그리고 다양한 청년 조직들 등을 포함하여 함께했다. 그러므로 CCE21은—비록 숫자상으로는 적다 할지라도—거론된 기관들과 동일한 책임구역의 대표자들을 포함한다.¹⁾

위원회의 사역 중 특별히 중요한 것은 2004년 샤반느-드-보기스 회의의 가치 선언문이었다. 이 선언문은 에큐메니칼 관계를 통해 출현한 가치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다.

- 기독교적 일치 사역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증하고, 교회들 간의 친교가 강화되는 자리
- 개방적이어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수용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문화가 각자의 일상적 상황 속에서 육성되는 자리이면서,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이 지역적 수준으로부터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교회 생활에서 중심 초점이 되는 자리
- 영성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자리이며, 각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그리고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고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별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
- 소외된 이들과 배제된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포용적이고 정다운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는 자리
- 상호 신뢰에 기반한 관계들이 에큐메니칼 가족의 모든 지체들 사이에서 강화되는 자리
- 그리스도인 각자가 책임 있는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는 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면서,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조직들이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
-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이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인식되는 자리
- 다른 신앙의 사람들에게 환대를 보여주는 자리이고, 대화가 격려받는 자리

1) 위원회는 (WCC 실행위원회가 선출한) 5명의 회원교회 대표자들을 포함한다. 로마가톨릭교회 대표자 1명, 오순절교회 대표자 1명, 에큐메니칼 청년 조직 대표자 2명, REOs, CWCs, NCCs, 전문기관들/전문화된 부처들, 국제 에큐메니칼 조직들, 그리고 에큐메니칼 부흥 공동체로부터 각 1명씩.

- 교회 됨으로서 여성의 비전이 공유되는 자리
- 청년들이 합류하여 이끌어가도록 격려받는 자리
- 치유목회가 실천행위로 공유되고 수행되는 자리
- 기억들의 치유가 화해로 이어지는 자리
- 세상의 부정의와 폭력에 맞서 함께 예언자적일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정의와 평화에 대한 우리의 헌신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리

두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WCC 제9차 총회의 정책검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은 상당 부분 다양한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새로운 에큐메니칼 동역자들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안무하는”(choreograph) 노력으로서, 명확성, 투명성, 소통, 협동적 노력들로 이 관계들을 지표화하여, 전체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계와 대륙들과 현장 교회들에게 기독교의 일관된 은혜 충만한 영적 메시지를 제시하도록 한다.

…“구조조정”(reconfiguration)이라 불렸던 과정은 기존하는 에큐메니칼 구조의 땀질로서가 아니라 에큐메니칼 운동의 관계성을 그 영적 뿌리와 그 선교사적 정체성에까지 심화시키고, 교회들에 대한 에큐메니칼 기구들의 관계를 재확증하고, 다양한 에큐메니칼 기구들 사이의 관계성을 명확히 하고, 그 메시지와 노력이 연계성 있고 일관되도록 보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정책검토위원회는 CCE21의 구성을 권했다. 위원회는 구조조정과정의 두 협의들의 결과에 근거하도록 요청받았다.

WCC의 공동 이해와 비전(CUV)의 통찰을 반영하는 위원회의 자격조건과 권한은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중심적(polycentric)이며, 하나의 개방적인 에큐메니칼 공간이라는 사실로 정리된다. WCC는 중심에 있지 않으며, 그 자체로 공간을 점유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WCC는 단지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공통의 증언과 일치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다른 에큐

메니칼 기구들을 만들어낸 회원 교회들의 친교이기 때문에 WCC는 다음과 같은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타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일을 위임받았다.

- 공동의 비전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공동의 분석을 강화시키는 일
-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 더불어 그들 간의 관계를 육성하는 일
-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자들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 행위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과 수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식을 입증하고 실행하는 일.

CCE21은 이 과제들을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실행 가능한 절차들을 제안하기 위해 모였다. 위원회는 4번에 걸쳐 만남을 가졌는데,

- 2007년 스위스 보세이
- 2009년 브라질 벨렘
- 2010년 이탈리아 로마
- 2012년 에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이상의 네 장소는 모두 위원회가 제기했어야만 하는 중요한 상황과 관심 사안을 대표한다. 즉 에큐메니칼 운동과 에큐메니칼연구소 샤토 드 보세이, 급격한 사회변화의 실재와 벨렘(Belém)의 새로운 교회적 실재, 로마가톨릭교회의 전통과 범세계적인 영향력, 에디오피아 역사 속에 인상적인 뿌리를 두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정교회 중 하나와 아디스 아바바에서 은사주의적인 신앙 표현을 육성하고 있는 루터교회.

2011년 의장과 몇몇 위원들은 메모를 비교하여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에 보다 선명하게 집중하여 다른 기관들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평가지속위원회(Governance Review Continuation Committee, GRCC)와 총회 기획위원회(Assembly Planning Committee, APC)의 대표자들과 만났다.

성서 연구는 언제나 이 모임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즉 에베소서 본문에 대한 연구와 에큐메니칼 비전과 연관된 핵심 본문(요 17:21, 엡 1:10, 골 1:15 이하, 눅 4:16 이하 등)에 대한 연구. 위원회는 성서 본문에 귀 기울이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향한 요청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성서 연구는 위원회가 교회의 일치와 인류의 일치에 대한 비전의 주요 강조점이 성서

와, 진실로, 복음의 명령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WCC가 설립되던 60여 년 전과 비교하여, 이 비전의 지평은 오늘날 과거보다 더 넓어졌다. 이는 변화하는 교회적·종교적 지형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향한 보살핌에도 적용된다. 변화하는 지평이 시선에 들어오면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혹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본문 속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우주적 비전이 위원회에 새로운 방식으로 말해지기 시작했다.

2. 2007년 보세이—여정의 첫 번째 발걸음

보세이의 에큐메니칼연구소에서 2007년 가진 첫 번째 모임에서 위원회는

- 위원회의 권한을 검토하고,
- 변화하고 있는 교회적·종교적 지형을 탐구하고,
- 다음 총회의 성격과 형태를 토론했다. 왜냐하면 총회는 앞에 진술된 과제와 연관된 진척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²⁾

로비나 윈부시(Robina Winbush)는 2003년 안테리아스와 2004년 샤반느-드-보기스에서 열린 “구조조정과정”의 두 협의에 대한 성찰을 공유하였다. 부총무 고르기스 리모포우로스(Georges Lemopoulos)는 비전, 가급적 책임을 강조하는 친교의 확대와 심화 사이의 균형, 변화하려는 자발성, 의사일정을 세울 수 있는 힘, 생명의 영적 차원에 대한 보다 심오한 이해를 향한 필요성,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위원회의 사역을 향한 6개의 핵심 질문에 관하여 말하였다. 루돌프 폰 진너(Rudolf von Sinner)는 토론을 개진하기 위해 21세기 에큐메니즘에 관한 12개의 논제를 공유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관찰로부터 출발했다.

- 기독교의 중심 축은 남반구로 이동했다.
- 지구화와 세계의 개발제한 완화는 또한 부정의와 불편화와 근본주의를 가져오고,

2) 모임 보고서는 2007년 WCC에 의해 출판되었다. Continuation Committee on Ecumenism in the 21st Century, Papers for and a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the committee (Geneva: WCC, 2007)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commissions/continuation-committee-on-ecumenism-in-the-21st-century/report-on-the-first-meeting-of-the-continuation-committee.html>)

-에큐메니즘은 위기에 놓여 있거나 전이과정 중에 있으며, 이 두 요소는 통상 뒤얹혀 있으며,

-종교들은 전쟁 혹은 평화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민족들 가운데 평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종교들 간에 평화가 필수적이다.

그의 첫 번째 논제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두 번째 논제의 전제조건들로서 자기비평과 회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 세 사람의 의견제시가 위원회의 사역을 위한 분위기와 방향을 주도했다. 다음번 WCC 총회가 위원회의 활동의 성패를 결정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요 파트너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이 출석한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보세이 모임은 총회와 덩 치알(Doug Chial)이 촉진한 “확장 공간”에 대한 토론을 포함하였다.

3. 2009년 벨렘—필수적인 도전과 새로운 통찰

2009년 브라질 벨렘의 포콜라레 운동(Focolare Movement)의 마리아폴리스 단지의 아름다운 주변환경 속에서 포콜라레 운동의 계속적인 기도 후원을 받으며 위원회는 변화하고 있는 교회적 지형과 에큐메니칼 지형을 탐색하며, 제도적 도전들을 검토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관성을 보다 높이고, 참여한 모든 동역자들의 사역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선적인 분야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과 신학과 해방세계포럼(World Forum on Theology and Liberation)이 브라질 파라(Parā) 주의 우후죽순으로 뻗어나가는 항구 도시에서 개최되기 불과 며칠 전이라는 벨렘의 상황은 에큐메니칼 협력을 둘러싼 변화하는 조건의 여러 측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도적 도전에 대한 벨렘 모임의 두 번째 강조점은 교회들의 헌신적 동지애의 필요성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확증으로 나아갔다. 이에 근거하여 벨렘 보고서는 이미 WCC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목록을 담고 있는데, 이는 후에 WCC 중앙위원회를 포함하여 다른 포럼에서 토론되었다.³⁾

3) Continuation Committee on Ecumenism in the 21st Century, Report on the second meeting

벨렘 보고서는 공동의 초점과 목적과 분명한 협력 방법론을 가지고 WCC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의 우선 분야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에큐메니즘의 제도적 환경을 성찰해 나아가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고전적 흐름의 최근 발전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의 주요 경향과 대면시켰다. 고전적인 흐름은 그 기원을 교회생활의 기본적인 차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가하는 충격이 그 흐름과 그것들의 제도적 표현을 개조하고 있는 중이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는 이미 더는 가능하지 않다. 배역의 재배치와 새로운 도전이 무시될 수 없다. 벨렘 보고서는 이 최종 보고서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4. 로마—주요 초점에 대한 성찰을 심화하기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가 은혜롭게 주관한 로마에서의 세 번째 모임과 더불어 CCE21은 현대적 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도전이 우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치, 선교, 정의, 봉사, 그리고 지지(평화에 대한 성찰은 IEPC에게 넘겨주었다). 종교 간 협력과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은 상호교차하는 관심 사안들로서 간주되었다.

우선순위 분야와 그것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 경향의 충격에 관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작업하면서, 위원회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 분야가 사실은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현 단계에서 오직 WCC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구조를 요구하는데, 거기에는 그 작업이 회원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파트너들과 더불어 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협력이 촉진되고 육성될 필요가 있는 기존 역할의 배치구조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5. 아디스 아바바

마지막 모임 동안, 위원회는 에디오피아정교회 태와헤도교회(Ethiopian Orthodox Tewahedo Church)와 메카네 예수 에디오피아복음주의교회

of the committee in Belém, Brazil (Geneva: WCC, 2009)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commissions/continuation-committee-on-ecumenism-in-the-21st-century/report-on-the-2nd-meeting-of-the-continuation-committee.html>)

(Ethiopian Evangelical Church Mekane Yesus 등) 에디오피아의 WCC 회원 교회들로부터 상당한 후원을 받았다. 위원회는 결코 온전히 식민화된 적이 없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강력한 기독교 전통을 지켜온 이 나라의 인상적인 역사와 에디오피아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신학적 확증과 최종 보고서에 실을 권고 사항에 집중하였다.

6. 결론적 언급

이 위원회를 의장직으로 섬기고 위원회의 에큐메니칼 여정에 동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였다.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향한 헌신과 위원회 사역에 대한 기여로 인해 위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모임을 주관하고 우리의 작업을 촉진시켜 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위원회 구성원을 통해 대표되었던 이들의 의사결정 기구에게 우리의 숙고의 열매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관계를 양육하고 에큐메니칼 계획과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대면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성령이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에큐메니즘의 미래를 위한 형성적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도와 더불어 이 서론을 결론내리도록 한다.

—나이지리아 감리교회, 대감독 마이클 케힌드 스테폰

II. 현대적 도전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WCC 제9차 총회 보고서, WCC 중앙위원회가 받은 보고서와 문서, 다른 에큐메니칼 조직들과 개별 저자에 의한 출판물, 그리고 CCE21의 계속적인 숙고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시대의 주요 역학관계와 도전과 관련하여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결론내리게 되었다.

교회들은 매우 이동적이고 지구화된 상황 속에서 생명의 의미와 온전성을 부여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에큐메니즘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oikoumene)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가 울며 기도했던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나갈 길을 어떻게 신실하게 정의하고 분별할지를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한 교회에 의한 에큐메니칼적 참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에 대한 그들의 헌

신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지지와 연대로 드러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의 공간으로서, 거기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논증하도록 당사자들을 테이블로 불러모아 효과적 증언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와 생태학과 정체성의 대안적 모델에 대한 기독교적 증언을 제공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제공되는 생명력 넘치는 친교를 입증함으로써 지구적 압박이 가져오는 정체성의 상실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이슈가 모두에게, 즉 개인과 교회 지체와 에큐메니칼 활동가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한다.

최근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는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남반구로 이전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카리스마파 교회와 오순절파 교회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⁴⁾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지구화의 역사적 과정이 각 사회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 미치는 충격이다. 이 변화는 많은 귀결을 낳는다.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이민은 가족 구조에 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생태적·사회적 압박은 유동성으로 귀결되고, 이는 사회적·종교적 정체성들의 다양성을 창출한다. 유동성과 다원주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초와 동일한 규모로 존재하지 않는 요인이다. 이 요인들은 이제 개인적 정체성과 제도적 정체성이 이해되는 방식에 보다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 요인들은 공동체성, 소속감과 충성심에 대한 개인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교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⁵⁾ 이 모호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다양성의 풍성함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교회의 공통 증언과 지지에 대한 주요 도전을 다음과 같이 부각시켰다.

a) 노예제도와 식민지 압제의 귀결들, 가난, 토지 개혁의 부재, 불공정한 교역관계, 전 대륙의 자원과 통제를 위한 전쟁과 갈등, 기본 의료보험 법안 발의 등과 같

4) 가장 최근의 자료에 관해서는 이하를 참조할 것. *The World Christian Databas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http://worldchristiandatabase.org>; 또한 Todd M. Johnson/Kenneth R. Ross, eds., *Atlas of Global Christianity 1910–2010*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데이터가 건전한 통계 소재에 근거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유동성과 정체성은 경제 시스템과 결합될 때 정의의 문제가 되는데, 경제 시스템은 어떤 사람에게 과잉-이동성을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인신매매와 미성년 노동의 경우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은 정의의 문제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정에서 언제나 상위에 있다. 재정 위기와 경제 불황은 오늘날 교회의 언어적 연대와 합동 지지선언과 행동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일어난 경기 하락의 교훈은 정의를 향한 추구하고 지배적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비평이 오늘의 세계를 살아가는 교회에 우선적인 일임을 확신하도록 해준다. 이는 식량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관심, HIV와 AIDS 및 그 외 예방 가능한 질병과의 싸움, 가난 극복, 교육 지원, 건강 증진,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공동체, 즉 청년과 여성과 토착민 공동체와 장애우를 포함하는 공동체를 위한 지지선언 등을 포함한다. 성(性) 간 정의 문제와 인간의 성 문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였다.

b) 경제정의를 향한 관심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관심과 밀접하게 엮여 있다. 갈등과 이민, 특정 생명 공학기술, 그리고 생명 다양성의 상실 등이 야기한 결과를 포함하여, 자연과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효과는 땅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고,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성령의 생명을 수여하시는 힘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요청한다.

c) 소수민과 소수국가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권력 집중은 지구적 역동성의 주요 인자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를 지배했던 양극성 세계체제로부터의 전환은 단극 시스템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새롭게 경쟁하고 있는 권력 중추들과 더불어 일어나는 전이과정은 갈등과 전쟁을 초래하였다. 정의와 화해와 함께 하는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해는 오늘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기장에서 교회의 증언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되었다.

d) 기술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서로 관계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새롭고 대체로 모호한 형태의 공동체를 창출하고 있다. 이 기술이 사람들과 관계맺음으로써 진정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교회에 도전이 된다.

상품이 공동체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장 논리는 교회의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흔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지역적·지구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가 존재하는 곳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경쟁 논리를 믿지 않는 신앙 공동체는 더더욱 소외되고 있다.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조직들을 향한 재정적 후원의 감소는 에큐메니칼 동역자 정신과 공동 증언을 위한 기회를 약화시키고 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대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민족-종교적 근본주의, 상

대주의, 사유화와 시장 이데올로기가 양등하는 복판에서 함께 살아갈 대안적 방식을 신실하게 체현하기를 모색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대개 주변부화화(marginalization)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극복하려는 시도임을 인식하면서 말이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종교적 다양성과 평화롭게 만나면서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주요 관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신학적 안목의 순위매김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운동 활동가들 내에서, 그리고 사이에서 논쟁과 긴장의 이유가 된다. 이 사실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 도전을 제기하면서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조직들이 서로 대면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기반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다.

III. 신학적 확인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과 욕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고 있다. 교회의 온전한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적 토대와 세계를 향한 그의 공통적 증언은 성서, 말하자면 요한복음 17:21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기도(“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위원회는 단언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온전한 가시적 일치라는 목표 역시 세상의 치유와 변혁을 위한 것이라는 게 우리의 이해이다. 정의와 평화를 향한 공동 증언은 언제나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다음에 열리는 WCC 부산 총회의 주제는 이러한 확신과 구상에 잘 들어맞는다.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문화와 종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보다 넓은 지평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살아간다. 사도행전 15장은 민족적·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의 경계들이 엇갈려 교차되고 이제 복음 메시지의 보편적 지평에 마음을 열 능력을 찾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까탈스러운 문제를 사도들이 회피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이방민족” 출신인 우리 중 일부는,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오이쿠메네’, 즉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확대하기로 한 이 합의가 없었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CCE21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실재를 그리기 위해 함께 말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에큐메니즘이 공동체적 교제(communion)의 비전을 제공하여, 개인과 교회들과 운동과 제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koinonia)에 참여하는 중요한 차원을 발견하도록 돕는다고 믿는다.⁶⁾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생명의 온전함에 대한 맛보기이다(요 10:10). 그것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고 거룩한 도성의 도래와 “앞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계 22:2)는 생명 나무의 빛에서 세계의 변혁을 위한 행위를 고취시킨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참여자들 사이에 공동체적 친교를 심화시키고 참여를 확대하며, 보다 큰 일관성을 촉진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세 차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실재를 반영하고, 회원 교회들의 친교의 핵심으로서 코이노니아를 반영한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화해하시고 치유하시는 선교사역에 교회들이 참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누구도 이 코이노니아를 자기 자신에게 한정시키는 데 만족하며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지어 나가도록 항상 초대하며, 타자들의 한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신비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

WCC, 교파별 세계연합회체(CWCs),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들(Regional Ecumenical Organizations, REOs) 국내 교회협의회들(National Councils of Churches, NCCs)에게는 에큐메니즘을 표현하는 그들의 교회중심적 특성의 핵심에 대한 일치가 존재한다. 국제 에큐메니칼 조직들, 에큐메니칼 부흥운동들, 전문기관들, 국제 에큐메니칼 청년조직들 등은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들의 중요한 은사를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가져온다. 함께 모든 파트너들은 하나의 공동

6) 그리스어 코이노니아(koinonia)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 혹은 친교를 가리키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흩어져 서로 대적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 자신(God self)과 서로와 연합시켰다는 확신에 근거해 있다. 따라서 구원과 교회에 대한 그러한 관계론적 이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가 코이노니아이다(On the Way to Fuller Koinonia: The Message of the World Conference, in: Thomas Best and Günter Gassmann,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Faith and Order Paper no. 166 [Geneva: WCC, 1994], 225ff. 참조).

비전에 근원적인 것으로서 친교, 합의제,⁷⁾ 공동 증언이라는 기풍의 중심성에 대해 동의한다. 이 관계들은 앞에 언급된 바로서 핵심 가치들에 따라, 그 기초로서 상호적 존중과 신뢰를 요구한다(2쪽 참조).

예배(latreia)와 선포(kerygma)는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사랑과 기도로 친교를 양육하는 데 본질적이다. 공동체(koinonia)와 증언(martyria), 봉사(diakonia)는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여러 다른 구성의 활동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직화하도록 해준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삶에 고유한 중요한 특징들이다.

현대적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CCE21은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에 결정적인 다섯 개의 주요 분야들을 찾았다.

- 변화하는 교회 지형
- 선교와 에큐메니즘의 관계
- 정의와 평화를 향한 투쟁
- 다른 신앙전통과 종교와의 관계
-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보다 깊은 자각

변화하는 교회 지형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이 새로운 지평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들이 이 통찰을 어떻게 행위로 번역해내는지를 예측하는 많은 실천적 예가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다양한 표현을 통한 그들 간의 주고받음은 그들의 실천행위를 강화하고 고취하며, 협력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담지하고 있는 현대적 상황을 다룬 부분에서 기술했듯이, 변화하는 교회 지형에 따라 제기되는 신학적 물음도 누가 진리를 정의할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누가 타자를 포함하거나 배제할 힘을 가졌는지를 포함한다. 신뢰가 경쟁보다 우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뢰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이러한 기반 위에서만 우리 자신의 교회와 운동 혹은 제도, 타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열어가는 것이 가능하며, 그래야만 건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길을 포용할 수 있다. 이는 분열됨 없이 차이의 한복판에

7) 여기서 합의제(consensus)는 WCC와 다른 기구들 안에서 발전된 바로서 실천을 가리킨다.

서 대화에 머무르며 갈등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점점 많은 수의 기독교 공동체가 교단적 모델과 동일시를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적 본성을 붙들고 씌름하고 있다. 이는 교회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교회에 주어지는 중심적 위치에 불편함을 느낄 운동과 조직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는 어떻게 과거의 긍정적 성과(예를 들어, 에큐메니칼 대화의 결과)를 저버리지 않고 동시에 그러한 공동체와 공간을 공유하며, 헌신과 상호적 책임감을 심화시켜 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선교

CCE21은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복음주의와 증언, 생명을 향한 보살핌을 포함하여, 선교에 대한 전일적인 이해의 핵심적 중요성을 단언했다. 선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는 *exapostole*인데, 이는 파송(sending)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파송/공동선교는 성부에 의한 성자의 파송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두 파송의 신성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란 *missio Dei* 곧 하나님의 선교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살핌이 우리의 원형(prototype)이 되어, 성령의 은사에 의존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는 사랑, 즉 케노시스(kenosis)⁸⁾로부터 배움을 얻는데, 이 자기비움이 그리스도의 선교의 출발점이었다. 선교 사역자들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그 후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에게도 동등하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선교와 사랑과 케노시스는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한 불가분리한 전제이다.

21세기 에큐메니즘의 상황 속에서 선교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선교적 활동과 에큐메니칼 대화가 상호 존중의 관계와 책임감과 신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개종은 이 토대를 파괴하고 대화와 책임 있는 선교에 걸림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통 기반은 “남의 터 위에”(롬 15:20) 건축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선한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보다 긴밀

8) 빌립보서 2:5-11, 특별히 그중 7절 참조.

한 이해로 나아가려 할 때 이 문제는 진지한 대화를 요한다.

기독교 공동체 간에 조율과 협조가 결여되었을 때 야기할 수 있는 신앙고백 간 문제 외에도, 다른 신앙의 사람들과 예민한 관계가 인식되지 않을 때, 실정에 어두운(uninformed) 선교활동은 지역 공동체에게 문제시될 수 있다. 선교사들은 또한 선교의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도록 부름받았고, 그 상황에서, 그것이 지역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종교적이든, 성별에 국한된 문제이든 간에, 이 요인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도록 부름받았다.

정의와 평화를 향한 투쟁

정의와 평화를 향한 추구는 교회의 사명의 핵심이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각 인간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와 공동체로 엮여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교제를 반영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는 정의를 본질적으로 관계적 문제로, 그리하여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문제로 만든다. 그것은 생명 안에서 전체성이고 온전함인 하나님의 의향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다. 정의는 생명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것이 함축하는 바이고, 이는 곧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의를 향한 추구는 불평등한 분배와 권력의 남용 문제를 제기하도록 우리를 부른다. 이는 흔히 다양한 형태의 억압을 통해, 즉 경제적 불평등, 성적 불평등, 인종적 불평등, 그 외 불평등의 형식을 통해 보여진다.

생명과 피조물의 파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권력은 붕괴로 나아가, 하나님과 서로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권력의 남용을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약함 속에서 우리와 공유된 인간성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 약함으로부터 우리는 정의의 삶으로 부름받았다. 권력과 약함의 물음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성육신과 케노시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주시한다. 가난한 난민 가족의 아기로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약함과 동일시하기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기비움과 십자가의 실재를 견디어내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권력과 약함을 철저히 재정의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인간 공동체와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치유하고 변혁하는 방식

으로 힘, 즉 권력을 전환하도록 부름받았다.

성령의 열매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보장한다(갈 5:22-23). 정의와 화해를 위해 일함으로써 평화가 촉진된다. 정의는 인간관계와 사회체제 속에서 권력과 약함의 역학관계를 균형 맞춘다. 정의는 회피할 수 있는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래서 평화에 기여한다. 정의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표현은 세계와 접촉하게 하고 세계를 위해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에 목적성을 부여한다. 정의의 사역을 향한 헌신은 때로 교회 내에 긴장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치의 은사와 부르심이 지속 가능한 전체를 향해 나아가면서, 긴장을 뚫고나갈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준다.

디아코니아는 세계 속에 현재하는 고난에 대한 즉각적 응답이다. 디아코니아는 21세기 선교의 자연스러운 동역자이다. 정의는 디아코니아와 연결되어 있는데, 정의가 살아 작용할 때 디아코니아가 가장 잘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의는 디아코니아, 즉 봉사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이슈와 씨름하고 있다. 정의 없는 디아코니아는 아찔하게 된다. 봉사 없는 정의는 무정(heartless)하고 심지어 파괴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 속에서 정의를 목표로 일하기 위해 우리는 시민운동과 조직들, 다른 신앙전통의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부름받았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종교 간 대화

평화의 도구 또는 갈등의 화신 둘 다 될 수 있는 종교의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다른 방식을 찾기 위해 종교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계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때론 평화 속에서 때론 갈등 속에서—나란히 살아왔다. 다른 지역에서는 탈식민지 이민과 세계화로 인한 다종교적 사회가 비교적 최근의 사실이다. 어떤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수세기 동안 다른 신앙 가운데서 소수자로 살았다.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는 사실상 유일한 종교였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상황이 종교 간 관계와 협력에서 다른 출발점을 갖게 했고, 이는 에큐메니칼 운동 내에서 다른 신앙전통의 대표자들과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갈 때 인식되고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을 이 세계로 파송하셔서, 성령으로 유지하시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평화의 증인이 되고 평화의 대행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요 20:19-23, 행 1:8). 이는 종교적 저의를 갖고 있는 갈등 속에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의 연대를 요구한다. 이 연대가 결여되어 있는 자리에서 대화의 신뢰성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피조되었다(창 1:27)는 확신 속에서, 종교적 다양성은 차례로 풍요로움의 원천으로 고려될 수 있다. 어떻게 이 공통의 인간성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자를 향해 세워놓은 경계를 도전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무시함이 없이 배제(의 기제)에 도전하는 다른 신앙의 대표자들과 관계 맺도록 부름받았다.

창조

교회는 살아 있는 신비, 즉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의 기호와 도구가 되도록,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를 통해 부정의와 전쟁과 환경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전체 피조물의 화해와 치유(골 1:15, 엡 1:10)에 기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교회 자체의 분열과 적개심의 분열의 장벽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교회는 이 세계의 계속적인 새 창조의 넓은 지평에 참여한다.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해되는 오이쿠메네는 이 넓은 지평과 도래할 하나님 통치의 종말론적 기대를 가리키는데, 이는 또한 피조물의 신음(롬 8:18ff.)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교회의 공동 증언은 생명을 유지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변혁적 힘의 약속을 전달하고, 지구 위의 인류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한 정의와 화해와 평화에 이바지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친교를 의미하는데, 바로 여기서 교회는 전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공통적 역할을 보게 된다.

이 세상에 대하여, 즉 생명에 관하여 언급되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곧 생명의 의지로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생명의 영으로서 하나님.⁹⁾ 이 생명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에서 모든 것은 잠재적으로 다양성의 일치 안에 현존하고 구속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하나

9) Olav Fykse Tveit, *Christian Solidarity in the Cross of Christ* (Geneva: WCC, 2012), 3ff. 참조.

님이시다.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 “태초”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시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듣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인 말씀, 즉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사용에 참여하여 어둠과 혼돈의 한복판에 빛과 질서를 소통하도록 부름받았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곧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호흡은 피조물 전체에 생명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은 세계 전체, 즉 오이쿠메네를 움직이시며 또한 교회를 움직이신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선물로서만 받을 수 있다. 곧 타자를 위해 타자에게 주어져야 할 선물(로서). 창조 이야기를 담은 본문들은 중성적이지 않다. 창조 이야기는 인간 존재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외부의 구경꾼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창조 이야기는 겸손과 피조된 모든 것을 향한 보다 강력한 사랑, 그리고 피조물을 보살피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를 요청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 위를 살아가는 생명의 미래가 핵무기에 의한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기후변화와 생물학적 다양성 상실로 인하여, 일상의 갈등과 전쟁을 통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경작지와 수원지와 동물을 중독시키고 파괴해온 가난과 굶주림을 통해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는 다가올 세대의 생명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IV. 제도상의 도전

세 가지 각각 다른 구성을 갖추고 있는 제도적 도전이 존재한다.

- 첫 번째 도전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고전적 흐름들과 관계한다.
- 두 번째는 20세기에 발전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각각 다른 제도적 표현과 관계가 있다.
- 세 번째는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적 도전을 가리킨다.

과거의 주요 흐름들¹⁰⁾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시적이다. 회원 교회들에 기반하여 초창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요 흐름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시켜 내는 것이 WCC 창립 세대의 독창적 발상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그 흐름이 우리가 마주치는 운동과 제도 속에서 계속해서 대변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 중점을 두는 에큐메니즘이라는 오늘날의 흐름은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활동을 넘어서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에큐메니칼 운동에 합류한 로마가톨릭교회와 더불어, 교파별 세계연합회회를 주인공으로 놓고, 로마가톨릭교회와 다른 (기독교 계열) 세계연합회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양자간 대화가 가시적 일치를 향한 추구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¹¹⁾ 제기되어야만 할 물음은 이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WCC와 교파별 세계연합체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들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선교운동과 삶과 사업운동은 최근, 특별히 상황신학의 영향과 지구촌 남반구 교회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아래서, 현격히 변화해왔다. 문화와 사회 정의에 강렬한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신학의 관점은 선교신학의 범위와 교회와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확장시켜 왔다. 이는 긴장과 갈등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 역학관계는 여전히 현대의 논쟁 속에 반향을 울리고 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에큐메니칼 봉사와 개발 분야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전문화된 목회기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져온 여파이다. 수십 년간 건강, 교육, 사회활동 분야에서 적극적이었던 선교 협회들은 개발기관들과의 중복을 회피하거나 활동을 합병하도록 점점 더 많은 요청을 받고 있다. 전문

10)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 가지 고전적 흐름은 선교사 운동(1910년 에든버러), 신앙과 직제운동(1927년 로잔), 삶과 사업운동(1925년 스톡홀름)이다. '신앙과 직제운동과 삶과 사업운동은 함께 WCC를 조직하게 되었고,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는 1961년에야 합류하게 되었다. WCC의 삶과 사업에 아울러 기여해온 다른 작은 기구들이 있었는데, (1948년에 이미 WCC에 편입되었던) 국제문제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Affairs), (1971년에 편입된) 세계기독교교육협의회(World Council of Christian Education) 등이 그러한 기구들이다.

11) 이 맥락에서 '범정통주의협의회'(Panorthodox Council)를 향한 새롭게 일신된 자극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statement by the Synaxis of Orthodox Hierarchs in November 2008 in the Phanar 참조.

화된 목회기관들의 기금 모금과 지지 캠페인들은 또한 정부와 그 외 다른 국내 활동가들의 이해와 지지방식에,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유엔에 대한 이해와 지지 방식에 영향을 미쳐왔다. 때로 이들은 경쟁적인 접근방식이지 결코 보완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인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에큐메니칼 운동 내 재정적 자원들의 분배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은 선교 참여와 에큐메니칼을 위한 노력들 내 권력 관계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해왔다.

일부 복음주의 계열 조직과 에큐메니칼 조직 간에 소외가 심화되었던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CWME)는 은사주의 계열, 오순절 계열, 아프리카 계열의 제도 교회들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 교회들은 CWME에 함께 참여하자는 초대에 보답하여 응했다.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 100주년 기념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런 사례이다. 종교 간 참여를 포함한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은 개종에 관한 행동강령과 연관된 일련의 자문과정이다. 오늘날의 선교, 복음주의, 개종, 혼합주의, 그리고 개종주의의 이해와 연관된 차이가 제기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신뢰와 믿을 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글로벌기독교포럼(Global Christian Forum, GCF)은 은사주의 계열, 오순절 계열, 아프리카 계열 제도 교회들과 대화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기반으로서 출현하였다.

이 관찰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제도적 배열이 보다 다양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전통적 흐름의 전망을 바꾸어버린 요소는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요 조직상의 표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에큐메니즘의 다른 영역 간 관계 분석에 따르면, WCC와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들, 교회협회의들, 그리고 아프리카 소지역 교회협회들 간에 의도적인 협동과 업무분할이 점증하고 있다.¹²⁾ 이는 부분적으로 많은 교회협의회들과 대륙별 에큐메

12) 질 허키(Jill Hawkey)는 스위스 샤펠-드-보기스에서 열린 21세기 에큐메니즘에 관한 자문에서 현재 에큐메니칼 구조와 관계를 작도한 자신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그 발표의 부록 V, 66-80). 다른 협력기관들의 풍성한 활동자료가 전문목회기관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WCC 원탁회의를 위한 연례 협력자 조사연구(Yearly Partner Survey for the WCC Roundtable)에 의해 이용 가능해졌다. 이 자료의 활용을 위해, WCC는 지역 에큐메니칼 조직들과 또한 제네바에 본부를 둔 두 세계연합회

니칼 기구들이 처한 연약한 재정적 상황 때문이다.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들이 이 도전들에 맞서고 있는 동안, WCC와 다른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후원하기를 지속했다. 이제는 분명한 업무 분할의 상황과 필요성에 부응하여 다양한 우선순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가 나누어져, 에큐메니칼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었다.¹³⁾

특정한 목표 집단이나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다수의 조직이 국제 에큐메니칼 조직들로 대략적으로 정의된다. 그들 중 일부, 예를 들어 세계학생그리스도교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과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와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등은 그 기원이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반면 에큐메니칼 뉴스 인터내셔널(Ecumenical News International), 국제교회협력실천기구(Action by Churches Together International, ACT International)와 개발을 위한 교회협력실천기구(Action by Churches Together for Development)와 같은 다른 단체들은 겨우 최근에 만들어졌다. 세계그리스도교커뮤니케이션연맹(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의 총무와 WSCF의 전무이사는 CCE21에 대표자들을 파송해왔다. 그들의 개별적 공헌을 파악하고, 다른 에큐메니칼 조직들과의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WSCF와 세계정교회청년연합(Syndesmos), 그리고 YMCA와 YWCA 같은 청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단체 간의 협력이 점증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WCC 회원 교회들을 넘어서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WCC의 에코스 청년위원회의 발족 또한 협력 증진에 기여해왔다. YWCA 또한 (HIV/AIDS를 위한 활동처럼) 우선순위의 분명한 집중을 통해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보다 분명한 우선순위 설정의 필요성은 기금의 형성을 전문 목회기관들과 다른 기부자들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들(세계루터교연맹과 세계개혁신교회연맹)의 발전을 분석하였다.

- 13) 이하는 업무 협력관계 개선의 몇 가지 예들이다. (아프리카지역 교회협의회, 유럽지역 교회협의회, 중동지역 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카리브인 교회협의회, 태평양지역 교회협의회 모두를 포함한) 지역 에큐메니칼 조직과 더불어 WCC는 이민과 무역 문제에 관하여 지역 간 협동을 배양해 왔다. 전아프리카교회협의회(All African Conference of Churches, AACC)는 아프리카 지역의 가난 문제에 초점을 두고 WCC가 진행하는 경제정의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태평양지역교회협의회(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고 협력하고 있다.

경향이라 생각된다.

교파별 세계연합회는 로마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와 오리엔탈 정교회, 그리고 그 외 다른 교회가족들을 포괄한다. 그들은 선교와 에큐메니칼 실천과 봉사에 참여하는 범위 면에서 다양하지만, 그들 모두가 기독교적 일치에 기여하고 있는 한 가지 주요 공헌은 양자간 대화에 참여이다. 교파별 세계연합체의 총무들의 연례모임은 친교를 심화시키고 에큐메니칼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WCC와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또한 대표자들을 파송한다.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세 개의 새로운 제도적 도전이 있다(이들 중 일부는 이전에 휩쓸고 지나갔던 성향에 다시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다).

첫째,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킹이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개발된 두 개의 기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활동가들의 광범위한 동맹을 통해 협력을 가능케 하는 특정 이슈들에 집중하는 네트워킹이거나, 보다 광범위한 기획을 제시할 능력을 지닌 일군의 활동가들에 집중하는 네트워킹이다. 에큐메니칼 지지연대(Ecumenical Advocacy Alliance, EAA)는 첫 번째 접근방식의 예가 된다. 국제교회협력실천기구연맹(ACT Alliance), 즉 국제교회협력실천과 개발을 위한 교회협력실천의 국제교회협력실천 글로벌(ACT Global)으로의 합병은 두 번째 접근방식의 예가 된다.¹⁴⁾

둘째, 고전적인 에큐메니칼 운동, 즉 Churches Together, 기독교협의회, 글로벌 기독교포럼과 같은 운동 수준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기반이 존재한다. 이 조직기반은 개방적인 대화에 보다 집중하고, 상호 책임감 훈련에는 다소 느슨한 경향을 갖고 있다.

셋째, 지역적·국가적으로 종교 간 협의체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 교회협의회들을 대치하고 있고, 다른 협의체들은 갈등 상황 속에서 화해와 평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종교 간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새로운 기회가 출현하고 있다.

이상 세 차원의 제도적 도전은 어떻게 새로운 실재와 역동관계가 제도적 발전

14) 가장 최근호의 Joint Newsletter of ACT International and ACT Development, Dec. 2008을 참조.

과 변화를 추동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예증한다. 거기에는 (a) 에큐메니칼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들에 소속된 이들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b)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c)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적 표현과 조직의 보다 큰 일관성을 확보해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행동을 관찰가능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정교회의 WCC 참여관련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 합의제 및 공동협력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ssion on Consensus and Collaboration)의 추후 작업에서처럼 방향성을 잡아줄 비전과 가치에 대한 철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에큐메니칼 활동을 작도하고, 각 에큐메니칼 조직의 은사(charism)를 정의하고 각 조직의 활동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해야 할 지속적 필요성이 있다.

친교관계를 심화시키고, 에큐메니칼 운동에로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큰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은 WCC의 과제에 속하는데, 이를 통해 WCC는 회원교회들을 섬기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모든 동역자들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 하나의 에큐메니칼 공간이나 하나의 테이블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이들을 소집함으로써 WCC는 이 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CCE21과 WCC 총회 진행자문위원회(WCC Assembly Discernment Committee)¹⁵⁾는 이 소집 역할을 수행할 WCC의 의지와 그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이 WCC를 에큐메니칼 운동의 특권적 도구로 가까이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들인데, 이들은 곧 회원교회들의 친교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향한 헌신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운동의 중심으로 인식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소집 역할은 발전을 촉진하지만, 그것은 또한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고(discern), 새로운 통찰을 각성시킬 역량을 요구한다. 이는 소집 기능이 예언자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소집에 관한

15) 2006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WCC 제9차 총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축하하고, 교회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교회들을 소집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총회”의 비전을 나누고, “토론과 전체 의사일정을 나눌 목적으로 교파별 세계연합체와 고백교회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확장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WCC 총회구조 개편의 실행가능성을 탐색”하라는 특별 책무에 동의하였다(policy reference committee report). 총회 진행자문위원회는 이 권고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2월 WCC 중앙위원회에서 설치되었다(Continuation Committee, Belém report, 32. 참조).

특권적 역할을 수용하는 데 더하여, WCC는 담론을 형성하고 고취하는 참여적 회원이 되고자 한다. WCC는 또한 갈등의 회피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제조건들이다.

V. 주요 초점

에큐메니칼 운동의 구조변경, 즉 에큐메니칼 제도의 구조변경으로부터 21세기 에큐메니즘으로의 강조점의 전환이 있었다. 이 전환은 신학적·상황적·제도적 도전간의 합류를 보다 유념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적인 뿌리를 상기함으로써 공통의 근거를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다. 즉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치와 증언을 통해 하나 됨을 가시화시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요 17:21). 가시적 일치성과 공동의 증언을 향한 추구가 담지한 교회적 본성을 다시금 확인함으로써, 교회들은 서로 자신들의 공통의 뿌리와 공통의 여정을 상기한다. 교회들은—그들의 교리와 전통을 따르는 구성원들과 그 지도자들은—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역이다. 공동의 증언에 함께 보다 깊이 참여하는 교회들은 하나가 아니라 모든 에큐메니칼 가구들을 강건케 할 것이다.

예배와 선포는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사랑과 기도로 친교를 양육하는 데 본질적이다. 공동체와 증언, 봉사는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설명하듯, 여러 다른 구성의 활동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직화하도록 해준다.

a. 가시적 일치를 향한 추구는 양자간 접근방식과 다자간 접근방식 사이의 신중한 상호작용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양자간 대화에 관하여 WCC가 소집한 포럼은 이 상호작용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 모델은 이 대화의 장에 등장할 다양한 역할과 일치에 대해서 알려진 다양한 이해를 분명하게 밝혀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

b. 21세기 선교는 WCC 회원 교회들과 복음주의 계열, 은사주의 계열, 오순절 계열 교회들 사이의 관계에서 관건이 될 핵심 이슈이다. 2010년 에든버러 대회는 이

일정을 향한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추후적인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로마가톨릭 교회와 다른 에큐메니칼 지체들이 21세기의 선교에 중요한 비판적 이슈에 참여하고 있다.

c. 경제 정의, 창조, 평화, 화해를 향한 교회의 참여는 “참여의 한 장”을 위한 하나의 초점을 제공한다. 교회들, WCC, 교파별 세계연합체 일부, 그리고 에큐메니칼 봉사와 지구적 지지에 전문화된 목회기관의 역할은 이 ‘장’에 속하는데, 그 안에서 교회들과 전문목회기관들 간의 관계가 다루어져야만 한다.

d. 앞의 세 초점은 종교 간 대화와 협력 속에서 다양한 에큐메니칼 활동가들의 역할을 다루는 네 번째 초점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종교 간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향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시급한 문제이다.

에큐메니즘의 영적인 뿌리를 육성하는 일과 모든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형성을 위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 등과 같은 다른 관심사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우선사항으로 간주되었다.

제기되어야 할 물음은 다음과 같다. 이상 네 개의 초점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계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공통적 노력을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대적 도전에 대한 공유된 이해, 에큐메니칼 비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의 기본 요소에 대한 신학적 성찰, 친교와 합의의 풍토를 육성하는 일은 네 개의 주요 주제적 초점의 작업을 거쳐 공동의 행위를 위한 보다 견고한 기초로 나아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번성을 촉진한다고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진행과정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제안한다고 여겨진다.

VI. 권고사항

현대의 제도적 도전과 우리의 신학적 확증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CCE21 구성원인 우리는 모든 이들에 의한 보다 의식적인 협동 가운데 에큐메니칼적 소명의 은혜를 수행할 기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WCC,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들, 국내 교회협의회들, 교파별 세계연합체, 에큐메니칼 청년운동, 전

문목회기관들, 부흥운동,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그리고 전통적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회와 기구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는 오순절 계열, 은사주의 계열, 복음주의 계열 교회들을 포함한다.

기본적 권고사항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향한 성서적 부르심(요 17:21)과 모두를 위한 생명의 온전함을 위한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요 10:10)에 헌신하고,
- 우리의 활동이 일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함께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 심지어 분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신학적·윤리적 이슈들에 참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서도 우리의 일치됨을 살아낼 건설적인 길을 찾아내야 한다.

변화하는 교회적 전망의 함축성

그리스도인의 인구중심이 남반구로 이동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현재로서는 참여하지 않는 새로운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CCE21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모든 동역자들에게 권고한다. 모든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은,

- 자신들의 관계성과 실천 행위 속에서 이러한 사실의 함축성을 분별하고 참여할 것,
- 지구촌 남반구의 전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촉진할 것,
- 현재 에큐메니칼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의 기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
- 전 세계 도처의 이민자들과 그들의 교회를 남반구와 북반구를 통합할 기회로서 수용할 것,
-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느 지역에 속하건 서로 배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모델을 장려함으로써, 불공평한 분배와 힘의 유용문제를 제기하라.

조직적 함축성

에큐메니칼 참여를 확고히 한다는 것은 하나의 운동이고 새로운 교회적 전망은 다중심적 특징을 갖고 있으나, 에큐메니칼 공간의 친교를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직적 함축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CCE21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 WCC는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동역자들에 대한 선물로서 소집 역할을 떠맡을 것,¹⁶⁾
- WCC는 그 자신보다 큰 역할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운동의 중심임을 주장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동역자들을 소집한다(최근의 긍정적 모델들은 CCE21의 구성과 총회 준비과정을 포함한다),
- 소집 역할의 일부로서 WCC를 치리하는 지체들은 총회와 총회 이후 구조들뿐만 아니라 위원회들의 활동과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 재고할 것,
- WCC와 다른 조직들은 참여를 가능케 할 적합한 구조와 방법론을 찾을 것,
-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부착된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려는 상호적인 모든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고 각자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에 가져올 은사를 확증할 것,
- 국내 교회협의회들과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그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할 비전을 가지고 모든 수준에서 일관성이 강화되도록 지구적/대륙별 역학관계를 평가할 것,
- 지역 회중들과 공동체의 살아 있는 실재에 연결되어, 혁신적인 환대의 방법들을 확증할 것,
- 현재의 재정적 제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집중력 있고 일관성 있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창조적인 방식을 찾는 한편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비전과 활동이 가져오는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들로 하여금 자원에 투자하고 발견하도록 독려할 것,
- 재정적 변화상황과 운동 내에서 도전이 되고 있는 권력관계를 제기할 것. 그래

16) 소집 역할은 WCC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위의 교회(super-church)도 아님을 분명히 한 1950년 토론토 선언문이 정한 한계와 인식 속에서 행사된다.

서 사업일정들이 수입원에 의해 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할 것,

- 서로를 동행하며 세계 차원의 운동을 대신하여 다른 지역에서 연대로 호응하는 창조적인 길들을 모색할 것, 이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다른 부문들과 연결된 고리역할을 감당할 조직들의 대표들을 갖거나 “살아 있는 편지들”(living letters)¹⁷⁾의 대표들을 파송하는 일 등이 포함될 것이다.

-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인의 증언”¹⁸⁾ 과정에서 일어난 협력관계를 주목하라. 우리는 모든 활동가들이 이슈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공동의 도전들을 극복하고 공동의 나아갈 길을 만들어낼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한다.¹⁹⁾

- 에큐메니즘의 총회 모델을 강력히 주장하고 동시에 양자간 대화와 다자간 대화를 가치 있게 평가하고 지지할 것,

- 다양한 조직이 가져오는 다양한 과정과 은사의 고유함을 확신있게 주장할 것,

- 개방적이고 정중한 대화와 이 문서에 진술된 핵심 가치²⁰⁾에 대한 상호적 책임감을 위한 여지를 창출해내기 위해 새로운 과정의 일부는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타자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 참여 기반과 새로운 과정을 다시금 검토하고 확증할 것.

VII. 위원회 참가자 명단

마이클 케힌데 스테픈 감독(Archbishop Michael Kehinde Stephen), 의장

나이지리아 감리교회(Methodist Church Nijeria)

카린 아하텔스테터 박사(Rev. Dr Karin Achtelstetter, 2012년 경우)

세계그리스도교커뮤니케이션연맹(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17) “여성과 연대하는 교회 10년” 행사와 “폭력 극복 10년” 행사 기간에 WCC는 회원 교회들과 그 나라들을 “살아 있는 편지들”로서 목회적 단체 방문을 실시했다.

18) Would Council of Churches, 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World Evangelical Alliance,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Recommendations for Conduct, Geneva:WCC, 2011.

19)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es) 대표자들은 이 권고사항들 중 “다종교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의 증언” 문서에서 언급된 합의에 동의하지 않음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20) 참조, 2쪽.

- 미첼 번팅 목사(Rev. Mitchell Bunting)
아이오나 공동체(Iona Community)
- 고스버트 브야문구 박사(Fr. Dr Gosbert Byamungu)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 로단글리아니 치앙테 목사(Rev. Rothangliani Chhangte), 2009 벨렘 총회에서 서
릴 더들리 박사(Rev. Dr Cheryl Dudley) 대리인 자격
- 크리스토프 디알로이시오 씨(Mr. Christophe D'Aloisio)
세계정교회청년연합(SYNDESMOS-The World Fellowship Orthodox Youth)
- 셔릴 더들리 박사(Rev. Dr Cheryl Dudley)
교회세계봉사회(미국)(Church World Service)
- 크리스틴 후셀 양(Ms. Christine Housel, 2011년 당해)
세계학생그리스도교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 프라빈쿠마르 이스라엘 목사(Rev. Pravinkumar Israel), 2007년 보세이에서 마원
석 박사(Dr Wonsuk Ma) 대리인 자격
-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 대수도원장 잭 칼릴 박사(Archimandrite Dr Jack Khalil)
안디옥 총주교회/정교회(Patriarchate of Antioch/Orthodox Church)
- 비니스 코샤이 목사(Rev. Vineeth Koshy)
오리엔탈 정교회(Orthodox Oriental)
- 마원석 박사(Rev. Dr Wonsuk Ma)
아시아오순절협회(Asian Pentecostal Society)
- 래리 밀러 박사(Dr Larry Miller), 2007년 보세이에서 세트리 나옴 박사(Rev. Dr
Setri Nyomi) 대리인 자격
- 메노나이트 세계총회(Mennonite World Conference)
- 랜돌프 나일러 박사(Rev. Dr Randolph Naylor, 2008-2010)
세계그리스도교커뮤니케이션연맹
- 세트리 나옴 박사(Rev. Dr Setri Nyomi)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 오석환 목사(Rev. Sukhwan Robert Oh), 2011 사반느에서 마원석 박사 대리인 자
격
- 오이코스공동체교회(Oikos Community Church)
- 니엔케 프루이크스마 양(Ms. Nienke Pruiksma)

네덜란드개신교회(Protestantse Kerk in Nederland)

부주교 히라찌 사르키시안(Archdeacon Hratch Sarkissian, 2008-2010)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치미아진 교황청(Armenian Apostolic Church[Holy See of Etchmiadzin])

헤르멘 샤스트리 박사(Rev. Dr Hermen Shastri)

말레이시아교회협의회(Council of Churches of Malaysia)

루돌프 폰 진너 박사(Rev. Dr Rudolf von Sinner)

브라질루터교고백복음주의교회(Evangelical Church of the Lutheran Confession in Brazil)

마이클 왈라스 목사(Rev. Michael Wallace, 2008-2010)

세계기독교학생연맹

가경자(可敬者) 콜린 윌리엄스(The Venerable Collin Williams, 2008-2010)

유럽교회협의회(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

로비나 윈부시 목사(Rev. Robina Winbush)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WCC 창립 60주년 기념 에세이 콘테스트 당첨 참석자들—2009년 벨렘 모임 때 출석

어린 브리검 양(Ms. Erin Brigham)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

구 멩웨이 씨(Mr. Mengfei Gu)

중국교회협의회(China Christian Council)

베릴 허리세란 씨(Mr. Beril Huliselan M,Th)

(인도네시아기독교협의회)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Indonesia Christian Council)

페닐 라즈쿠마 박사(Rev. Dr Peniel Jesudason Rufus Rajkumar)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

차드 림머 목사(Rev. Chad Rimmer)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코펜하겐국제교회(International Church of Copenhagen)

루시 완부이 와웨루 양(Ms. Lucy Wambui Waweru)

케냐동아프리카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East Africa, Kenya)